

# 지식과 교양

##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 11호, 2023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 차 례

## [섹션 1: 지식과 교육]

---

### ▮ 박미숙 ▮

대면/비대면 수업을 이용한 영어작문 교육의 효과..... 9

### ▮ 차순정 ▮

대학생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활용 수업 연구 ..... 35

## [섹션 2: 지식과 사회]

---

### ▮ 이내관·이영조 ▮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3.8민주의거의 지역학적 위상 ..... 63

### ▮ 채 진 ▮

화재통계 분석을 통한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 ..... 93

## [섹션 3: 지식과 예술]

---

### ▮ 노영신 ▮

버지니아 울프 소설 『막간』에 나타난 타자 철학 ..... 123

### ▮ 심상교 ▮

문동과장의 존재론적 의미 연구 -동래야류·고성오광대를 중심으로  
..... 143

### ▮ 오세섭 ▮

SF 영화에서 기억의 재현 혹은 허구의 기억을 포장하는 방식 -영화의 시  
청각적 표현 스타일을 중심으로 ..... 171

■ 전범수 ■

영화 <파이트 클럽> 주인공의 정신질환과 극복과정 -라강철학을 중심으로 ..... 197

**[섹션 4: 지식과 융복합]**

---

■ 이승용 ■

도심 속 문화재로 감영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217

■ 임수정 ■

지역 문화의 예술 콘텐츠화 과정 연구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_홍산 모시 이야기>'를 중심으로..... 239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교양』 논문투고 규정..... 264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교양』 논문심사 규정..... 274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교양』 연구윤리 규정..... 278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289

#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11. 2023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 TABLE OF CONTENTS

## [Section 1: Knowledge & Education]

### ■ Park, Mi Sook ■

Effects of English Writing Education in Offline/Online Classes ..... 9

### ■ Cha, Sun Jeong ■

A Study on the Symposium for Improving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 35

## [Section 2: Knowledge & Society]

### ■ Lee, Nae Kwan · Lee, Young Jo ■

The Regional Status of the 3·8 Democratic Movement for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 63

### ■ Chae, Jin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Fire Safety Index through the Analysis of Fire Statistics: Focusing on the Fire Statistics Analysi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 93

## [Section 3: Knowledge & Arts]

### ■ Noh, Young Shin ■

Philosophy of the Other in Virginia Woolf's Between the Acts ..... 123

### ■ Sim, Sang Gyo ■

Study on the ontological meaning of mundung(leper)-gwajang: Focus on Dongrae Yaryu and Goseong Ogwangdae ..... 143

■ Oh, Se Seop ■

Representation of Memories or The Way of Embellishing Fictional Memories in SF Films: Focus on the Audio-Visual Expression Style of Film ..... 171

■ Chun, Bum Sue ■

Analysis of Jack's Mind, the Protagonist of <Fight Club>: Based on Lacanian Psychoanalysis ..... 197

**[Section 4: Knowledge & Convergence]**

■ Lee, Seung Yong ■

A Study on the Maintenance Plan of Gamyyeong as Cultural Heritage in the City Center: Focused on the Comparison and the Analysis of Cases of Gamyyeong ..... 217

■ Lim, Su Jeong ■

Study on the Process of Local Culture Contentization: Based on Record for Dance <Homonarrans\_Hongsan Mosi Story> ..... 239

# 대면/비대면 수업을 이용한 영어작문 교육의 효과

박미숙\*

## 목 차

1. 서론
2. 영어작문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3. 영어작문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설계
4. 대면/비대면 영어작문 수업의 사례분석 및 효과
5. 결론

## 1. 서론

국내 영어교육은 1980년대 이후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네 가지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영어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영어능력 인증제, 수준별 영어 수업, 그리고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중 영어글쓰기는 영어전공수업 뿐 아니라 일부 교양수업에서도 시행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김윤정, 2015; 신영현, 2018). 국제화된 사회환경과 산업체 기관의 업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 중의 하

---

\* 목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조교수

나가 바로 글을 통한 소통 능력이다. 영어전공 학생들 뿐 아니라 대학생이면 누구나 예비사회인으로서 영작 능력을 증진시켜 졸업 후 기업, 기관, 또는 기타 다양한 업무 및 사회활동에서 글로 쓰는 영어 활용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 체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을 통한 정보교환, 논쟁, 비평, 토론, 사고의 전달 등 국제적 소통 통로를 이용하는 데에도 영어작문 능력이 활용되는 영역은 넓다. 이처럼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영어글쓰기 수업의 필요성은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영어작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실용적인 영어작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영어작문 교육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실행했던 수업과 대면으로 실행하는 수업의 효과를 비교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업형태는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침착지도가 필요한 영어작문 수업을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을 통해서 전공교과로서 각각 진행했던 저자의 실제 수업형태에 기반을 두고 교수자가 보는 교육적 효과와 학습자들이 느끼는 학습적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 2. 영어작문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1990년대 이후 국제적 의사소통능력을 중요시하기 시작하는 교육적 분위기에 힘입어 듣고 말하기가 강조되었으나 전통적으로 한국의 영어 교육은 읽기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영어글쓰기 교육은 대단히 소극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글을 통한 문어적 언어능력 배양은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김애주, 2013; 김영서, 1996; 정양수, 2002). 쓰기 교육이 말하기나

읽기 교육만큼 많이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휘, 문법, 문장형식 및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창조해 내는 작업이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고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피드백하고 첨삭하는 지도가 필요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가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작문 실력은 문법이나 읽기 지도 보다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이 요구된다. 쓰기에서 표현되는 사고와 개념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도와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도 쓰기 교육의 어려움을 더한다.

실제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 가운데 쓰기는 통합적인 영어능력을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어휘, 문법,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을 창조적으로 조합하여 벌어지는 상황과 글을 읽는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적절한 표현으로 피력해야 하므로 영어의 기초지식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탁진영, 2012). 그러나 역으로 쓰기 학습을 통해서 문법적 구조, 어휘 및 관용어 활용 등의 능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영어글쓰기에서는 오류를 바로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모험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작문 실력을 확인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으며, 글을 쓰면서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기 위한 두뇌작용을 일으켜 언어인지적으로 영어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다(Emig, 1971).

이를 반영하듯 점차 전통적인 읽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말하거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김재경, 2014; Warschauer, 2000). 이는 영어작문 능력이 현 국제화 시대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능력이므로 체계적인 쓰기 교육이 필요함을 반영한다.

전통적으로 영어작문의 유형으로 Rivers(1981)는 통제작문(controlled writing), 유도작문(guided writing), 그리고 자유작문(free writing)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금선경(2007)과 신영현(2018)은 통제작문이란 교수자의 지도 하에 모방과 재배열을 중심으로 하는 작문활동을 가리키고, 자유작문은 교수자의 통제없이 학습자의 자유로운 글쓰기 활동을 가리키며, 유도작문은 두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제시된 모형의 문장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유롭게 변형시켜 작문하는 활동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Robinson(1965)은 통제작문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교사의 지시나 정해진 예시에 따라 글을 쓰기 때문에 작문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학습자는 불안감을 줄이고 적절한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통제작문에서는 교사 주도하에 내용과 언어적 측면에서 모두 통제가 되는 것이며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도 모범 답안을 통해 평가되기도 한다(Tomlinson, 1983: 10). 이는 대체로 작문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적용되며(이은정, 2010) 베껴쓰기 활동도 이에 포함된다(박상옥·이유진, 2009).

유도작문은 교수자의 지도 하에 주어진 표현 방식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학생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여러 표현을 응용 또는 재배열하거나 어느정도 자유롭게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작문 방법이다. 손평환(2002)도 유도작문은 교사의 통제를 받지만 학습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것으로서 학습자의 결과물이 교사의 예상대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어휘, 문장 구조, 글의 형태와 제목, 글의 소재, 아이디어의 내용적 측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글쓰기를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다시쓰기, 요약하기, 바꿔쓰기 등도 유도작문의 방법으로 간주된다(Pincas, 1982; Tomlinson, 1983). 여기에는 단어나 문장의 순서재배열 및 문법적, 의미적으로 맞는 단어 넣기, 제시된 글의 첫 문장과 끝부분에 맞추어 글의 구성 완성하기, 설명

하는 글, 묘사 글, 대화 등을 완성하기 등도 포함된다.

자유작문은 통제작문과 유도작문을 통해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독립적인 쓰기 단계로서 교수자의 통제없이 학습자가 글을 자유롭게 쓰는 활동이다. 주제를 자유롭게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서술한다. 자유작문을 통해 학습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더 넓은 견해를 가지며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신용진(1988: 158)은 Brooks(1964)에 따라 학습자들이 읽은 것을 다시 말하게 하는 방법도 자유작문의 한 활용 방법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러한 영어작문의 형태들이 실제 대학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시행되는지 저자의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 3. 영어작문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설계

본 장에서는 저자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영어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영어작문 수업 모형을 기반으로 기초적인 어휘나 문장구문 형식에서부터 구문활용하기, 문장의 체계적 순서 정하기, 주제문 또는 결론문 쓰기에 이르기까지 점차 작문의 범위를 넓혀가며 지도했던 수업내용과 교수방법을 제시한다. 문장구조의 이해부터 어구를 활용하여 단문 구성하기, 단락의 핵심내용을 파악하여 주제문이나 결론문 쓰기 등을 통해 영어글쓰기를 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배양하고 긴 단락의 내용을 읽고 자신의 표현으로 요약하거나 주제에 따른 짧은 에세이 쓰기(본 장에서 자유작문 에세이의 구체적 예시는 제시하지 않았음)를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 작문 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문장 구조와 분류

영어문장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아는 것이다. 대체로 대학생이라면 기본적 영어문장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어활용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장의 기본적 구성조건과 구조를 기초부터 점검하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제작문을 시작하기 전의 기초 단계로서 주어, 동사, 전치사구나 부사구로 구성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익히고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과 위치, 그리고 문법적 분류에 따른 어휘 형태들을 학습한다. 이러한 기초학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쓰기는 읽기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글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문장을 창의적으로 직접 생성하여 쓸 때는 학습자들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부분에서도 오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다지기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학습을 마치면 교수자의 지도하에 모방과 재배열을 주어진 특정 패턴의 문장을 반복하여 연습하는 통제작문(Rivers, 1981) 연습을 시행할 수 있다. (1)과 같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표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만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통해 주어진 패턴의 어법 유형을 의미와 함께 익히도록 하는 방법이 그 예이다. 또한 (2)-(3)과 같이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적절한 연결사를 찾아 넣는 빈칸채우기 연습도 가능하며 문맥에 맞는 문법적 어휘를 찾는 문장을 통해서도 통제작문 연습이 이루어진다. 이런 유형은 문법적 기초가 부족하고 어떻게 문장을 구성할지 모르는 초기단계의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인 작문 연습 방법이 될 수 있다.

- (1) 1. There are some reasons why I am against wearing my school uniform.  
2. The parents forced their daughter into marrying the man.  
3. I put through my goal that I wanted to reach.  
4. The students protested against the war by participating in demonstrations.
- (2) At popular malls, the hundreds of parking spaces all look the same, \_\_\_\_\_  
(so/also/furthermore) drivers should have a plan of action, \_\_\_\_\_ (therefore/

such as/moreover) writing down their section and row number or taking a photo of their location with a smart phone. Drivers can \_\_\_\_ (also/finally/ however) park near an entrance to their favorite store or another easy-to-remember location. \_\_\_\_ (for/finally/so), shoppers should not be afraid to do a little walking.

- (3) (Creative/Creatively) travelers know many (economical/economically) ways to take vacations. They (specific/specifically) look for low-cost airfares.

## 2) 문장 구성과 이해

구문 이해를 돕는 기초적 통제작문 학습으로는 주어진 문장들의 순서를 배열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단락을 읽을 때 논리적 순서와 전개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주제문, 본문, 결론문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바탕이 되는 학습이다.

### (4) Arranging Sentences in Time Order

#### How to Buy an Airline Ticket

- \_\_\_ Type in your travel dates and the names of the airports you will be traveling to and from.
- \_\_\_ Click the purchase button to buy your ticket.
- \_\_\_ Select your preferred departure flight.
- \_\_\_ 1 Go to an online travel site such as Orbitz, Travelocity, or Kayak.
- \_\_\_ Enter your credit card and other personal information.
- \_\_\_ Choose a return flight that is at a convenient time for you.
- \_\_\_ 8 Print your ticket confirmation or keep an electronic copy on your computer so that you will have it when it is time for your trip.
- \_\_\_ Look at the flights that fit your need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total price for a round-trip with taxes and other fees.

이와 같이 문맥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는 짧은 단락의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에 들어간다. 특정 주제에 대한 짧은 단락을 읽고 단락의 내용을 암시해 줄 수 있는 주제문(Topic Sentence)을 쓰고 주제문과 연결하여 글의 내용 전체를 포괄하여 종합하는 결론문(Concluding Sentence)을 쓰는 연습

을 한다. 이것은 문장을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완성하는 연습이기도 하지만 내용의 맥락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사고력도 요구되는 유도작문 과정이다. 단락의 주제를 파악하고 생각을 정리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제문으로 도입하고 단락 전체 내용을 축약하여 주제문과 맥락이 연결되도록 결론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와 작문 능력이 요구된다.

(5) Writing Topic Sentence

Why Everyone Should Try Yoga

---

First, it is easy to get started. Unlike other forms of exercise, yoga does not require a lot of special equipment or clothing, and it can be done almost anywhere. Next, yoga is a good form of exercise regardless of people's age or physical condition when they start out. However, most important are the benefits of yoga. It improves body strength and flexibility and is an excellent way to relieve stress. It is clear that yoga is an easy-to-do and beneficial way to get exercise.

(6) Writing Concluding Sentence

Smart Choices in the Cafeteria

The college cafeteria is full of food that can cause weight gain, but students have choices. For example, breakfast options include fruit and yogurt instead of pastries or bagels. At lunch, it is possible to have a green salad instead of a burger and fries or a slice of pizza. An excellent dinner choice is baked chicken with vegetables rather than a large serving of spaghetti or macaroni and cheese.

---

---

---

결론문 시작 전에 앞 문장과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In conclusion*, *All in all*, *In summary*, *In brief*, *To conclude*, *Indeed*, *To summarize*, *To sum up*, *In short* 등의 연결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It is clear that...*,

*These examples show that..., You can see that...* 등의 문장 형태로도 결론문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확인시키고 난 후 학습자들이 작문을 마치면 교수자는 (5)의 주제문 *There are several reasons that people do not eat breakfast*, (6)의 결론문 *In conclusion, students' weight gain depends on their choices at the table*을 제시하며 도입부분의 주제문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결론문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작성한 글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 시기부터 학습자의 사고력과 함께 어휘력, 문장구성력 등의 작문 능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영어작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언어적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체로 L2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 시 모국어 어법에 기반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글쓰기에서도 역시 한국어 어법적 사고 패턴을 영어적 어법 패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1:1 첨삭 지도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내적 차이를 학생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를 다수의 학생들은 *How do you come here?*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에서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의 뜻으로서 여기에 온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유나 목적을 묻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에 대한 적절한 표현은 *What brought you here?*, *What do you want?*, 또는 *Can I help you?* 등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그 강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대체로 *The majority of people attended the lecture*로 표현한다. 그러나 오히려 *The lecture attracted a large attendance*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강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것이니 결국 강의를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였다는 의미로 *attracted*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예들은 실제로 저

자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작문퀴즈 문제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역하듯 한국어 어법의 작문을 썼는데 이것은 1:1 첨삭지도 뿐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방식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지도가 작문수업 시간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효과적인 구문 이해는 문장을 구성하는 영어어휘의 문법적인 표현뿐 아니라 언어 간의 표현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완성될 수 있다.

#### 4. 대면/비대면 영어작문 수업의 사례분석 및 효과<sup>1)</sup>

##### 1) 대면수업 효과

대면수업의 효과 분석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수업을 진행했던 2020~2021년 이전과 이후의 영어작문 수업을 기반으로 하며 온라인수업 기간 동안 오프라인 수업으로 참여했던 일부 학생들의 작문활동도 포함된다.<sup>2)</sup> 3장에서 제시한 (1)~(6)의 예시를 포함하여 한국어를 영어로 옮겨쓰는 (7)과 같은 기초적인 통제작문 연습은 대면수업에서 1:1 첨삭지도로 수행되었다. 특히 주제문과 결론문 쓰기는 단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7)은 문법적 표현의 숙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7) a.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했다.

학생 : I reach my goal I hoped to passing the test.

첨삭지도 : I reached(put through, achieved) my goal that I wanted to pass the

- 1)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통한 영어작문 교육의 효과와 관련한 최근 문헌이 없어 저자의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하였음을 밝힘.
- 2) 대면수업의 내용은 2020년 이전까지 저자가 수년간 진행했었던 내용과 2022년부터 진행해 온 내용을 주로 가리키며 2020~2021년 동안 진행한 온라인 수업기간 중 선택적으로 강의실 현장에서 대면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저자의 소속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온라인/오프라인 수강의 선택권이 있었고 교수는 강의실에서 온라인 강의를 겸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음)의 작문 수업 형태도 포함함.

exam.

b. 그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학원에 등록했다.

학생 : When he was arriving in America, he checked in a language course.

첨삭지도 : When he arrived in America, he enrolled in a language school.

c. 그녀가 아스피린 4알을 복용했는데도 아직도 두통이 심하다.

학생 : Despite she has taken four aspirin, she has a hard headache.

첨삭지도 : Despite having taken four aspirin, she still has a terrible headache.

대면수업에서 무엇보다도 교수의 직접적인 첨삭지도의 효과는 (8)과 같은 짧은 단락에서 잘못되거나 어색한 표현을 찾아 바로 고치는 연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맥락에 맞는 글의 전개와 적절한 문법적 표현에 맞는 글을 학생들이 만들어 내는 유도작문 및 자유작문 연습이라 할 수 있다.

(8) 제시된 불완전한 단락

Physical Education

My favorite high school class was phys ed for a lot of reasons. My school was in the city and it was always hot in the summer. We never had air conditioning. Secondly, we were allowed to run laps instead of other things. So we ran around where no one could see us. And the PE teacher was so nice. Encouraging, too. We played our MP3s and chatted while we were running. It was great. Next I felt healthier and stronger. My PE class was a wonderful part of high school.

(9) 첨삭지도

My favorite high school class was physical education for a lot of reasons. First of all, my school was in the city, and it was always too hot in the classroom. Going outside to the fresh air was such a relief. Secondly, in physical education, we were allowed to run laps instead of lifting weights or playing basketball. Therefore, we ran around where no one could see us. We could listen to our MP3 players and chat with friends as long as we were running. Moreover, the PE teacher was great. He was so kind and encouraging. I needed

that. Finally, I felt so much healthier and stronger. In short, my PE class was a wonderful part of high school for me.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phys ed를 physical education으로 수정하지 못했으며 Firstly, 또는 First of all을 삽입하지 못했다. 문맥에서 필요없는 문장인 We never had air conditioning을 삭제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으며 마지막 문장 앞에 결론을 암시하는 연결어를 넣는 것도 대부분 표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쉽게 눈에 띄는 불완전한 표현인 Encouraging, too의 오류는 대체로 잘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를 문법적인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쓴 학생은 많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문맥의 흐름이나 논리적 전개 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지적하지 못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런 오류들을 개별적으로 수정해주고 첨삭하는 지도는 대면수업에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첨삭지도 시 학생의 글을 전면 삭제하고 교수자의 의도대로 다시 써서 수정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그것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사고력을 제약하고 글의 다양한 표현력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학습자의 작문 능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첨삭지도는 학생의 글의 형태와 문장 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 연습을 위해 통제작문과 유도작문 형태가 결합된 작문 연습도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교수가 문장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어로서 *[found wild bananas – very glad – hillside – ate them – started look – drinking]*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이 표현들을 이용하여 의미적 맥락에 맞게 자신의 표현들을 더하여 자유롭게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적절한 답으로서 *They were very glad when they found wild bananas growing on a hillside. After eating them, they started to look for drinking water*가 생성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

되는 맥락을 구성하였다. 또 다른 표현 [*couldn't find fresh water – afraid not survive on island*]가 제시되었을 때는 *I couldn't find fresh water, so I was afraid not survive on island*와 같이 형용사 *afraid*의 문법적 표현과 정관사를 동반해야 하는 *island*에 관한 오류가 다수의 많은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를 *I was afraid of not surviving on the island*, 또는 *I was afraid I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on the island*로 수정 지도하였다. 이와 같이 관사와 관용적 표현을 갖는 형용사의 용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여러 다양한 표현을 주어진 틀에 맞추어 글을 쓰는 기본적 작문 연습 뿐 아니라 문법적 어법의 표현방식을 숙지하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표현력을 완성시켜 나가는 연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쓰기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글쓰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점차 줄이고 작문에 대한 수정의 기대감을 올려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글쓰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학습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

대면수업을 통한 영작문 수업의 장점은 교수자가 학생들 개인별로 순회하며 어떤 의도로 쓴 글인지 질문하고 학생이 생각하는 관점에 맞추어 오류를 수정해 줄 수 있다는 점, 수업시간에 학생들 각 개인이 작성한 글의 문장유형과 문맥에 맞게 교수자가 적절한 여러 가지 어법으로 1:1 첨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유주제를 가지고 그룹워크를 통해 에세이를 작성할 때 서로 소통하고 생각을 교류하며 논의를 통해 글의 구성을 완성 시켜가는 협동학습을 실행하여 효과적인 자유작문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 비대면수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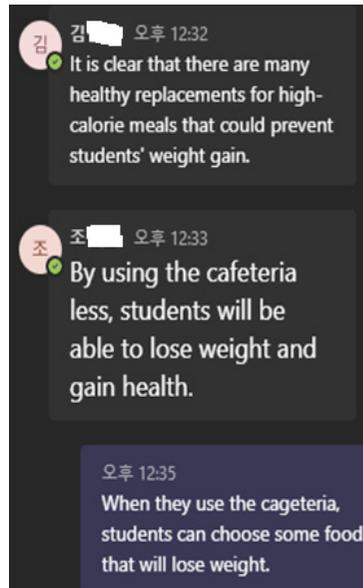
영어작문 비대면 온라인수업은 전국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던 2020~2021년까지 저자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로 실시간 시행한

수업에 기반한다. 일반적으로 단락의 구성은 주제문(topic sentence), 주요 내용(main point/supporting detail), 결론문(concluding sentence)으로 이루어지는데 (5)-(6)과 같이 주제문과 결론문을 비대면수업에서 직접 쓰는 연습은 학생들이 동료들이 쓴 여러 글들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0)은 Grand Canyon 관광방법을 소개한 짧은 단락을 읽고 주제문을 온라인 수업 중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채팅창에 올린 예이며 (11)은 체중감소를 위해 현명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두 학생의 결론문에 덧붙여 교수의 코멘트가 제시된 예이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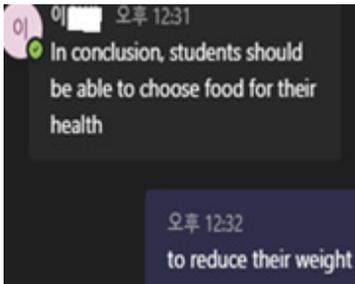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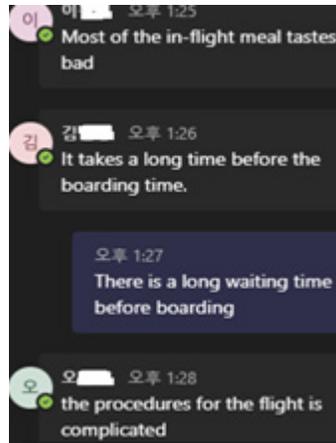
(12)에서는 단락의 내용이 체중감소에 관련한 내용이므로 학생의 *for their health* 표현을 내용의 주제에 맞게 *to reduce their weight*로 수정하는 것이 더 맥락에 맞을 것이라는 첨삭지도의 예이며 (13)-(14)는 *Travel by plane has*

*several disadvantages*를 주제문으로 가정했을 때 이 주제에 맞는 주요 내용 (main point)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쓴 예이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글들을 보고 자신만의 새로운 표현 방법을 구상할 수 있고 교수자도 학생들이 제시한 것과 다른 문장 유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들은 비슷한 의미의 글을 각자 다른 표현으로 제시하는 쓰기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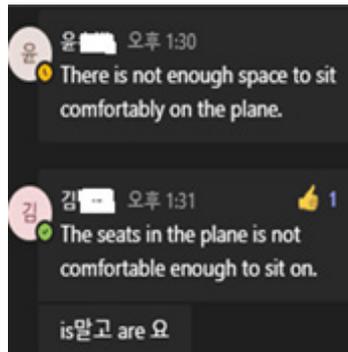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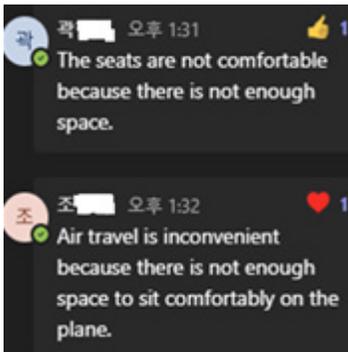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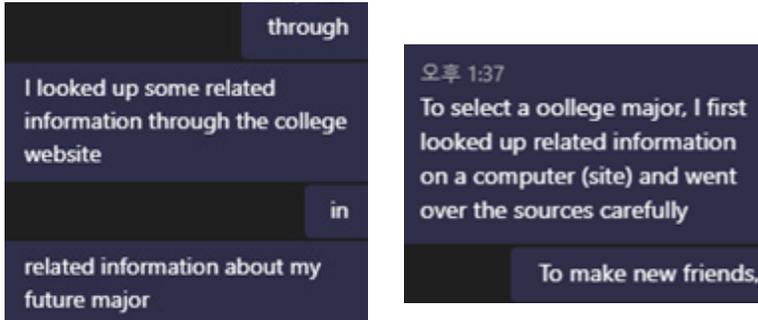
(14)



(15)는 주제문 *How to select a college major*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내용들 (main points)을 쓴 학생들의 글들에 대해 교수자가 온라인 채팅창에 직접

수정 및 첨삭하여 쓴 내용이다.

(15)



이와 같이 유도작문과 자유작문이 혼합된 유형의 글쓰기 연습은 대면 수업에서 보다 비대면 온라인수업에서 오히려 첨삭지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모니터에 올라온 학생들의 글들을 교수가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첨삭지도가 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누구의 어떤 표현은 어떻게 쓰면 더 문법적이고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수가 수정한 표현을 즉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생들은 채팅창에 올리는 동료들의 글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자체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고 같은 의미의 글을 다른 어법과 다른 문장 유형으로 표현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을 보였다. 이것은 자신이 쓴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뿐 타인의 글을 확인하지 못하는 대면수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글이 모니터를 통해 동료에게 공개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오히려 바로 첨삭지도 받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채팅창에 자신들이 생각한 글들을 올렸다. 온라인수업에서 학생들의 작문 활동이 더 활발했으며 학생들의 질문이나 교수자의 첨삭의 빈도도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학생들의 호응도 조사 및 평가

본 연구는 영어를 전공하는 충청지역의 대학교 1학년 재학생의 영어작문 수업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2020년 1학기부터 2022년 1학기까지 진행해온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에서 총 54명(매년 1학기 영어작문 교과목 수강생의 합: '20년도 17명, '21년도 18명, '22년도 19명)<sup>3)</sup>의 수강생들의 작문 활동과 호응도 및 학업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이 학생들의 작문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를 조사하여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 대면/비대면수업의 호응도 조사 1

| 설문문항 |                                       | 인원         |
|------|---------------------------------------|------------|
| 1    | 비대면수업이 대면수업보다 나의 작문 능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었다. | 33 (61.1%) |
| 2    | 대면수업이 비대면수업보다 나의 작문 능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었다. | 21 (38.9%) |
| 3    | 세부적인 첨삭지도가 비대면수업에서 더 잘 진행되었다.         | 29 (53.7%) |
| 4    | 세부적인 첨삭지도가 대면수업에서 더 잘 진행되었다.          | 25 (46.3%) |

[표 1]에서 숫자는 주어진 네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와 ‘아니다’ 중 ‘그렇다’로 답변한 인원을 뜻한다. 비대면수업이 대면수업보다 자신의 작문 능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한 학생이 61.1%로 그 반대로 답변한 학생보다 22.2%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인 첨삭지도도 비대면수업에서 더 잘 진행되었다고 답변한 학생이 그 반대의 문항에 답변한 학생보다 4명 더 많은 53.7%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문법적 오류, 문장 구조의 어법, 단락의 핵심내용과 관련한 주제문·결론문 쓰기에 대한 첨삭지도가 비대면 온라인수업에서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3) 4장의 1절 대면수업의 효과에서 언급한 대면수업 기간은 2020년 이전의 수업 형태도 포함하여 제시한 것이며 3절에서의 학생들의 호응도 조사 및 평가는 2020~2022년 기간동안 진행한 대면/비대면 영어작문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임을 밝힘. 또한 영어작문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의 영어실력 평가는 별도로 행하지 않았음.

이외에도 학습자 개인에게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 중 어떤 수업형태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 대면/비대면수업의 호응도 조사 2

| 설문문항 |   | 비대면       | 대면        |
|------|---|-----------|-----------|
| 1    | (비대면/대면) 수업에서 학습적인 동기부여가 더 크게 작용했다.           | 35(64.8%) | 19(35.1%) |
| 2    | 단락쓰기나 에세이쓰기는 (비대면/대면) 수업에서 더 효율적인 학습성과를 가져왔다. | 5(9.3%)   | 49(90.7%) |
| 3    | 영작문 수업의 만족도는 (비대면/대면) 수업에서 더 컸다.              | 33(61.1%) | 21(38.9%) |
| 4    | 자기주도적 학습은 (비대면/대면) 수업에서 더 잘 이루어졌다.            | 39(72.2%) | 15(27.8%) |

[표 2]에 따르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요약하거나 주제에 따라 각자의 사고, 의견, 논의 등을 피력하는 자유작문 유형인 단락쓰기나 에세이쓰기는 대면수업에서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90.7%로 우세하게 많았다. 이것은 대면수업 시간에 에세이를 쓸 때 글의 전개에 어려움이나 복잡한 표현방식 등에 관한 학생들의 질문에 교수자가 즉시 답해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면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유작문의 학습적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적 동기부여, 수업만족도, 자기주도학습은 비대면수업에서 더 잘 충족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호응도에 따르면 자유작문 연습을 제외하면 비대면수업이 교육적인 효과를 더 크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호응도 조사와 수업시간에 행해진 작문활동을 기반으로 교수자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통한 영어작문 수업은 각각의 교육적 장점을 가진다. 온라인수업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와 자기주도적 작문학습 성과를 올렸고 학생중심적 학습과정을

이끌어 대면수업 보다 더 높은 수업만족도를 얻었다. 반면에 대면수업에서는 작문연습의 단계가 높은 자유작문인 단락 및 에세이쓰기에서 개인별 차이에 따라 적절하고 명확하게 피드백할 수 있으며 그룹워크를 통한 협력적 작문연습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은 각각의 장점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작문교육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대면/비대면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테스트와 매 수업시간마다 제출한 작문활동 결과물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했을 때 다음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평균점수는 수업시간에 진행했던 6회의 수시테스트와 수업 중 행해진 작문 활동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결과물들을 평가한 총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이며 1~5에 해당하는 빈칸채우기, 문장 배열하기, 키워드로 문장 완성하기, 주제문(topic sentence) · 결론문(concluding sentence) 쓰기, 주제(topic)에 맞는 주요 내용(main idea) 나열하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주로 비대면 수업활동에서 학습한 내용이며 마지막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제시된 주제에 관련한 짧은 단락 쓰기는 대면수업 활동에서 학습한 내용이다. 이에 관한 글쓰기 문제들을 테스트했을 때 비대면수업에서 다루었던 학습내용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7점 이상의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반면 대면수업에서 다루었던 짧은 단락 쓰기에서의 평균점수는 5점대에 그쳤다. 문항 1~5에 해당하는 문제는 비교적 짧은 문장들이며 문항 6은 체계적 글의 구성을 가진 단락을 써야 하는 문제이므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작문 테스트이지만 실제로 제시된 주제가 일상적인 생활에 관련한 평이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밀도있는 논리력이나 구성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보다 더 낮은 평가점수를 보였다. 단락쓰기는 짧은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문장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작문활동의 단계가 자유작문으로서 1~5가

지의 문항보다는 더 난이도 높은 작문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네 문장 이상을 연속하여 이어나가는 글쓰기를 어려워했고 자연스러운 문장들의 연결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대면수업에서 주지시켰던 작문방법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채점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곧 낮은 평균점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비대면수업에서 다루었던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잘 습득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3]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평가 결과

| 테스트에서 활용한 관련 문항 |                                     | 평균점수 |
|-----------------|-------------------------------------|------|
| 1               | 빈칸채우기                               | 9.2  |
| 2               | 문장 배열하기                             | 8.1  |
| 3               | 키워드로 문장 완성하기                        | 8.6  |
| 4               | 주제문 · 결론문 쓰기                        | 8.3  |
| 5               | 주제(topic)에 맞는 주요 내용(main idea) 나열하기 | 7.8  |
| 6               | 제시된 주제에 관련한 짧은 단락 쓰기                | 5.2  |

종합하면, 비대면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대면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 모두 피드백을 거쳐 수정지도한 대로 학생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대면수업 내용에 기반하여 출제된 문제에서는 더 다양한 문장 유형들의 답변을 볼 수 있었고 단순히 교수의 첨삭지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학습자 자신의 창의성을 보이는 글들도 눈에 띄었다. 학생들의 글의 내용의 차이를 점수로 나타내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영어어법의 문장 유형과 구조는 대면/비대면 수업을 통해 잘 숙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이성적 판단, 창의성 등을 동반하는 자유작문의 글쓰기는 작문 전략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습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교육적 환경 등을 통해 인지력과 사고력을 배양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

## 5. 결론

통상적으로 작문지도는 강의실 현장에서 대면으로 수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면/비대면 수업 모두에서 작문교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오히려 비대면수업에서의 글쓰기 지도는 즉각적인 교수의 수정 지도와 학생들 상호간의 교류로 영어글쓰기의 학생중심적 학습력 증진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면수업의 효과는 공동작업을 요하는 그룹워크 작문 연습이나 주제를 가지고 논하는 긴 단락이나 에세이 쓰기에서 교수자의 피드백이 수시로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에 비대면수업의 효과는 온라인 모니터에 올리는 여러 학생들의 글들을 모두 학습자와 교수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즉시 개인별로 피드백이 가능하며 학생들도 타인의 글을 보며 다양한 구문형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영어글쓰기 능력개발은 어떤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글의 내용을 요약해내는 통찰력을 기르는 훈련이 동반되어야 그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쓰기 기술만이 아니라 사고력, 창의력, 논리력을 배양하도록 교수자가 지도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양재석, 2016).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우선 읽기 수행을 통해 글의 맥락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고 영어어법에 맞는 문장구문을 생성해내는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학습자의 능동적인 글쓰기 연습으로 이어지도록 교수자의 지도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첨삭지도와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학습자 개인의 수준별 지도가 수행되어야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에서 영어작문 지도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소통능력을 가진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며 유의미하게 실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교수자로서 영어작문 교육에 적합한 대면/비대면 수업 전략을 세우고 각각의 장점을 적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금선경,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 쓰기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13권 1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51-83쪽.
- 김애주, 「과정중심 영작문 수업이 영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영문학연구』 55권 5호,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13, 115-135쪽.
- 김영서, 「동료 오류 수정양상」, 『영어교육』 51권 2호, 한국영어교육학회, 1996, 125-147쪽.
- 김윤정, 「대학의 수준별 영어 수업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27권 3호,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 2015, 87-104쪽.
- 김재경, 「교양영어 교육의 보조프로그램 효과 연구-배재대학교 말하기 및 쓰기 지도실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권 5호, 한국교양학회, 2014, 367-396쪽.
- 박상옥, 이유진, 「영어교육에서 베껴쓰기와 요약하여 쓰기의 효과 비교: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10권 2호, 현대영어교육학회, 2009, 60-86쪽.
- 손평환, 「영미 문학 자료를 이용한 효과적인 영어 쓰기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신영현, 「대학생의 영어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영어수업 연구」, 『교양교육연구』 12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37-65쪽.
- 신용진, 『영어교육공학Ⅲ』, 서울: 한국문화사, 1988.
- 양재석, 「한국 대학생의 영어 글쓰기 능력과 글쓰기 전략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영어영문학』 21권 1호, 미래영어영문학회, 2016, 485-506쪽.
- 이은정, 「영어작문교육에서의 통제영작과 요약영작의 비교연구」, 『현대영미어문학』 28권 4호, 현대영미어문학회, 2010, 109-126쪽.

- 정양수,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쓰기 학습의 효과와 효율적인 교수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 5권 2호, 한국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2002, 130-155쪽.
- 탁진영, 「쓰기에 대한 인식도 및 쓰기 중심 교양영어 수업의 방법·만족도 조사: 영어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영어 비원어민 교수 수업을 중심으로」, 『영미어문학』 105권, 한국영미어문학회, 2012, 323-349쪽.
- Brooks, Nelson,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4.
- Emig, J, *The Composing Processes of Twelfth Graders*, Urbana: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71.
- Pincas, A, *Teaching English writing: Essential language teaching series*, London: Macmillan Press Limited, 1982.
- Rivers, Wilga M,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Robinson, L, “Controlled writing for intermediate foreign students,” In Allen, H. B.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McGraw-Hill, 1965.
- Tomlinson, B, “An Approach to the Teaching of Continuous Writing in ESL Classes,”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 37, no. 1, 1983, p.7-15.
- Warschauer, M, “The Changing Glob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nglish Teaching,” *TESOL Quarterly*, vol. 34, no. 3, 2000, p.511-535.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실행했던 비대면수업과 현재의 대면수업을 통해 영어작문 지도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영어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작문 전공수업에서 실제로 실시한 대면/비대면 수업의 효과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작문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첨삭지도가 대면과 비대면 수업형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두 수업형태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학습효과와 교수자가 분석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통제작문, 유도작문을 주로 다루었던 비대면수업에서는 학습자 개인별로 즉각적인 수정지도가 잘 이루어졌으며 자유작문과 그룹워크 활동은 대면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적절히 활용하는 교수자의 지도전략이 영어글쓰기 지도의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비대면수업 형태를 통해서도 작문지도는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기여한다.

주제어 • 통제작문, 유도작문, 자유작문,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 ■ Abstract

### Effects of English Writing Education in Offline/Online Classes

Park, Mi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how effective teaching English writing is for students through both online classes, which were held due to the global spread of the corona epidemic, and current offline classes. This study aims at the effects of offline/online classes actually conducted in the English writing class for students majoring in English, and explores how effectively the improvement of students' writing ability and the correction instruction of the writings are made in offline/online classes based on actual class contents. The immediate correction for each learner's writing is performed well in online classes which mainly deals with controlled and guided writing, whereas free writing and group work activities are proved to be effective in offline classes. As a result,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instructor's teaching strategy, which can be appropriately utilized in offline/online class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educational effect of English writing instruction.

**Keyword • Controlled writing, Guided writing, Free writing, Offline class, Online class**

■ 논문투고일:2023. 01. 10. ■ 심사완료일:2023. 03. 15. ■ 게재확정일:2023. 03. 21. ■

# 대학생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활용 수업 연구

차순정\*

##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심포지엄의 토의 모형과 수업 활동
4. 결론 및 제언

### 1. 서론

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실제 학습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수자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습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는 데 그쳐있다. 이에 대학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의 동기와 적성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는 교수법을 연구 중이며 교양과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은 보통 직업 훈련이나 성인교육에

---

\* 공주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능력<sup>1)</sup>으로 논의하던 것인데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OECD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 이후 교육계에도 도입된 개념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강조한 역량은 지식과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을 이용하여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sup>2)</sup>

이러한 역량 중 모든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act autonomously)’,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use tools interactively)’, ‘이질집단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능력(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은 대학생이 함양해야 할 핵심역량으로 전공지식과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력과 사고력, 창의성과 리더십 등을 도출, 강조하고 있다.<sup>3)</sup> 대학은 대부분 교양과목에 글쓰기 강좌와 함께 말하기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교양 필수로 강화하고 글쓰기나 말하기 지원센터를 두어 학습자들의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sup>4)</sup>

- 1) 소경희, 「국가 교육과정 개혁 과제 탐색:‘2007 교육과정’의 검토와 반성」, 『아시아교육연구』 8권 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7, 135-159쪽.
- 2) 이사영, 「OECD DeSeCo 및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일 고찰 :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9. 재인용.
- 3) 김연희, 정재삼, 이종경, 이우진, 「대학생이 인식하는 핵심역량과 교육요구도 분석」, 『교육방법연구』 22권 4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10, 1-20쪽.
- 4) 문성채, 「대학교양에서 토의식 수업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지도력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8권 1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6, 300-314쪽.

K대학교에서도 4대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하위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K대학교 4대 핵심역량

| 4대 핵심역량 | 정의   | 하위요소   | VALUE UP                          |
|---------|--|--|-----------------------------------|
| 가치탐구 역량 |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탐구하고, 리더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 미래변화인식<br>미래도전<br>진로준비실천                               | Academic Excellence<br>Uniqueness |
| 자기개발 역량 |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배양하고, 자주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                                  | 목표지향관리<br>자기주도학습<br>자기조절능력<br>비판적태도<br>창의적발상<br>융합문제해결 | Vision Expert                     |
| 의사소통 역량 |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상황에 맞추어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   | 비판적수용력<br>효과적표현력<br>글로벌 소통                             | Understanding                     |
| 공동체 역량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시민에게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길러 공동체 문제해결과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능력 | 사회적 책임의식<br>참여협력<br>나눔실천                               | Leadership Participation          |

본 연구는 K대학교의 교양수업인 <발표와토론>에서 이러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토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2020년 이후 COVID 19로 인해 대학 수업은 대면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실시간 화상 회의 시스템 및 동영상 활용 수업 등 새로운 수업의 형태가 대두되었고 이를 활용한 수업 방법들도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에서 PBL을 활용한 심포지엄 토의를 소개하고 이러한 심포지엄 활용 수업이 대면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에서도 핵심 역량 강화에 유용할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될지, 학생들의 만족도가 있을지 밝

히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심포지엄 진행의 이유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지식을 일원적으로 습득하고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원적인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선별하여 습득하는 시대이며 타인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회성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은 의사소통 및 공동체 능력이며 이를 위해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내 교육 방법으로 토의와 토론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토의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듣는 활동으로 집단 사고의 과정을 통해 당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견, 사실, 정보, 지식 등을 교환하며 협력적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다.<sup>5)</sup> 토의 과정을 통해 주제나 문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으며 동일한 주제나 문제를 다각도의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어 학습자들의 시각을 확장하고 사고 능력을 함양하며 협동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sup>6)</sup>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만이 최선이 아님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이 지식이나 견해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up>7)</sup>

토의 유형 중 심포지엄(symposium)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두 사람

- 
- 5) 정문성, 「토의·토론수업의 개념과 수업에의 적용모델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04, 147-168쪽.
  - 6) 박창근, 「토의수업 활성화를 위한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전략」,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993-1013쪽.
  - 7) 이효영,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토의식 교양수업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4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309-322쪽.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토론회(네이버어학사전)<sup>8)</sup>로 지식을 다루는 대학에서 유용한 토의 방법이다. 대학 수업의 경우 집단의 규모가 커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주제로 직접 토의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심포지엄의 방법은 학습자들을 모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심포지엄은 전문가들의 토의 유형으로 대학생들이 진행하기에는 지식적 한계가 따른다. 이에 전문가집단을 양성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집단을 양성하는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PBL(Problem-Based Learning)의 특징과 효과

PBL(Problem-Based Learning)은 의과대학에서 시작된 교수-학습 전략으로 현재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sup>9)</sup> PBL의 정의는 분야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익히고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일컫는다.<sup>10)</sup> 따라서 PBL은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문제 제시, 학습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의논해 공통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는 데 아주 적합한 수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PBL이 전통적인 수업방식과 구별되는 특징<sup>11)</sup>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다.

---

8) 네이버어학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1982c506a81405eb4237e50c8c23101>, 2023.01.20.

9) 황성근, 「PBL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교육 방안」, 『사고와표현』 10권 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7, 51-80쪽.

10) 최정임, 장경원, 『PBL로 수업하기』, 학지사, 2010.

11) 최정임, 장경원, 위의 책.

첫째, PBL에서는 문제로부터 학습이 시작된다. 문제가 제시되면 학습자는 문제를 통해 흥미와 의욕을 느끼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둘째, PBL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다.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셋째, PBL에서는 그룹 활동을 통한 학습이 진행된다. 대부분의 학습이 동료 학습자와의 협력을 통한 소그룹 활동 안에서 발생하므로 협업을 통한 그룹 활동이 필수적이다.<sup>12)</sup> 문제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역할을 배분하고, 배분된 역할에 따라 주어진 책임을 다한 후 동료들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면서 협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넷째, PBL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학습자는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지식을 얻고 전문성을 지니게 되면서 전문적인 사고의 경험과 성취감을 얻게 된다.

다섯째, PBL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진행자’ 또는 ‘촉진자’로 전환된다. 교수는 그룹 활동을 돕는 수업 보조자로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질문을 제기하거나 방법적인 부분의 피드백 등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학습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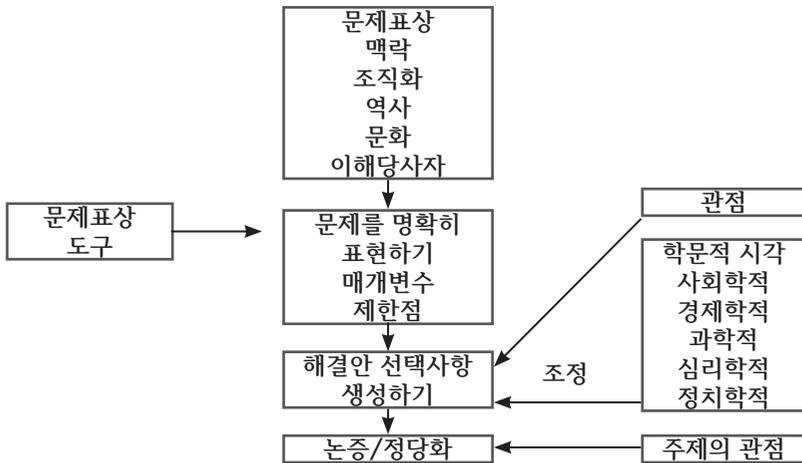
따라서 PBL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의 습득하여 전이 및 통합이 일어나도록 한다. 또한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협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12) 박성희, 「PBL의 대안으로써의 E-PBL」, 『창의력교육연구』 9권 1호, 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09, 119-136쪽.

PBL이 전제하는 문제 상황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PBL에서 중요한 것은 ‘대립’보다는 ‘협업’이었다(류수연(2019)). 팀원들의 협업을 통해 최상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PBL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PBL에서 다루는 문제의 종류에는 논리 문제(logical problem), 알고리즘(algorithm), 일화형 문제(story problem), 규칙사용문제(rule-using problem), 의사결정(decision making), 결함해결(trouble-shooting), 진단해결(diagnosis-solution), 전략적 수행(strategic performance), 사례분석(case analysis), 설계(design), 딜레마(dilemmas) 등이 있다 (Jonassen, 2000a, 조규락·박은실 역, 2009).<sup>13)</sup> 그중 이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는 사례분석문제(사례, 시스템 및 정책 분석 문제)에 해당하며 법이나 경영, 정책상의 문제, 사업 및 상황적인 사례 문제 등 복잡하며 비구조적인 경향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림 1] 사례 및 시스템 분석 문제해결 환경 모형

13) David H. Jonassen 저, 조규락·박은실 역, 『문제해결학습 교수설계가이드』, 학지사, 2009.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 및 시스템 분석 문제해결 환경 모형을 적용하여 심포지엄을 진행하고자 한다.

### 3. 심포지엄 토의 모형과 수업 활동

심포지엄 토의수업을 기획한 이유는 학습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자기주도적인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또한 전공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학습자들의 동기 및 관심이 유발되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말하기 수업에서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공자로서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첫째, 심포지엄은 한 가지 주제로 다각도의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가는 토의 방식으로 전공이 상이한 학생들이 섞여 있는 수업의 형태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토의 형식이다.

둘째, 심포지엄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4-5명의 참여자들이 청중을 앞에 두고 각자 일정한 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난 뒤 청중으로부터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와토론>에서의 토의 시간은 발표와 토론 등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대 4주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학습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습자 상호간의 협동을 장려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앞서 배운 프레젠테이션의 전략과 연계한 수업으로 학습자들의 발표 능력을 숙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셋째, 심포지엄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집단을 만들기 위해 연계된 학과 학습자들을 한 조로 편성하였다. 연계가 어려운 경우 학습자들의 관심

분야를 조사하여 같은 관심을 가진 학습자들이 한 조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넷째, 전문가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전문성이 필요, 전공학과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직 1학년 2학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많지 않으나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도할 수 있었다.

다섯째, 또한 토의 문제에 관한 다양하고 권위 있는 의견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되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발표 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토의에 임할 수 있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여섯째, 심포지엄은 먼저 각 토의자가 분담한 토의 문제에 관한 정보나 자기 견해를 청중에게 연설, 강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를 한 다음 청중의 질의를 받으며, 토의자 간 의견 교환이 거의 없고 특정한 결론 도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이 도출한 다양한 의견을 경쟁 없이 들을 수 있다.

심포지엄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PBL은 전문 지식을 생성해 내는 과정으로 전문가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그룹 활동을 통해 전문가적 지식을 축적하고 발표할 내용을 생성하게 된다. 그러나 준비된 내용을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발표 내용이 중복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경우 학습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도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제 심포지엄에서는 의견교환 등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청중의 질의응답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포지엄 토의 수업은 크게 '전문가집단 양성 과정과 심포지엄'의 단계

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집단 양성 과정은 PBL을 활용하여 그룹별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그룹 활동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양성 과정은 토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그룹별로 전문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전문가적인 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심포지엄은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결과물을 발표하는 단계로 각 그룹별로 해결한 내용을 발표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결과물과 비교할 수 있다. 마지막 평가에서는 심포지엄의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상호 평가와 자기 평가를 진행한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과 같다.

[표 2] 심포지엄 토의 단계 및 활동 내용

| 단계 | 심포지엄 교수학습과정 | PBL 적용 과정      | 주요 활동 및 학습 내용  |
|----|-------------|----------------|--|
| 1  | 준비과정        |                | 토의 이론 및 PBL 모형 소개<br>그룹 구성   |
|    |             | 문제 제시          | 해결해야 할 문제 제시<br>전공 영역에서 학습할 내용 확인, 주제에 대해 개별 자료 수집                   |
| 2  | 전문가집단 양성    | 문제표상           | 그룹 구성원들과 문제를 상세히 검토,<br>문제의 원인, 결과, 가능한 해결안에 대한 가설 검토                |
|    |             | 해결안 선택 사항 생성하기 | 개별학습, 학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정보를 찾고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                       |
|    |             | 논증/정당화         | 개별학습한 결과를 발표, 의견 종합<br>동료의 학습결과와 자신의 학습결과 비교하여 최적의 해결안 모색, 팀별 과제물 작성 |
| 3  | 심포지엄        |                | 그룹별로 해결안 발표  |
|    |             |                | 학습결과 정리 및 평가<br>그룹별로 제시된 해결안에 대한 교수자의 평가, 학습자 상호 평가, 자기평가            |

K대의 <발표와토론>은 프레젠테이션, 토의, 토론, 면접 등 말하기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하나의 형식을 오랫동안 진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수업은 4-5주, 총 8-10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참여인원은 공과대학 31명, 산업과학대학 33명이었으며 각 6그룹으로 편성하였다. 소그룹의 인원은 5-6명이었고 전공이나 학부가 유사한 학습자들로 구성하였다.

### 1) 준비 과정

토의 수업을 하기 위한 첫 단계로 토의의 개념과 전략 등 이론적인 부분을 수업한다. 이미 토의 이론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했겠지만 실제 토의는 미숙한 학습자들이 많으므로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확한 이론과 전략에 대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PBL을 활용하여 토의 문제에 접근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PBL 모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하므로 같은 학과 및 유사 학과 학습자들끼리 조를 편성하였다. 아직 전공적인 지식이 있는 학습자들은 아니지만 관심도가 다르고 전공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따른 조 편성이 유용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20분 동안 조를 편성하고 조원들이 인사를 하며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다음은 토의를 실제 진행하기 위한 다음 절차는 ‘토의 문제 제시’이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단과대별로 다르게 주어졌다. 사례분석 문제는 맥락의 존적이어서 더 실제적이고 상황적인 과제 환경이 필요한데 사회적, 정치적, 조직적 맥락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sup>14)</sup>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맥락이 부여한 제한점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어떤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공과대

14) David H. Jonassen 저, 조규락·박은실 역, 앞의 책.

학은 기후 칼럼을 제시하여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피고 그 문제점들을 전공 분야에서 원인을 찾고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고 산업과학대학은 ‘인구소멸지역’에 속한 예산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방안을 전공별로 찾아보도록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토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

**<공과대학 :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 이상기후, 기후위기인가?<sup>15)</sup>

지구가 현재와 같이 빠른 속도로 가열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있다고 이미 오래전에 과학계가 증명하였고, UN 차원에서는 그 대책을 위한 국제적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마당이니,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 같다.

지구온난화는 기후의 패턴을 변화시키는데,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그로 인한 복합적 반응 및 악순환의 영향으로 그 온난화 정도가 심해지면서 그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즉 이상기후가 더욱 자주 발생하고 점점 강해진다. 최근 우리가 접했거나 접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관해 언론에 등장하는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모두 역대급, 사상 처음, 최장, 최고, 최저 등의 수식어가 붙는다.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도 기사 제목들은 한결같은데, 이는 해를 거듭하면서 기록이 계속 경신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니 최근 벌어진 이상기후 현상들은 모두 역대급이라 과거의 사례까지 뒤져볼 필요도 없을 정도다.

우리가 소위 이상기후라 부를 때 이 범주 안에 드는 극한 기상 사건들은 폭염, 폭우, 폭설, 태풍, 가뭄, 이상 장마 등이고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사건들로는 산불, 빙하 붕괴, 메뚜기 떼 확대, 식량부족 등이다. 우선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기상기구나 세계 유수의 기상 관련 기관들이 발표하여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 기상·기후 기록 및 관련 사건을 보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후략)

**<산업대학 : 예산 지역 발전을 위한 방법 찾기>**

‘인구감소 지역’ 89곳 첫 지정… 年 1조씩 10년간 지원<sup>16)</sup>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경북 의성군과 전남 고흥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공식적으로 정

---

15) 김세원 APEC 기후센터 전문위원, “전 세계 이상기후, 기후위기인가?”, <시사오늘>, 2021.03.11.

16) 정한국 기자, “‘인구감소 지역’ 89곳 첫 지정… 年 1조씩 10년간 지원”, <조선일보>, 2021.10.19.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대를 지원해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로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뽑아 발표했다. 이 중 85곳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이다.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다. 강원에서는 삼척·태백시 등 12곳이, 경남에서는 밀양시 등 11곳이 포함됐다. 전북에서는 김제·남원·정읍시 등 10곳, 충남은 공주·논산·보령시 등 9곳, 충북은 제천시 등 6곳이었다.(중략) 인구감소지역은 내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연간 총 1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새로 만들 예정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청년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소멸 위기를 탈출할 정책을 짜오면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제도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2조 5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주거나 우선 순위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배정할 계획이다. 청·장년층의 귀농·귀촌과 관련한 창업 지원이나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 설립과 같은 출산을 제고와 관련한 사업 등이 대상이다.

---

## 2) 전문가집단 양성 과정

심포지엄은 전문가 집단의 토의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학문적 소양을 쌓고 그를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

### (1) 문제표상 도구 ; 문제 분석 및 확인 과정

칼럼과 기사로 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표상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맥락이 부여한 제한점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어떤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하며 이해한 부분을 유의미한 형태로 모형을 구축한다. 이 과정은 학습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유의미한 개념 모형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체 발표의 개요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기후 문제 해결안이 예   | 인구 소멸 문제의 예  |    |                   |    |                 |    |                    |    |                        |
|--|--|----|-------------------|----|-----------------|----|--------------------|----|------------------------|
| <p>● 기후변화에 대한 전공 관련</p> <p>◎ 건축 관련 문제점</p> <p>[건축으로 인한 문제점 (건축→기후변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에서 많은 에너지 낭비</li> <li>2. 건축, 건설 사업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gt; 전 사업의 40% 차지</li> <li>3. 많은 양의 폐자재 발생</li> </ol> <p>[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 (기후변화→건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수량 증가 &gt; 건설 현장의 침수 피해</li> <li>2. 폭풍우 &gt; 경량자재가 바람에 날아감 &gt; 사고 위험성 증가</li> <li>3. 높은 습도 &gt; 금속 자재 부식, 목재의 변형</li> </ol> <p>[해결대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기 설계 과정에서 전략적 결정과 계획이 필요</li> <li>2.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계 필요</li> </ol> | <p>예산군 = 초고령 사회</p> <p>≡</p> <p>디지털 소외현상, 작물의 제한성, 농촌 공동화</p> <p>≡</p> <p>지방 소멸</p> <table border="1" data-bbox="705 485 1041 628"> <tr> <td>원예</td> <td>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td> </tr> <tr> <td>조경</td> <td>식물 교육 공원, 돌봄 농장</td> </tr> <tr> <td>식자</td> <td>예산 특산 식물을 이용한 푸로그림</td> </tr> <tr> <td>식영</td> <td>예산 특산 식물(연 일)을 이용한 건강식</td> </tr> </table> | 원예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 | 조경 | 식물 교육 공원, 돌봄 농장 | 식자 | 예산 특산 식물을 이용한 푸로그림 | 식영 | 예산 특산 식물(연 일)을 이용한 건강식 |
| 원예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  |    |                   |    |                 |    |                    |    |                        |
| 조경   | 식물 교육 공원, 돌봄 농장  |    |                   |    |                 |    |                    |    |                        |
| 식자   | 예산 특산 식물을 이용한 푸로그림   |    |                   |    |                 |    |                    |    |                        |
| 식영   | 예산 특산 식물(연 일)을 이용한 건강식   |    |                   |    |                 |    |                    |    |                        |

학습자들은 전공 영역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찾는다. 이는 아직 가설에 불과하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할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며 개별 과제로 부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시기로 전공 지식은 물론이고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토론방을 개설해 주거나 그룹별 채팅방을 마련하여 찾은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학습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수자는 학습한 내용이 보다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나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하며 인용한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출처가 분명한지, 수렴한 자료의 의견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정임·장경원, 2010).

## (2) 해결안 선택사항의 생성하기 및 논증하기

토의는 학습태도의 측면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며 열정적이고 자율적 태도를 형성하는 장점이 있으며 학습적인 측면에

서는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유발되어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별 활동의 분위기 형성이 어렵고 토의 주제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무임승차 및 봉효과로 인한 평가 불공정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이효영, 2020)을 지적하고 있다.

해결안 선택사항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학습한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내용을 생성해 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사회자나 기록자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생성하게 되며 그룹 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그룹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학습자들을 독려했고 자신들이 준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의 예

| <h4 style="text-align: center;">기후변화 원인</h4>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자연적 원인<br/>기후 변화 원인<br/>(태양 활동, 화산, 지진, 해양순환의 변화)<br/>오존층의 상층부에 있어 부정</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위적 원인<br/>도시화로 인한 열섬<br/>고층빌딩과 도로로 인한<br/>온실효과 증가</p> </div> </div> | <h4 style="text-align: center;">도시화로 인한 피해</h4>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도시화로 인한 열섬<br/>효과<br/>-야간엔 도시화로의 열 흡수하여 낮과 도시 내 1~2도 더 높기<br/>-불투명 면적에 의한 온실효과 증가로 온도 증가<br/>-도시 열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도시화로 인한 대기오염<br/>-자동차의 막대한 배출가스<br/>-공장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대기 질을 악화<br/>-대기 질을 악화시켜 호흡기 질환<br/>-대기 질을 악화시켜 대기오염물질 확산<br/>-대기 질을 악화시켜 대기오염물질 확산</p> </div> </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h4 style="text-align: center;">도시화로 인한 기후변화 최근 이슈 - 국제 대안 서약</h4> <p style="text-align: center;">대안 배움이 많은 나라(단위: 백만 명)</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d>1 중국</td><td>1243863</td></tr> <tr><td>2 러시아</td><td>894857</td></tr> <tr><td>3 인도</td><td>694651</td></tr> <tr><td>4 미국</td><td>692259</td></tr> <tr><td>5 브라질</td><td>494152</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2019년 제19차 기후변화 정상회의(COP25) 합의 결과<br/>자주발전포럼그룹</p>               | 1 중국  | 1243863 | 2 러시아 | 894857 | 3 인도 | 694651 | 4 미국 | 692259 | 5 브라질 | 494152 | <h4 style="text-align: center;">도시화로 인한 기후변화 최근 이슈 - 북미의 폭염 사태</h4> <p style="text-align: center;">북미의 최근 폭염 사태 (최근 기록: 6.29)</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h>지역</th><th>최고 온도</th></tr> <tr><td>Lytton, Canada</td><td>49°C</td></tr> <tr><td>Cache Creek, Canada</td><td>49°C</td></tr> <tr><td>Kamloops, Canada</td><td>49°C</td></tr> <tr><td>Salton, US</td><td>49°C</td></tr> <tr><td>Portland, US</td><td>49°C</td></tr> <tr><td>Vancouver, US</td><td>49°C</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Source: Meteorological Service of Canada, US National Weather Service</p> | 지역 | 최고 온도 | Lytton, Canada | 49°C | Cache Creek, Canada | 49°C | Kamloops, Canada | 49°C | Salton, US | 49°C | Portland, US | 49°C | Vancouver, US | 49°C |
| 1 중국   | 1243863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러시아  | 894857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인도   | 694651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미국   | 692259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브라질  | 494152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   | 최고 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Lytton, Canada   | 49°C  |         |       |        |      |        |      |        |       |        |   |    |       |                |      |                     |      |                  |      |            |      |              |      |               |      |
| Cache Creek, Canada  | 49°C  |         |       |        |      |        |      |        |       |        |   |    |       |                |      |                     |      |                  |      |            |      |              |      |               |      |
| Kamloops, Canada   | 49°C  |         |       |        |      |        |      |        |       |        |   |    |       |                |      |                     |      |                  |      |            |      |              |      |               |      |
| Salton, US   | 49°C  |         |       |        |      |        |      |        |       |        |   |    |       |                |      |                     |      |                  |      |            |      |              |      |               |      |
| Portland, US   | 49°C  |         |       |        |      |        |      |        |       |        |   |    |       |                |      |                     |      |                  |      |            |      |              |      |               |      |
| Vancouver, US  | 49°C  |         |       |        |      |        |      |        |       |        |   |    |       |                |      |                     |      |                  |      |            |      |              |      |               |      |
| <h4 style="text-align: center;">현재 기후 변화 정책</h4>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b>복합적 접근</b></p> <p>국제협약에 따라 추진하여 합의된 내용 가능<br/>미국은 행정부나 법률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원천 시 제1951년 제정된 파리협약에 따라 추진 가능<br/>지역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별 접근 방식에 따라 추진 가능</p> </div>   | <h4 style="text-align: center;">현재 기후 변화 정책</h4> <div style="border: 2px dashed green; padding: 10px; margin: 10px 0;"> <p><b>교류</b></p> <p>국제, 국경, 도시, 일본 등 주요국의 시민단체가 모여 추진<br/>-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현재 추진 중인 정책</p> </div>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의 경우 COVID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은 ZOOM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ZOOM의 특성상 토의 그룹을 동시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분배하여 모니터링 하되 도움이 필요한 그룹은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한눈에 학습자들의 활용 상황을 모니터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 스스로 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임승차나 봉효과를 방지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높여 주도적인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평가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토의 시간은 50분씩 두 차례 주어졌다. 미리 주제가 주어졌고 그룹별로 문제 분석 및 과제 분담을 진행하였으나 해결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내용을 조율하고 자료를 확충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였다.

교수자는 1차 토의를 한 후 토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하게 한다.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 한다. 학습자는 2차 토의에서 부족한 자료를 보강하고 발표할 내용을 구체화시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 3) 심포지엄 토의 진행

심포지엄도 ZOOM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엄 토의 시 사회자는 교수자가 그 역할을 하되 학습자들이 심포지엄 토의가 그룹별로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되어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시간은 한 그룹 당 15분 내외로 진행하며 발표할 때에는 발표의 흐름이 끝

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전달력이 좋으므로 발표자는 한 명으로 하되 10분이 넘는 시간을 혼자 발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습자들이 있어 그룹별로 발표 내용에 따라 두 명까지는 허용하도록 한다.

심포지엄 진행은 ‘문제 제시-토의자 발표-질의응답-정리’ 순으로 교수자가 사회자 역할을 맡는다. 교수자는 토의 주제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 주제로 토의가 필요한 이유를 들어 학습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발표 순서는 미리 공지하여 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발표 시에는 발표 자료를 제시하면서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할 때 발언 시간에 맞게 하고 청중은 자신들의 발표와 비교하면서 질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모든 그룹의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질의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나 한정된 시간 및 ZOOM 포맷의 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발표 순서에 따라 질의를 받고 조원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같은 문제와 현상이지만 전공별로 원인과 해결책이 다르므로 그에 대한 학습자들의 궁금증이 많았으며 이를 중재하고 갈무리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  |  |
|--|--|
| <p>발표와 토론</p> <h2>예산의 발전방안</h2> <p>김복, 이기훈, 이준하, 이송환, 오재호</p>  | <h3>목차</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 삼광미란?</li> <li>02 양분 주제를 선택한 이유</li> <li>03 예산의 특성</li> <li>04 1차 논법</li> <li>05 2, 3차의 이유·방법</li> </ol>   |
| <p>삼광미란?</p>  <p><b>삼광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의 농촌 진흥사업의 과업</li> <li>양곡질(비중) 94% 이상</li> <li>단백질 함량 10% 이하</li> <li>식량과 방목·경우</li> <li>보관성 우수</li> </ul> | <p>삼광미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대한민국의 주산</li> <li>다양한 영양소 풍부해 곡물</li> <li>올레오세를 제외, 영양가가 높으며, 통곡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단백질 함량</li> <li>식량과 방목·경우</li> <li>보관성 우수</li> </ul> |



이 발표 자료는 식량자원학과와 식품영양학과 학습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의 예로 예산 지역의 쌀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하나 낙후된 생산 방법과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의 부족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농업 중심의 예산 인구가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생산 방법에 신기술 도입 및 6차 산업화로 삼광미 쌀 사업을 확장, 농업 인구 및 관련 업종 종사자의 확대, 특성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특산품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인구 감소를 저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정리는 평가에서는 상호평가와 함께 자기평가, 총평으로 진행하였다.

[표 3] 심포지엄 평가 항목

|          | 평가항목  | 점수        |
|----------|---|-----------|
| 상호<br>평가 |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는가                                     | 5-4-3-2-1 |
|          | 문제의 원인과 결과, 해결방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도출되었는가                     | 5-4-3-2-1 |
|          | 의제에 관한 접근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는가                              | 5-4-3-2-1 |
|          |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고 인용하였는가                                | 5-4-3-2-1 |
|          | 실천 가능한 해결안을 제시하였는가                                      | 5-4-3-2-1 |
|          |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였는가                                     | 5-4-3-2-1 |
| 자기<br>평가 | 적극적인 듣기 태도를 유지하였는가                                      | 5-4-3-2-1 |
|          | 적극적인 토의 참여로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는가                                | 5-4-3-2-1 |
|          |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가                                   | 5-4-3-2-1 |
| 총평       | 그룹별 발표 내용에서 가장 잘된 부분,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의문 나는 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라. | 총점 : ( )  |

최종 문제해결안은 이 심포지엄 토의의 궁극적인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반영해야 하므로 심포지엄 토의 및 PBL 모형의 적용 방법과 학습내용의 평가할 수 있도록 상호평가와 자기평가의 각 평가항목을 마련하였다. 이 항목에는 토의 과정에 포함된 의사소통 기술도 평가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보다 면밀하게 전문가집단의 결과물과 심포지엄 토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작성할 수도 있겠으나 평가는 학습자들의 토의 과정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한 방안이기도 하기에 최소한의 항목으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에게 PBL을 활용한 심포지엄이 학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유롭게 작성하는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PBL을 활용한 전문가집단 양성 과정, 심포지엄의 과정에 대해 작성한 글 중 PBL을 활용한 전문가집단 양성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실제 그룹별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알 수 있었다. 64명의 학생 중 부정적 의견을 가진 학생은 5명 불과했으며 59명 학생들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토의 수업이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이었다. 부정적인 의견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 책임감 없는 조원들 때문에 토의 진행이 어렵다, 그룹원이 똑같이 평가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 의견 조율이 어렵다 등’이 있었다.

---

#### <산과대학 김\*\*> 학생의 성찰일지 중

토의 활동 및 그룹별 과제는 수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별 과제는 대학 내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간의 책임감, 의사소통, 리더십 같은 소양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룹별 과제는 단순히 과제를 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닌, 다양한 갈등 상황을 마주하면서 협업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물론 무임승차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조원 평가를 의무로 만들어 불성실한 조원에게 페널티를 주게 하여 무임승차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별 활동은 절차가 분명하여서 교사에게 다양한 수업전략을 제공해 준다. 또한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를 아닌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서로가 도와야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접하고 대인관계 경험을 많이 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길러 줍니다. 또한 창의력을 길러 주며, 일곱째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므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소속감이 있으므로 왕따 현상 등 소외되는 아등이 없다. 아홉째 소집단별 활동을 주로 하므로 개인의 숨은 재능이 발견되기 쉽고 동료들과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독립적,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갖게 됩니다.

### <공과대학 이\*\*>의 성찰일지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수직적인 학습 환경에서 강의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교수자 중심 강의에 익숙하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내용에 대한 흥미 감소, 수동적 학습 태도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므로 수업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학습을 진행하는 모둠 활동 수업 또는 조별 활동 수업이 있다. 이러한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단지 수업 내용에 대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조력자로서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 나가면서 학습 동기 유발, 자기 주도 능력 향상 등의 이점이 발생한다. 특히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조별 활동 및 조별 과제는 서로 다른 학과에 속해있는 학생들이 한 조를 구성하여 각기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에 대한 폭넓은 분야의 지식 습득, 판단, 비판적 사고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의 사회에서 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 조별 활동과 조별 과제에서 팀원들은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나가고, 해당 결과물을 주어진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타인과의 협력, 책임감 등의 덕목을 키울 수 있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PBL을 활용한 심포지엄 토의가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뿐 아니라 협업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역량, 주도적 탐구학습을 통한 자기개발역량 및 가치탐구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수업에서의 학습자들의 토의 과정 및 결과물을 통해 토의 수업을 통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학습자들이 학습 방법에 흥미를 갖고 문제해결을 통한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전공에 대한 지식은 차치하더라도 전공자이기에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며 전공 지식을 습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완성하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통해 탐구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료를 찾아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해 해결방안을 모색 등 탐구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셋째, 자료 수집 및 해결안 모색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분석력, 판단력을 함양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료를 분석, 인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비판적 사고력과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및 자료 내용이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능력, 이들은 종합하고 융합하는 사고와 능력을 기를 수 있다.<sup>17)</sup>

넷째, 그룹 토의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전략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을 구분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그룹에서의 과제 분담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장영선, 김혜진(2019)에서도 그룹 토의를 통해 발표력과 자신감이 상승하고 팀 활동에 대한 책무성으로 인해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보았다.<sup>18)</sup>

그러나 보다 토의를 통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 학습시간의 필요하다. 수업 만족도와 별개로 2시간짜리 교양 수업을 위해 학습자들이 참여야 하는 노력과 학습량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토의 수업 선호도는 전공(56.30%)에 비해 교양(10.40%)에서는 현저히 낮

17) 정숙희, 「상호동료튜터링 기반 학습동아리 활동의 학습자 경험에 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4권 2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6, 25~53쪽.

18) 장선영, 김혜진, 「대학 인문학 토의·토론 단계별 주요 요인 우선순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337-354쪽.

게 나타나는데,<sup>19)</sup> 전공과의 관련이 있더라도 실제 전공과는 거리가 있는 교양 수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시간보다 수업시간 활동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토의 의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의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과제 분담과 동료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한 그룹에서는 사회자와 기록자만 활동을 하고 다른 세 명의 조원들이 마이크조차 켜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ZOOM 상에서 진행하는 토의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별적으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셋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개선하고 디지털 장비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듯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접속하는 학습자들의 장비 문제와 온라인 플랫폼 문제가 있다.<sup>20)</sup>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 시 플랫폼이 가진 한계로 인해 그룹별 토의 모니터링이 불가하고, 발표 시 자료와 발표자를 함께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업 참여 시 카메라나 마이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터넷이 끊기는 경우 원활한 토의를 진행할 수 없다. 원활한 수업 환경을 확보해야 대면 수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19) 김현영, 장옥선, 이수정,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실제와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271-284쪽.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가이드』, KERIS, 2020.

## ■ 참고문헌

- 강경리, 「대학생의 학습몰입에 효과적인 대학 수업 탐색: 수업 변인과 수업 방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91-125쪽.
- 강연임, 「말하기 능력 함양을 위한 토의수업 활동과 효과」, 『인문학연구』 60권 1호,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5-32쪽.
- 김연희, 정재삼, 이종경, 이유진, 「대학생이 인식하는 핵심역량과 교육 요구도 분석」, 『교육방법연구』 22권 4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10, 1-20쪽.
- 김윤정, 장옥선, 김현영, 「토의 기반 수업에 대한 대학 내 인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579-605쪽.
- 김현영, 장옥선, 이수정,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실제와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271-284쪽.
- 남진숙, 「PBL 수업계획 및 문제개발 연구」, 『사고와표현』 12권 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9, 139-165쪽.
- 류수연, 「PBL을 위한 조별토론 학습모델 연구:만다라트와 RPP를 활용한 협동학습 모델 개발」, 『교육문화연구』 25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359-377쪽.
- 문성채, 「대학교양에서 토의식 수업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지도력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8권 1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6, 300-314쪽.
- 박성희, 「PBL의 대안으로써의 E-PBL」, 『창의력교육연구』 9권 1호, 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09, 119-136쪽.
- 박창근, 「토의수업 활성화를 위한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전략」,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993-1013쪽.

- 소경희, 「국가 교육과정 개혁 과제 탐색: '2007 교육과정'의 검토와 반성」, 『아시아교육연구』 8권 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7, 135-159쪽.
- 이사영, 「OECD DeSeCo 및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일 고찰 : 학교 교육에 주는 시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 이효영,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토의식 교양수업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4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309-322쪽.
- 임선애, 「자료 찾기와 토의를 활용한 소설교육론 수업 사례 연구」, 『문화와융합』 42권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393-414쪽.
- 장선영, 김혜진, 「대학 인문학 토의·토론 단계별 주요 요인 우선순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337-354쪽.
- 장선영, 김혜진, 「대학 영문학 토의토론학습에서 성찰 유형 집단별 학습 결과 분석과 학습효과 및 제안사항에 대한 질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5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601-628쪽.
- 정문성, 「토의·토론수업의 개념과 수업에의 적용모델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04, 147-168쪽.
- 정숙희, 「상호동료튜터링 기반 학습동아리 활동의 학습자 경험에 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4권 2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6, 25~53쪽.
- 조용림, 「의사소통 공간으로서의 클리닉 현황과 의의」, 『지식과 교양』 1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18, 42-60쪽.
- 차순정,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 대학 교양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3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19, 83-93쪽.
- 최정임, 장경원, 『PBL로 수업하기』, 학지사, 201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년도 온라인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

구』, KERIS, 2020.

한우섭, 「교양교육의 목적으로서의 ‘말하기’와 발표 역량 강화를 위한 신체 활용 수업의 의의에 대한 소고」, 『지식과 교양』 5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0, 100-118쪽.

황성근, 「PBL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교육 방안」, 『사고와표현』 10권 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7, 51-80쪽.

황순희, 「PBL 기반 <토의>수업 모형의 구현과 평가: 부산대학교 수업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4권 4호, 한국공학교육학회, 2011, 88-96쪽.

David H. Jonassen 저, 조규락, 박은실 역, 『문제해결학습 교수설계가이드』, 학지사, 2009.

김세원 APEC 기후센터 전문위원, “전 세계 이상기후, 기후위기인가?”, <시사오늘>, 2021.03.11.

정한국 기자, “‘인구감소 지역’ 89곳 첫 지정… 年 1조씩 10년간 지원”, <조선일보>, 2021.10.19.

네이버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PBL을 활용한 심포지엄 토의 수업의 사례를 통해 자기주도적 수업 역량과 협동학습 의사소통역량을 강화가 가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 대학생 64명을 대상으로 5주 동안 PBL을 활용한 전문가집단 양성 토의와 전문가 집단이 된 학습자들의 심포지엄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PBL 활용한 전문가집단 양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물과 평가서, 전문가집단이 된 그룹들의 문제해결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역량 및 의사소통 역량이 강화되었다. PBL을 활용하여 전문가집단을 양성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기주도적 수업 역량과 협업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심포지엄을 통해 같은 현상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해결방법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은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통해 탐구적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주제어 • PBL, 심포지엄, 전문가집단 양성, 자기주도적 수업 역량, 협동 학습, 의사소통 역량 강화

## ■ Abstract

### A Study on the Symposium for Improving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Cha, Sun Jeong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eal that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self-directed class backhaul and cooperative learning communication capabilities through examples of symposium discussion classes using PBL. As for the research method, 64 college students in Chungcheongnam-do were trained as expert groups through discussions using PBL for five weeks, and symposiums were conducted by learners who became expert groups. Results, evaluation reports, and problem-solving reports of groups that became expert groups were submitted in the process of training expert groups using PBL, and symposiums could be conducted based on this report. Through this, learners' self-directed and communication skills were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training expert groups using PBL, it was confirmed that learners can cultivate self-directed teach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collaboration, and through symposiums, interpretation and solutions vary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same phenomenon. Through this, learners were able to expand their thinking and develop an exploratory attitude.

**Keyword • Symposium, Expert Group Training, Self-directed Teaching Competency, Cooperative Learning, Communication Competency Strengthening**

■ 논문투고일:2023. 02. 14. ■ 심사완료일:2023. 03. 15. ■ 게재확정일:2023. 03. 23. ■

#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3·8민주의거의 지역학적 위상

이 내 관\*

이 영 조\*\*

## 목 차

1. 서론
2. 자유와 정의를 향한 시대정신의 발현
3. 지역학적 위상으로서의 3·8민주의거
4. 결론

###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3·8민주의거의 시대정신과 지역학적 위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정과 부패, 불법적 인권유린에 대항하여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민주와 자유, 정의를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다.<sup>1)</sup> 무엇보다 3·8민주의거는 4·19혁명의 모체가 된다는 점에서 대전지역 민주화 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

\* 강원대학교 교양요육원 강사, 주저자

\*\*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부교수, 교신저자

1) 김용재, 「전진하는 민족의 혼불, 3·8 & 4·19정신」, 『3·8민주의거』 28,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2017, 28-29쪽.

거와 현재의 연속성에 놓여있기 때문에 결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3·8민주의거 역시 단순하게 4·19혁명 이전에 대전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와 함께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한국전쟁을 거쳐 권력을 유지해 오던 자유당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1960년에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듯 당시 고등학생들의 움직임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등학생들이 주체가 된 저항은 사회·역사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sup>2)</sup>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을 통하여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공간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역사학자인 E.H.카 역시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sup>3)</sup> 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 우리의 역사도 그러하다.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3·8민주의거 역시 대전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역학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3·8민주의거에 관한 본격적인 학술논문은 대구의 2·28민주운동이나 마산(現.창원) 3·15의거와 관련된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sup>4)</sup> 이에 이 논문을 통하여 3·8민주의거를 민주시민 양성의

2) 이내관, 「구술 증언록의 문화·융합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 『문화와 융합』 43(9),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526쪽.

3) E.H. 카, 김승일 역, 『역사란 무엇인가』, 범우사, 1998.

4) 이영조·이내관, 「대전 3·8민주의거의 의미와 백일장을 통한 3·8정신의 계승」, 『인문학연구』 57권 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이내관·이영조, 「기억의 소환으로서 3·8민주의거」, 『문화와융합』 43권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이내관, 「구술증언록의 문화·융합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 『문화와융합』 43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도구로 삼고, 나아가 지역학적 위상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논의의 진행은 3·8민주의거의 발생 배경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행태를 중심으로 당시 대전 지역의 학생 시위를 상기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3·8민주의거의 사전 모의에서 해산까지의 과정을 당시 의거 참여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3월 8일에서 3월 10일에 일어난 시위를 중점적으로 재조명하여 그 가치를 탐색할 것이다. 끝으로 3·8민주의거가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해 봄으로써 향후 3·8민주의거가 대전의 시민정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역학적 위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 2. 자유와 정의를 향한 시대정신의 발현

### 1) 민주주의식의 도화선이 된 학생운동의 역사적 배경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으나 광복의 기쁨은 길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세력 확장을 위한 각축장이 되었고,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 없이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을 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민족 분단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고착화된 실정이다.

신생공화국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산적한 민족적 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민중의 내재적 에너지를 동원하기보다는 기존 세력의 이익에 바탕을 두는 정부 운용방법을 택하였다.<sup>5)</sup> 이승만정권은 성립과정에서 좌익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독립당과 같은 민족해방운동전선 우익세력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다만 국내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5) 심재택, 「4월 혁명의 전개과정」, 『4·19 革命論』, 일월서각, 1983, 13쪽.

조직된 한국민주당 세력과 친일세력 등을 기반으로 삼았을 뿐이다.<sup>6)</sup>

이승만정권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 한국의 정부 수립 과정은 독립적이지도, 온전하지도 못했다. 더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조차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한국 민주주의의 배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sup>7)</sup>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함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일반 국민들의 외침은 계속 이어진다.

본래 한국의 민주주의란 시민들에게 정치적 반대의 자유 - 이는 사상의 자유는 물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 를 포함한 고전적 시민권이 보장되어 있고, 보통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대부분의 정치적 결정을 작성하는 정부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8)</sup> 자유당 정권은 냉전체제라는 세계사적 기반에서 불안정한 모습으로 성립되었다. 그 결과 한국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세계 체제와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가진 모순, 민족해방운동의 치열한 전개에 따르는 제국주의와의 민족 모순, 계급 모순<sup>9)</sup>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고, 권력층은 무자비한 폭력 정치로 더욱 더 견고하게 자신의 성을 쌓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결국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대로 절대 권력을 장악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온갖 권력형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민중의 의사에 반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sup>10)</sup> 또한 이승만정부의 장기집권 체제를 연장하기 위하여 벌어진 선거는 금권과 관권을 총동원하면서 공개투표와 사전투

6)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주)창비, 2006, 292쪽.

7) 이영조, 「대전 3.8민주의거와 4월 혁명 - 3.8민주의거의 대 서사」, 『대전시사편찬』, 대전광역시, 2020.

8) 강정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 34권 2호, 한국정치학회, 2000, 70쪽.

9) 김진권 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한길사, 1990, 75쪽.

10) 심재택, 앞의 글, 18쪽.

표 등의 불법 만행이 자행되는 부정선거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유당이 전체 투표의 85%를 확보하기 위해 내무부장관 최인규(崔仁圭, 1919~61)는 사전투표에서 먼저 40%를 확보하고, 정식투표에서도 3인조, 9인조 투표를 조장의 감시 아래 감행하게 하여 다시 40%를 확보하도록 각 행정기관에 비밀 지령을 내린다.<sup>11)</sup>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겼고, 나아가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물질적 박탈감까지 가해지면서 민중의 원성은 높아만 갔다.

한편, 1960년 2월 28일은 전국이 선거유세로 어수선하였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한 자유당의 만행이 도를 넘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구에서 의거가 일어났고, 그 주체는 다름 아닌 고등학생이었다. 알려진 바대로 고등학생들의 의거는 2월 28일 대구를 그 시작점으로 본다. 2월 28일 대구에서는 민주당의 유세 일정이 잡혀 있었다. 자유당 정권은 하루 전인 27일에 모든 직장의 업무를 1시 이전에 끝나치고 자유당 유세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학생들도 그 시간에 수업을 끝내고 유세장에 가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유세가 예정된 28일이 되자 이번에는 직장 단위로 행사를 마련하고, 고등학생들은 일제히 등교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한 국가의 정부가 하는 행태라고는 믿기지 않는 졸렬하고 야만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고등학생들은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은 높아져 있었고, 더욱이 자유당의 무분별한 독재적 행태에 분노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2월 27일 경북고와 대구 시내 고등학생들은 시위를 결의하였고, 28일 12시 50분을 기해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나서게 된다.

...전락... 백만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11) 강만길, 앞의 책, 294쪽.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 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중략…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려나. 1960년 2월 28일<sup>12)</sup>

무엇보다 대구의 2·28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근간을 이룬다. 대구의 8개 공립 고등학교에 일요일 등교 지시가 시위의 발단이 된 대구의 2·28민주운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시위였다는 점과 전국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민주의식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침묵하는 기성세대를 질타하기라도 하듯 어린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이 확산될 수 있게 한 계기가 된다.

## 2) 학원의 자유를 위한 조직된 연합 시위

제4대 정·부통령선거(1960.3.15.)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고, 그에 따라 사회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자유당의 만행은 도를 지나쳤고, 이에 분개한 대전지역 학생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당시 학생들은 학기말 고사<sup>13)</sup>를 앞두고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학생 본연의 자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전 지역에서도 그동안 쌓여 온 불만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 중심에는 고등학생들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젊은 혈기를 지닌 학생들의 민주정신은 자유당의 부정과 부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하였다. 특히, 학원가까지 만연되어 있던 자유당의 횡포는 학생들

---

12) 2·28결의문, (사)2·28민주의거기념사업회, <http://www.228.or.kr/>.

13) 1960년 당시에는 지금의 학제와 달리 3월에 졸업식이 있었고, 4월 입학식이 있었다.

의 의분을 복돋우는 계기로 충분했다.

고등학생의 신분이지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성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생들의 동요는 수면 밑에서 출렁이고 있었지만 자유당 정권의 몰상식한 행태는 날이 갈수록 뻔뻔하고 몰염치하기만 했다. 그 중에서도 당시 기관지의 성격을 지닌 <서울신문>의 강제 구독은 자유당 정권에 대한 대전지역 학생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된다. 아래의 인용문은 당시 대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우영의 진술이다.

《서울신문》이라는 게 완전히 어용 신문이에요. 구독료는 우리가 자치 회비에서 내고, 학생이 중앙신문을 구독해야 되는 일이 우리도 모르게 진행된 거지요. 1학년 때부터 그 신문을 계속 봤거든. 그러니까 자치회의 때마다 그게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신문을 왜 우리 자치 회비를 가지고 보냐.<sup>14)</sup>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학비를 충당하는 일도 버거운 시절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유당 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이를 계기로 극에 달하게 된다. 그런 학생들에게 학급비를 걷어서 신문을 강제 구독하게 한다는 사실이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서울신문> 강제 구독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은 의거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였다.

기관지라고 인식되었던 <서울신문>을 강제로 구독해 읽으면서 당시 학생들은 자유당 정권의 횡포를 몸소 체감하게 된다. 여기에 자유당 정권이 정치적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보다 진지한 고민들이 쏟아져 나온다.

---

14)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3·8민주의거는 끝나지 않았다』, 기획출판 오름, 2019, 133쪽. 이하 인용은 이 책을 따르며, 인용문에서는 구술자와 쪽수만 언급한다. 한편, 그 이 증언록은 3·8민주의거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을 채록한 것으로 3·8민주의거를 연구하는 데 있어 보다 실증적 자료가 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이 되면, 그 양반이 3월 2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칭송하는 작문을 써라, 작문 시간에 작문을 써라 해서 어거지(억지)로 작문을 써내기도 하고 …중략…이 대통령이 왔는지, 처음에 한 분이 와서 강연해서 학생들을 다 거기 동원했어요. …중략… 그런 무리한 일을 하니깐 ‘아, 이게 학원에 대한 간섭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정구종, 273쪽)

정구종의 증언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칭송 작문’, ‘학생들의 강연장 동원’ 등은 모두 학원에 대한 간섭이고 통제였던 것이다.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학원의 간섭은 대전지역 학생들의 연합시위를 모의하게 하기에 충분하였고, 때마침 대구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여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3·8민주의거가 대구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자극 받아 뒤늦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의 학생 운동과 비슷한 시기에 이미 대전의 학생들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연합 시위가 논의되고 있었던 것은 『증언록』의 여러 증언자에게서 나온 공통된 말이다.

3월 7일 저녁, 보문고에 재학 중이던 강무송 학생의 집에 대전 시내 고등학교의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은밀하게 모여들었다. 이를 계기로 3월 8일 12시를 기해 간부 학생들은 다시 YMCA에 모여 조직적인 행동을 계획했던 것이다.<sup>15)</sup> 이처럼 3·8민주의거 참여자들의 구술 증언에서 한 가지 일관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점은 바로 3·8민주의거는 즉흥적으로 일어나 시위가 아니라 민주정신에 입각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된 시위라는 것이다.

---

15) 이내관·이영조, 앞의 논문, 873쪽.

3월 7일 월요일, 나는 그동안 수차례 주변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두었던 터라 전교생 동원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규율부장 최정일(부친은 자유당도당 부위원장과 중앙극장 지배인으로 계시다 1년 전 돌아가셨다.)을 만나 도서관을 배회하며 2:28 경북고생들의 시위를 거론하기에 이르자 “지긋지긋한 자유당놈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상기된 얼굴로 변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일에게 그동안 여러 친구들과의 상의 결과도 동의를 받았다. 대대장과 규율부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앞장서기만 하면 시위는 성공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의기투합은 금상첨화였다.<sup>16)</sup>

이는 3·8민주의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유의미한 기록이 된다. 학생들은 이미 정세의 흐름과 분위기를 눈치 채고 있었다.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된다면 그곳에 운집해 있던 시민들이 호응해 줄 것이라 믿었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대전고 건아는 최근 자유당의 불법 및 부정부패와 장기 집권을 위한 도당국 및 학교에서의 처사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깨닫고, 학원의 자유 보장과 대전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시정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학원의 정치도구를 단호히 배격한다.

하나, 서울신문의 강제 구독을 배격한다.

하나,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 동태 감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신성한 학원에서의 선거운동을 배척하며, 여하한 사회적 세력의 침투도 용납할 수 없다.

하나, 우리의 거사는 오로지 정의감과 순수한 자발적 의사에서 나오는 것임을 밝힌다.

(홍석곤, 170쪽)

이제 학생들은 단순히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차원이 아니었다. 지체

---

16) 박제구, 「3·8민주의거의 배경과 전개 과정」, 『三·八 民主義舉』, (사)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2005, 26쪽.

없이 민주당 유세장을 1차 목적지로 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3·8민주의거는 단순한 학생시위를 넘어 시민과 연대하여 거족적인 반독재투쟁으로 승화하려는 학생들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sup>17)</sup>

### 3) 자유당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에 따른 학생들의 분노

4월혁명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현실인식을 단순한 선거부정에 대한 반대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또한 학생시위의 성격이 학원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계에서 민주주의 수호라는 차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sup>18)</sup> 이는 특정 지역 고등학생들의 인식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의 인식 역시 그러하였다.

1960년 3월 8일 오후 내내 대전 시내를 뜨겁게 달구었던 학생들의 외침이 잦아들었다. 구호 소리와 학생들의 함성은 멎었지만 이들이 외친 자유, 민주, 정의의 기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대흥동에서 일어난 의로운 기운은 그대로 신안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3·8민주의거는 3월 8일 하루에 국한시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3월 8일을 전·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볼 때, 3·8민주의거의 전개과정을 옳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월 8일에 대전고와 연합으로 시위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많은 학교의 학생 대표들은 쉽게 학교를 떠날 수가 없었다. 이들 역시 부정과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는 정치권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참여 의식이 높아졌고, 또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었으니, 그런 만큼 마음속에

17) 정근식·권형택, 『지역에서의 4월혁명』, 도서출판 선인, 2010, 161쪽.

18) 김선미, 「4월혁명 시기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현실인식과 실천」, 『한국민족문화』 5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113쪽.

올분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었다. 우선 시위 날을 3월 10일로 잡은 이유는 공설운동장에서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유세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유세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리라는 계산이었다. 마음이 급해진 학생 대표들은 결의문과 구호를 준비하고, 시위 루트도 세밀하게 짰다. 심지어 대전상고 2학년 운동부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에게 스크럼 짜는 법까지 가르쳐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제 다음날이 되면 대전 시내가 다시 한 번 민주주의 물결로 출렁일 거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비밀리에 준비한 계획이 경찰에게 새어나가고 말았다. 어떤 경로로 비밀이 누설되었는지는 여러 증언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미 대전고 시위로 인해 경찰은 고등학생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고, 특히 대전 상업고(現.우송고)의 경우 성향이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 유독 학생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약속했던 3월 10일, 새벽부터 경찰은 느닷없이 간부 학생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대전상고 학도호국단 간부인 채재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잤지만 연행을 피할 수 있었던 두 명 중 김봉환은 이른 아침 등교를 서둘렀다. 교실은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움이 감돌았다. 아침 조회 시간이 끝난 후 벌어질 시위로 잔뜩 긴장해 있는 학생들에게 새벽에 채재선이 경찰에게 잡혀간 사건을 전달하였다. 10일 새벽에 경찰에 연행된 학생 수는 대전상고에서만 15명이었다.<sup>19)</sup> 이 숫자를 보면 학도호국단, 학생회 간부들이 거의 다 연행

19) 이 숫자는 신문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전상고 당시 참여자들의 증언(2022. 06. 10. 필자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이원보, 전희남, 황충민을 인터뷰 하였다.)에 따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또 한 번 분개했다. 당시 고등학생들은 정부 수립 후 현대식 초등교육을 받았고, 세계혁명사, 민주교육을 받은 세대였다. 대전상고 학생들 역시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것인지, 자유와 민주, 정의가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정치범도 아닌 고등학생들을 부모의 허락도 없이 새벽에 연행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학생들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송재호, 이원보, 전희남 등 연행되지 않은 간부들이 비밀리에 모였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마음은 이미 거리로 향했다. 마음을 다잡은 학생들은 지난밤에 준비한 구호를 다시 새겼다. 구호는 짧고 강렬했다.

부정·부패 척결!

학원 사찰 중지하라!

여기에 오늘 새벽에 연행된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보태어졌다. 초회가 끝나기 무섭게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주머니에는 돌멩이가 가득했다. 때마침 학교 운동장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학생들은 닥치는 대로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혹시 모를 무력 진압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스크럼을 짠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 원동사거리를 1차 목표로 하여 신안동 굴다리를 향하는 순간, 그곳에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백차를 앞세우고 손에는 곤봉을 든 채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의 돌멩이를 꺼내들기도 전에 학생들은 속수무책 경찰의 곤봉 세례에 대열이 흩어져 버렸다. 삼삼오오 흩어져 체신청(우체국)을 향해 내달리던 학생들은 무자비한 경찰의 폭력에 또 한번 온 몸을 구타당하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

르면 진학반에서 7명, 취업반에서 8명 총 15명이 연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8일 대전고 학생들의 시위로 당황스러웠던 경찰은 다시 전력을 보강하여 철저하게 대응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더 가혹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용기를 내고 목적교를 지나 시내까지 시위행진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응원이었다. 길가에서 박수를 쳐 주는 시민에서부터 빵과 물을 쥐어주는 시민,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집 안에 숨겨 주는 시민까지 있었다. 이제 학생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옳은 일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경찰의 곤봉도 개머리판도 두렵지 않았다. 몸은 허기지고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오직 자유와 정의를 외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편 새벽에 연행되었던 학생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시 학도호국단 대대장이었던 채재선의 구술 증언을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보문고도 모두 다 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붙어. 그래 임마, 일치가 안 되면 너는 죽여 버린다.” …중략… 무서웠죠. 그 구타하는 건 아파가지고 우리를 때릴 때 그 침대, 그 저거 그 면으로 된 침대 있잖아요. 군용 침대. 그걸로 때리니까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워서 아주 고통스러웠죠. …중략… 각서 썼거든요. 이런 일을 맞았다는 이런 거를 만약에 나가서 발설할 때는 잡아들여가지고 너는 죽여버린다고 아주 꼭 저거했어요. 그때는 그 말을 일체 못했어요. …중략… 부모한테도 못했어요. 그때는 시대가 그랬어요. …중략… 그때 당시 와 있던 선생님이 꼭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야, 재선아! 나 간다.” 그리고선 “너 올라가지 말아라. 내 체면 좀 봐줘라.” 그리고 가시고 그랬다고요. 형사들은 통행금지가 없으니까 11시까지 딱 있다가 가. 그땐 꿈쩍을 못했어요. …중략… 4·19 나기 전날까지 있었어요. 4·19나기 전날. 4·19, 4·18까지 있었지. 꿈쩍을 못하고, 집에서 감시, 감금당했죠. (채재선, 436-437쪽)

지하실에 갇혀 무자비한 폭력을 당해야 했던 학생들의 고초가 얼마나 심했을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증언이다. 3월 10일 이후에도 한 달이 넘게 이어진 경찰의 감시는 학생들의 발목을 묶어 더 이상의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3월 10일에 일어난 대전상고의 시위가 이처럼 뜨거웠음에도 언론에서는 이를 축소하거나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 이러한 사실은 8일에 있었던 대전고의 시위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당시 언론이 자유당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그쳤을 뿐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대전상고의 경우 당시 학교가 처한 상황, 학생들의 입장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겠다.

### 3. 지역학적 위상으로서의 3·8민주의거

#### 1) 계획적이고 자발적인 거사의 정체성

주지하다시피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종교·철학, 언어, 지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학이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학문적 범위와 경계가 불명확하다. 장소성, 고유성, 정체성, 관계성, 다양성이 지역학의 주요 속성이다. 이런 특성으로 지역학은 다른 분야의 학문과 내용 면에서 중첩되기도 한다.<sup>20)</sup>

이런 면에서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을 전·후하여 며칠간 이어진 대전지역 고등학생이 주체가 된 자발적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고유성을 인정할 만하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대전이라는 장소성과 현장성, 고등학생들이 주체가 되었다는 고유성, 나아가 당시 시민들의 호응과 격려라

20) 김용남, 「대학 교양과목을 통한 지역학에 대한 수강생들의 인식」, 『교양교육연구』 14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129쪽.

는 관계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주체로 건양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을지대, 충남대, 침례신학대, 한남대, 한밭대 등이 참여하여 연합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만의 특별한 연합교양대학은 학점교류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인문학, 대전학 수업을 듣고 참여 학생에게는 대학 학점을,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교양특강을 제공”<sup>21)</sup> 한다. 무엇보다 각 주차별 다양한 주제에 따른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대전 지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이 이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은 연합교양대학의 운용을 통하여 대전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태명의 『대전학총론』(2018)에는 ‘대전학은 어떻게 하는가’, ‘대전의 지명 유래와 전설’, ‘대전의 상징물과 노래’, ‘대전의 자연환경 특성과 발전’, ‘대전의 역사 둘러보기’, ‘대전이 배출한 인물들의 삶과 교훈’, ‘대전 언어의 매력과 깊은 맛’, ‘대전의 음식과 대전 사람 성격’, ‘대전의 문화유산과 대전의 명소’, ‘대전의 경제 사회적 특성과 역동성’, ‘대전의 산업’, ‘대전의 원도심과 그 가치’,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과 대전의 미래’에 이르는 내용이 총 망라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sup>22)</sup>

현수진은 대전학도 다른 ‘지역학’과 같이 대전의 지역 정체성과 지역발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

21) 대전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dile.or.kr>.

<대전의 재발견(대전학)> 2022\_2학기 연합교양대학 강의계획서의 주차별 강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주(오리엔테이션), 2주(대전의 매력을 더하는 도시만들기), 3주(대전 여성의 삶과 문화), 4주(서로 다른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아요), 5주(대전의 산과 하천), 6주(지방자치와 충청의 권력이동), 7주(대전 문화의 현재와 미래), 8주(메타버스에 대전을 건설하다), 9주(대전의 자연을 즐기는 방법), 10주(근대도시 대전을 형성한 사건들), 11주(농촌의 현실과 3농혁신, 마을만들기), 12주(대전의 공동체와 사회자본), 13주(지역 문화 속의 공동체), 14-15주(현장체험활동 보고서로 대체)

22) 김태명, 『대전학총론』, 대전학연구회, 2018.

였다.<sup>23)</sup> 그런 점에서 3·8민주의거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주체가 된 민주화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 한국 사회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자유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패악은 학원가에까지 뻗어 왔고, 이에 분개한 학생들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 거리로 나섰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1960년 3월 8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대전에서 일어난 학생민주의거로 우리는 이를 3·8민주의거라 칭한다는 사실은 이미 논의한 바 있다.

1960년 3월 8일을 전후한 고등학생들 시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름 아닌 ‘철저히 계획된 자발적 거사’라는 점이다. 3월 8일 대전고 시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대전 시내 고등학교 대표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시위에 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대전상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3월 5일 경부터 시위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3월 5일 옆자리의 친구가 은밀하게 나에게 귀뜸을 해주었다. 대전고등학교 박제구를 만났는데 3월 8일 장면 후보의 공설운동장 유세 때 ‘학원의 정치도구화 반대’, ‘서울신문 강제 구독 반대’ 등을 구호로 하여 각 학교가 일제히 시위에 참여하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3월 5일부터 은밀하게 상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학도호국단 간부 및 지도급 학우들의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던 관계로 대전상업고등학교는 3월 8일의 시위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다.<sup>24)</sup>

이처럼 대전상고의 시위 계획은 매우 치밀했고 계획적이었다. 먼저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유세가 있는 3월 10일에 맞추어 시위 날짜를

23) 현수진, 「충청도 ‘지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충청학과 충청문화』 2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0, 196쪽.

24) 이원옥, 「대전상고의 민주의거」, 『三·八 民主義擧』,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2005, 33쪽.

정하였다. 아무래도 집권당인 자유당 유세가 있는 날이니만큼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일단 도청에 가서 자신들의 결의를 외친 후, 최종 목적지인 공설운동장을 향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자신들의 행위가 오로지 민주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한 정의로운 길이라는 확신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4·19혁명에서 3·8민주의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4·19혁명이 혁명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작을 보통 2월 28일 대구 학생 시위로 보지만, 일주일 뒤, 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 바로 3월 8일 대전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10일에도 대전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sup>25)</sup>

시위 루트는 1조와 2조로 나누어 1조는 원동시장에서 중교를 지나 도청으로 행진을 하고, 2조는 대전역에서 목척교를 지나 역시 도청에서 합류하는 과정이었다. 이 루트대로 시위가 진행 될 경우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게 되므로 대전 시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지역학’이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도록 체계화해서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민다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sup>26)</sup> 이러한 자부심은 대전광역시 보도자료(2022.07.22.)의 내용인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 및 의미를 재조명하고 3·8민주의거 정신을 대전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민주역사 교육 전문가 과정 개설 운영 등 민주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

25) 대전MBC, <시시각각>, “3·8민주의거 62주년, 의의와 과제는?”(방송일시: 2022.02.27.).

26) 이창식,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16, 8쪽.

다.”<sup>27)</sup>고 밝힌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 2) 자유·민주·정의를 위한 학생 주도의 고유성

구술아카이브의 당위성 위에 지역학적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만큼 구술자료의 공공성 인식과 개체성의 세부적 검토가 확장되고 있다. 심지어 개인사(Life History) 구술아카이브의 자료 활용이 기대되고, 최근 장 소스토틸렐링 성과물<sup>28)</sup>이 집적되고 있다. 전통지식과 경험지 관리의 차원인 디지털아카이브 구축도 지역학의 지평을 원활히 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해 볼 때, 이 논문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구술 증언록은 그동안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에서 간행된 것으로 1960년 당시 사건을 보다 현실감 있게 재현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의 구술증언록은 당시 의거에 직접 참여하였던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을 인터뷰 형태의 음성으로 녹음이 된 것이고, 이를 다시 활자화한 것이라는 점이다.

아카이브 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구술 증언록은 그 안에 다양한 정보가 응축되어 있다. 그래서 구술 증언은 개인에 대한 기록이자 하나의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다.<sup>30)</sup> 증언록 『3·8민주의거는 끝나지 않았다』의 구술아카이브 디지털 CD에는 증언자들이 당시 경험하였던 공포와 분노, 나아가 정의를 위한 결의까지 현실감 있고 생생한 음성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3월 8일,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대전상고의 3월 10일 시위는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동안 은밀하게 준비해 온 시위 계획이 경찰에게 유출되는 바람에 10일 새벽에

27)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www.daejeon.go.kr](http://www.daejeon.go.kr), 2022.07.22.

28) 유동환 외, 「지역 구술아카이브 기반 스토리텔링체험시스템 연구」, 『통일인문학』 62, 인문학연구원, 2015.

29) 이창식, 앞의 논문, 13-14쪽.

30) 이내관, 앞의 논문, 535쪽.

운영위원장 및 대대장, 규율부장 등 학도호국단 간부 15명<sup>31)</sup>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우리는 그 간부들은 전부 다 집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밤에 고생을 하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허락 하에 전부 집에 가서 쉬게끔 하라고 전부 다 집으로 보냈죠.(채재선, 435쪽)

다행히 연행된 학생들은 오전 9시 경 교장선생님의 노력으로 훈방 조치가 되어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밤샘 취조로 심신이 몹시 지쳐 있던 학생들은 교장선생님의 지시로 귀가를 하게 된 것이다. 실질적인 시위 주도자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학교 측에서 간부 학생들을 귀가 시킨 이면에는 오늘로 예정된 시위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이대로 대전상고의 시위 계획은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신안동에는 우렁찬 젊은이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연행된 간부 학생들을 제외한 전교 학생들이 마치 훈련받은 교육생처럼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시위를 못하게 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경찰의 지시를 받은 학교 측에서 당연히 학생들의 시위를 제지할 것이 뻔하고, 그동안 경찰은 시위대를 차단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출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2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우루루 나가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가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공부하던 그 책상 위에 있는 펼쳐놓은 책, 필기구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 뛰어나왔어요. 누가 뭐라 뭐라 뒷소리도 없고… 뭐 그런 소리도 없고.(송찬영, 456쪽)

31) 이원욱, 앞의 글, 33쪽에 의하면 당시 연행된 간부들은 이안제(운영위원장), 채재선(대대장), 이효석(대대부관), 홍무득(규율부장), 정한웅(규율부차장), 이학수, 장태익 등임을 알 수 있다.

마침내 필자(이원옥)는 학교에 남아 있는 몇 학우들<sup>32)</sup>과 협력하여 시위 행진을 거행하게 되었다. 3월 10일 아침 조례 직전에 기습적으로 전교 생을 운동장에 집합시켰고, 모두 교내의 운동장에서 작은 돌맹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운동부 학생들을 앞세워 ‘스크럼’을 짠 후 2학년 1반이 선봉이 되어 자양동→신안동 굴다리→목척교→도청을 목표로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처음 준비한 구호에 ‘구속학생 석방하라’는 구호가 추가되었다.<sup>33)</sup>

대전상고 600여 명의 선·후배는 앞과 뒤에서 끌고 밀며 학교를 나섰다. 신안동 하늘을 뒤덮은 뿌연 흙먼지 속에서 새빨간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유와 민주, 정의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권리, 책무가 아니다. 너, 나 없이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원칙이 서면 그 원칙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바로 1960년 3월 10일에 있었던 대전상고 학생들의 시위였다.

대전상고의 이와 같은 시위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를 위한 학생들의 순수한 결단이다. 이러한 결단력의 기저에는 역사적으로 대전이 지닌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전지역은 기층민의 주도로 많은 봉기와 시위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반기를 들고 발생한 사건은 지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대전 지역 고유의 정신으로 계승·발전될 수 있다.<sup>34)</sup> 즉, 3·8정신을 관통하는 결단력은 대전지역의 선비정신의 상징인 울곧음과 연결됨으로써 대전의 새로운 지역학적 위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

32) 이원옥, 위의 글, 33쪽, 변병학, 전희남, 서승국, 이동욱, 이진명 등이 거론되었다.

33) 이원옥, 위의 글, 33쪽,

34) 이내관, 앞의 논문, 538쪽.

### 3) 지역민의 호응에 따른 장소성

지역학을 현대 사회에 맞게 대중화와 실용화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에 수많은 문화자원을 가지고 외지 관광객 유치에 아닌 지역의 젊은 인재양성이라는 시스템을 갖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의 학계나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sup>35)</sup>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3.8민주의거는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매해 기념행사가 거행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3.8민주의거는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대전 시민에게 귀감을 주기에 충분한 위상을 지닌다는 점이다.

나아가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하는 『대전문화』 시리즈와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에서 계간지로 발행하는 『3.8민주의거』나 이 밖에도 『대전의 4·19혁명 3·8사진집』(2021), 『한발의 1960년, 3.8민주의거』(2021) 등의 단행본 출판과 보급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역민과 함께하고 있고, 지지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대전 시민의 호응과 지지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니다. 1960년 3월, ‘공부만 하는 학교’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은 대전고가 대전 시내를 민주 역사의 현장으로 들끓게 하자, 대전 시민은 이에 많은 지지와 호응을 하기에 이른다. 그럴수록 경찰은 학생들에 대한 감시의 끈을 더욱 더 강하게 조여 왔다. 10일 새벽에 대전고와 대공고, 대전상고 학생 간부들을 연행해 밤새 조사를 하고 돌려보내긴 했으나, 언제 어느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경찰이 대전 시내 고등학교 중 세 학교의 간부를 연행해 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대전고의 경우는 이미 시위가 벌어진 상태였으니, 그 후속 처리가 필요했을 테이고, 대전공고와 대전상업고는 학

35) 김용남. 앞의 논문, 136쪽.

생들의 기질이 강하고, 시위가 벌어질 경우 그들을 저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다 보니 연행 간부들에 대한 폭력과 엄포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너 혹시 이복에 있는 누구 삼촌이나 누구한테, 또는 친척한테 지령을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고통을 받은 거예요. 뭐, 무지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막 샌드백 채로도 맞고.(채재선, 430쪽)

3월 10일 대전상고 시위에는 초기부터 정·사복경찰은 물론 정체를 알 수 없는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었다. 학교를 뛰어나온 학생들의 무리가 신안동 굴다리에 접어들었다. 당연히 경찰이 이미 포진되어 있었고, 돌진하는 학생들을 향한 경찰의 폭력이 있었으나 성난 사자로 변한 학생들은 경찰의 1차 저지선을 뚫고 굴다리를 통과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신안동 굴다리를 지나 원동사거리로 접어들자 대규모 병력이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시위를 지켜보던 대전 시민들은 호응을 하기 시작하였고, 소리 없이 지지를 보낸다.

3월 10일날 우린 시작을 했어요. …중략… 원동 사거리에서 작대기 부대를 만났어요. 경찰관들 작대기 부대, 정복 입은 사람, 사복 입은 사람이 작대기 하나씩 들고 사정도 없이 후려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전역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거기서 분산이 됐어요. …중략… 그래서 쫓겨서 그 장사하는 옷감 장사 하는 그 건물 속으로 튀어 들어갔어요. 몇 명이 됐는지는 몰라.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일루와 숨어.”라고 막 그랬어요. “여기 와 숨으라구.” 그래서 막 튀어서 중교다리를 건너서 이제 거기에 모여 가톨릭 성당으로 해서 대전경찰서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한번 만났어. 작대기 부대가 또 있더라고.(송찬영, 456-457쪽)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데모를 한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많은 사람이, 학생들이 구속돼 가지고 은행동 파출소, 대흥동파출소, 여기 중부, 대전경찰서지 옛날에 거기 막 한 거야. 다 붙들리고 해가지고, 터지고, 다 끝났지. ...중략... 신발도 없어지고, 다 터지고, 깨지고 한 거지. 그랬는데 그러구서 경찰서 붙들려 가서 무릎 꿇고, 다 했지.(이원옥, 383쪽)

그래서 막 데모할 때, 의거할 때... 그냥 시민들이 박수치고, 물 갖다 주고, 빵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채재선, 435쪽)

예기치 않았던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곤경에 처했던 경찰은 혹시나 있을 후속 시위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특히 운동을 좋아하고 다서 거칠기로 소문난 대전상고의 시위 계획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터라 대규모 병력으로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도자들인 간부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예정보다 급박하게 이른 시간에, 목적지를 변경하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전교생 600명이 하나 같이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점은 무자비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시내까지 전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증언자들은 하나 같이 그날의 의거에 대전 시민의 호응과 지지가 있었다고 언급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민적 호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3.8민주의거는 4.19혁명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3.8민주의거의 시대정신과 지역학적 위상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3.8민주의거는 1960년 자유당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전 지역 고등학생이 주체가 된 민주화운동이라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3·8민주의거는 고등학생들이 주체가 된 대구의 2·28민주운동과 마산(現.창원)의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모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으나 미국과 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라는 매우 혼란한 정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시기에 탄생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불안정한 모습으로 정권을 유지한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장기집권 체제를 연장하기 위하여 온갖 야만적 행위를 자행한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한 국민적 절망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당시 고등학생들까지도 자유와 정의를 향한 민주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3·8민주의거는 민주주의식의 도화선이 된 학생운동이라는 시대정신을 갖는다. 무엇보다 당시 자유당 정권의 만행에 대하여 침묵하던 기성세대까지 많은 귀감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3·8민주의거는 당시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주도가 된 것이 아니라, 대전 지역의 여러 고등학교가 조직적으로 연합된 시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합 시위는 3월 8일 의거가 일어나기 전부터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결국 학생들의 분노는 3월 8일과 10일에 걸쳐 폭발하게 된다.

지역학이 특정 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3·8민주의거는 대전 지역에서 하나의 지역학적 위상을 갖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3·8민주의거는 계획적이고 자발적인 거사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유당의 패악을 참지 못한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은 당시 기성세대의 관여 없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의거를 계획하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을 담보한다.

둘째, 3·8민주의거는 자유·민주·정의를 위한 학생 주도의 고유성을 담고 있다. 특히, 대전고와 대전상고를 중심으로 대전공고, 대전사범학교, 대전여고, 보문고 등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의거를 계획하고 참여한 점은 그 고유성을 인정 할만하다. 이러한 고유성은 3·8민주의거가 지역학적 위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셋째, 지역민의 호응에 따른 장소성 측면이다. 3·8민주의거가 고등학생들이 주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전 지역민들은 이들을 어린 고등학생으로 대하기보다는 민주시민으로 호응을 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에서는 3·8민주의거의 지역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민과 소통을 하면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3·8민주의거는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또한 3·8민주의거는 대전 지역의 지역학적 위상을 갖는 매우 의미 있는 학술적 가치를 내포한다. 이에 대전 지역에서는 3·8민주의거의 지역학적 위상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주)창비, 2006.
- 강정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 34권 2호, 한국정치학회, 2000.
- 김선미, 「4월혁명 시기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현실인식과 실천」, 『한국민족문화』 5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 김용남, 「대학 교양과목을 통한 지역학에 대한 수강생들의 인식」, 『교양교육연구』 14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 김용재, 「전진하는 민족의 혼불, 3·8 & 4·19정신」, 『3·8민주의거』 28,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2017.
- 김진균 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한길사, 1990.
- 김태명, 『대전학총론』, 대전학연구회, 2018.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www.daejeon.go.kr](http://www.daejeon.go.kr), 2022.07.22.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dile.or.kr>.
- 대전MBC, <시시각각>, “3·8민주의거 62주년, 의의와 과제는?” (방송일시: 2022.02.27.).
- 박제구, 「3·8민주의거의 배경과 전개 과정」, 『三·八 民主義擧』,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2005.
- (사)2·28민주의거기념사업회, <http://www.228.or.kr>.
-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3·8민주의거는 끝나지 않았다』, 기획출판오름, 2019.
- 심재택, 「4월 혁명의 전개과정」, 『4·19 革命論』, 일월서각, 1983.
- 유동환 외, 「지역 구술아카이브 기반 스토리텔링체험시스템 연구」, 『통일인문학』 62, 인문학연구원, 2015.

- 이내관, 「구술 증언록의 문화·융합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 『문화와 융합』 43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 이내관·이영조, 「기억의 소환으로서 3·8민주의거」, 『문화와융합』 43권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 이영조, 「대전 3.8민주의거와 4월 혁명 - 3.8민주의거의 대 서사」, 『대전 시사편찬』, 대전광역시, 2020.
- 이영조·이내관, 「대전 3·8민주의거의 의미와 백일장을 통한 3·8정신의 계승」, 『인문학연구』 57권 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 이원옥, 「대전상고의 민주의거」, 『三·八 民主義擧』,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2005.
- 이창식,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16.
- 정근식·권형택, 『지역에서의 4월혁명』, 도서출판 선인, 2010.
- 현수진, 「충청도 ‘지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충청학과 충청문화』 2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0.
- E.H. 카, 김승일 역, 『역사란 무엇인가』, 범우사, 1998.

##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3·8민주의거의 시대정신과 지역학적 위상을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3·8민주의거는 4·19혁명의 모체가 된다는 점에서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3·8민주의거의 지역학적 위상을 갖게 하는 전제로 자유당 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촉발된 자발적 학생운동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3·8민주의거의 특이점은 대전 지역의 특정 고등학생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가 참여한 연합 시위라는 점이다.

한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3·8민주의거가 갖는 지역학적 위상이다. 3·8민주의거는 당시 고등학생들의 즉흥적 움직임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자발적인 거사라는 정체성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정의를 위한 학생 주도의 고유성과 대전 지역민의 호응에 따른 정체성 모두를 함축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러한 지역학적 위상을 바탕으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하나의 교육적 사료로 3·8민주의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3·8민주의거, 민주시민, 시민 교육, 지역학, 지역학적 위상

## ■ Abstract

### The Regional Status of the 3·8 Democratic Movement for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Lee, Nae Kwan · Lee, Young Jo

In this study, the spirit of the times and the regional status of the 3·8 Democratic Movement were examined. As is well known, the 3·8 Democratic Movement occupies a very important position not only in the Daejeon region but also in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in Korea in that it became the mother of the 4·19 Revolution. Above all, this study discusses that it was a voluntary student movement triggered by students' anger against the Liberal Party regime, and this acted as a premise to create a regional status of the 3·8 Democratic Movement. The peculiarity of the 3·8 Democratic Movement is that it was not just a specific high school in the Daejeon area, but a coalition of several schools.

In addition, the regional status of the 3·8 Democratic Movement is related to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The 3·8 Democratic Movement was not an impromptu movement by high school students at the time, but contained the identity of a planned and voluntary uprising. It is also an incident that implies both the uniqueness of student-led initiatives for freedom, democracy, and justice, and the identity of Daejeon local residents. Based on this regional status, the 3·8 Democratic Movement can be used as an educational source for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Keyword • 3·8 Democratic Movement, Democratic Citizenship, Civic Education, Regional Studies**

■ 논문투고일:2023. 02. 14. ■ 심사완료일:2023. 03. 15. ■ 게재확정일:2023. 03. 22. ■



# 화재통계 분석을 통한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

-대전광역시 화재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채 진\*\*

##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화재통계 분석
4.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
5. 결론

### 1. 서론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안전수준을 진단하여 그 지역에서 재난에 취약한 요소들과 보완해야 할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난의 대응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수준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인 안전지표가 필요하다.<sup>1)</sup>

정부는 2014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 본 논문은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조교수

1) 봉태호·전소영·권재우,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연구원, 2020, 3쪽.

수준을 진단하여, 2015년에 교통사고, 화재,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자살, 감염병 분야에 대한 지역의 안전수준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안전수준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재난안전 분야를 확인하여 예산 및 재난관리계획 수립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재난업무 담당자의 경험적 판단에 따른 계획수립에서 벗어나 객관적 정보에 의한 과학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졌고, 각 지역별로 지역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sup>2)</sup>

정부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재난안전 관련 통계정보를 통합하여 2014년 지역안전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수집된 통계 중 핵심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하였다. 사망자 수 및 사고발생 건수 등의 위해지표와 위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는 취약지표, 위험 경감요인으로 작용하는 경감지표로 구성된 지역안전지수는 각 지역별로 해당 분야의 재난안전에 대한 안전수준 정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점수별로 등급화하였다.

안전지수에 대한 선행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었지만 화재안전지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화재분석을 통한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회 의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대전광역시의 화재안전지수는 2017년 1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화재안전지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2) 김도형,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건설대학교, 2017, 2쪽.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화재발생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이론적 배경

### 1) 지역안전지수의 의미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등급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사업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를 상대적 등급으로 공표함으로써 지역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 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감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개선하고, 안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역안전지수는 사망·사고 발생 통계 등 위해지표, 위해를 가중시키는 취약지표 및 감소시키는 경감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위해지표는 분야별 사망자 수, 발생건수 등 결과지표이며, 취약지표는 위해발생의 인적·물적 요

인이 되는 지표들이다. 경감지표는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지표들로, 지역안전지수는 위험지수의 역수의 개념으로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산출된다.

$$\text{지역안전지수} = 100 - (\text{위해지표} + \text{취약지표} - \text{경감지표})$$

가장 안전한 수준인 100을 기준 값으로 '위해지표 값'과 '취약지표 값'을 각각 빼고, 경감지표 값을 더해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위해지표 값과 취약지표 값은 낮을수록, 경감지표 값은 높을수록 지수 산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 2) 화재안전지수의 지표

화재안전지수의 지표는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로 구성된다. 위해지표와 취약지표는 지표값이 낮을수록, 경감지표는 지표값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화재안전지수의 지표

| 분야  | 위해지표(50%)  | 취약지표(10%)  | 경감지표(20%)          | 의식지표(20%)  |
|-----|--|--|--------------------|--|
| 산출식 | 환산사망자<br>(0.500)<br>- 사망자(49.6)<br>- 화재건수<br>(0.4) | ① 노후건축물<br>수(8.47)<br>② 창고 및 운<br>송관련 서비<br>스업 업체수<br>(1.53) | 소방정책<br>예산비율(20.0) | ① 화재관련 안<br>전 신문고<br>신고건수<br>(3.46)<br>② 소소심 교육<br>인원(16.54) |

첫째, 위해지표는 인구 만명당 환산 화재 사망자 수를 말한다. 즉, 화재 사망자 수와 화재 발생건수를 사망자로 환산한 수의 합계이다.

$$\text{환산 화재사망자 수} = \text{화재사망자 수} + (\text{화재발생건 수} / 139.92) \times 10,000$$

\* 139.92 : 과거 통계 분석 결과 화재 사망자 1명 발생 시 평균적으로 139.92건의 화재가 발생함

둘째, 취약지수표는 재난 약자 수,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 수를 말한다. 재난 약자 수는 인구 만명당 고령인구(65세이상)와 유치원생, 초등학생 수의 합계이다. 고령인구는 운전자 및 보행자로서, 교통사고 발생 시 신체적 기능 저하, 상황판단 능력, 순간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은 성인보다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며, 미완성된 성장단계의 신체조건으로 인해 사고 시 사망 위험성이 높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 수는 인구 만명당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주차장, 공항, 화물취급 등으로 등록된 사업체 수를 말한다. 대부분의 물류창고는 인적이 드문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화재발생 시 발견 및 초기 진압이 어려우며, 인명, 재산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셋째, 경감지표는 소방정책 예산비율을 말한다.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은 지방 소방예산 편성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소방 사업비(일반회계+특별회계) 비율을 말한다. 119 구조·구급장비 보강,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시설보급과 같은 예산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이 용이해져 대형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의식지표는 화재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와 소소심 교육인원이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화재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는 화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건수를 말한다. 소소심교육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의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이 세가지를 익히면 재난, 위기상황 시 피해와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친숙히 여겨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 3)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지수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화재안전지수를 살펴보면 2017년 1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지수

| 연도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등급  | 1    | 4    | 4    | 4    | 3    |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지역별 화재안전지수를 살펴보면 동구가 평균 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덕구(평균 4.0), 중구(평균 3.8), 유성구(평균 3.2), 서구(평균 3.0) 순을 나타냈다([표 3] 참조).

[표 3] 최근 5년간 지역별 화재안전지수

| 연도별<br>지역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평균  |
|-----------|------|------|------|------|------|-----|
| 동구        | 4    | 4    | 5    | 4    | 4    | 4.2 |
| 중구        | 3    | 5    | 3    | 5    | 3    | 3.8 |
| 서구        | 3    | 3    | 3    | 2    | 4    | 3   |
| 유성구       | 3    | 3    | 4    | 4    | 2    | 3.2 |
| 대덕구       | 2    | 5    | 4    | 5    | 4    | 4   |

### 4) 선행연구 검토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sup>3)</sup> 지역안전지수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충북도민의 재난안전 인식

3) 송창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6권 2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20, 211~222쪽.

도 분석,<sup>4)</sup>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sup>5)</sup>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시군구 특징 분석, 국토계획,<sup>6)</sup>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향상방안<sup>7)</sup> 등이다. 대부분 선행연구는 실태분석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화재와 관련하여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연구는 종로구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역안전 개선방안,<sup>8)</sup>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화재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역안전 개선방안,<sup>9)</sup> 충청남도 서천군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채진, 2022)<sup>10)</sup> 등이다.

신두현·여차민(2021)<sup>11)</sup>은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화재 재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화재분야 재난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에 필요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간 등급을 비교·분석하였다. 재난관련 현황의 정성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

- 
- 4) 오후·조진희·김보은·최수민·배민기, 「충북도민의 재난안전 인식도 분석 : 지역안전지수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29권 1호, 충북연구원, 2018, 45~69쪽.
  - 5) 김도형,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건설대학교, 2017, 2쪽.
  - 6) 신진동·원진영·김미선·김현주·이범준·이종설,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시군구 특징 분석」, 『국토계획』 51권 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 215~231쪽.
  - 7) 김용문·강성경·이영재,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향상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심으로」,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10권 2호, 한국방재안전학회, 2017, 7~19쪽.
  - 8) 신두현·여차민,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역안전 개선방안 연구: 종로구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5권 4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21, 59~88쪽.
  - 9) 조성, 「화재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등급개선 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권 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22, 119~140쪽.
  - 10) 채진,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서천군을 중심으로」, 『법률실무연구』 10권 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329~349쪽.
  - 11) 신두현·여차민,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역안전 개선방안 연구: 종로구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5권 4호, 한국정책과학학회, 59~88쪽.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지역안전등급을 진단하고, 지역안전지수를 구성하는 위해, 취약, 경감지표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재난 발생현황 및 관련요인 등에 대한 관련 정성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화재 재난발생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분야 지역안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화재발생 원인 중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부주의와 전기요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예방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주택과 음식점 화재발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특히 음식점에 대한 적극적인 화재예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후건물이 많은 종로구의 특성상 노후건물 및 무허가 건물 대상 소방시설과 전기시설 점검 및 이에 대한 보수와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화재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더 신속한 화재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성(2022)은 지역안전지수 중 화재분야 등급의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지역안전지수에 활용되는 지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 계절별, 장소별, 연령별 화재발생 원인을 파악하였으며, 지역안전지수가 저조한 요인으로서 지표값을 비교·분석하였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취약지역인 충청남도 남부 7개 시·군의 화재발생 감소를 위한 조치와 소방서 종사자 수 및 화재현장 인명구조 실적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인력배치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역안전지수 지표값 산정 방식 자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재발생 건수당 화재현장 인명구조 실적 가중치 평가방식의 개선 필요성과 위해지표의 위해성 편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망자 중심의 지표를 재산피해와 부상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채진(2022)<sup>12)</sup>은 충청남도 서천군의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화재통계를 분석하여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화재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분석, 발화 요인별 화재발생 현황분석, 발화 열원별 화재발생 현황 분석, 인명피해 현황분석, 화재안전지수 안전지표 분석, 화재안전지수 여건 분석을 수행하였다.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으로 첫째, 화재발생에 대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적극적인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소방 공무원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원, 산불감시요원, 이장, 반장, 통장 등 찾아가는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3. 화재통계 분석

대전광역시는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가 2017년 1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2017년~2021년)간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 4,692건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 데이터는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대전광역시 화재통계 내부자료 등 공식자료를 활용하였다.<sup>13)</sup>

#### (1)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통계분석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화재발생 통계분석을 통해 화재안전지수를 진단하고,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

12) 채진,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서천군을 중심으로」, 『법률실무연구』 10권 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329~349쪽.

13)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2021년 대전 화재발생 현황 분석,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내부자료, 2022.

다. 화재발생 현황분석은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화재발생 현황,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발화 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발화 열원별 화재발생 현황, 인명피해(사망) 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인명피해(사망)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분석 등이다.

최근 5년간(2017~2021) 대전광역시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발생 총건수는 4,692건이며, 2017년 1,059건, 2018년 1,094건, 2019년 878건, 2020년 865건, 2021년 79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인명피해는 사망 44명, 부상 278명이다. 재산피해 312억 1천4백만 원이다. 최근 5년간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표 4] 참조).

[표 4]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 연도별<br>구분 | 화재건수  | 인명피해 |    |     | 재산피해<br>(백만원) |
|-----------|-------|------|----|-----|---------------|
|           |       | 계    | 사망 | 부상  |               |
| 총계        | 4,692 | 322  | 44 | 278 | 31,214        |
| 2017      | 1,059 | 55   | 9  | 46  | 4,932         |
| 2018      | 1,094 | 85   | 12 | 73  | 6,026         |
| 2019      | 878   | 71   | 9  | 62  | 4,042         |
| 2020      | 865   | 65   | 8  | 57  | 7,589         |
| 2021      | 796   | 46   | 6  | 40  | 8,625         |

### (2) 장소별 화재발생 통계분석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장소별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비주거가 1,6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 1,513건, 기타 839건, 차량 562건, 임야 166건, 위험물, 가스 등 2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대전광역시의 화재발생 장소는 비주거가 1,610건으로 전체의 34.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가 1,513건으로 전체화재의 32.24%를 차지하고 있다. 인명피해 추세는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비주거 화재와 주거 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필요하다([표 5] 참조).

[표 5] 장소별 화재발생 통계

| 구분   | 계     | 주거    | 비주거   | 차량  | 위험물, 가스등 | 철도, 선박, 항공기 등 | 임야  | 기타  |
|------|-------|-------|-------|-----|----------|---------------|-----|-----|
| 총계   | 4,692 | 1,513 | 1,610 | 562 | 2        | 0             | 166 | 839 |
| 2017 | 1,059 | 310   | 358   | 111 | 0        | 0             | 55  | 225 |
| 2018 | 1,094 | 333   | 345   | 134 | 0        | 0             | 64  | 218 |
| 2019 | 878   | 290   | 330   | 102 | 0        | 0             | 22  | 134 |
| 2020 | 865   | 296   | 305   | 101 | 2        | 0             | 13  | 148 |
| 2021 | 796   | 284   | 272   | 114 | 0        | 0             | 12  | 114 |

### (3)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통계분석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부주의 1,631건, 전기적 요인 1,312건, 기타 실화 819건, 기계적 요인 241건, 미상 197건, 방화 의심 119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부주의가 1,631건으로 전체화재의 34.76%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배꽂초가 975건으로 부주의 중 59.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 조리가 456건으로 부주의 중 27.9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활동 등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면서 가정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표 6] 참조).

[표 6]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통계

| 구분   | 계     | 전기<br>요인 | 기계<br>요인 | 가스<br>누출 | 화학<br>요인 | 교통<br>사고 | 부주<br>의 | 기타<br>실화 | 자연<br>요인 | 방화 | 방화<br>의심 | 미상  |
|------|-------|----------|----------|----------|----------|----------|---------|----------|----------|----|----------|-----|
| 총계   | 4,692 | 1,312    | 241      | 32       | 62       | 43       | 1,631   | 819      | 22       | 51 | 119      | 197 |
| 2017 | 1,059 | 262      | 59       | 5        | 11       | 8        | 597     | 5        | 2        | 15 | 34       | 61  |
| 2018 | 1,094 | 317      | 52       | 5        | 10       | 13       | 577     | 8        | 3        | 17 | 40       | 52  |
| 2019 | 878   | 274      | 42       | 6        | 19       | 7        | 429     | 2        | 1        | 18 | 20       | 60  |
| 2020 | 865   | 233      | 50       | 4        | 11       | 7        | 16      | 424      | 5        | 1  | 13       | 15  |
| 2021 | 796   | 226      | 38       | 12       | 11       | 8        | 12      | 380      | 11       | 0  | 12       | 9   |

**(4) 발화 열원별 화재발생 통계분석**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발화 열원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작동기기 2,164건, 담배, 라이터 1,410건, 미상 380건, 불꽃, 불티 36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작동기기가 2,164건으로 전체화재의 46.12%를 차지하고 있다. 담배, 라이터 1,410건으로 30.05%를 차지하고 있다. 작동기기로 인한 화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적 아크(단락)이 1,266건으로 작동기기의 58.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담뱃불, 라이터불로 인한 화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뱃불이 974건으로 69.08%를 차지하고 있다([표 7] 참조).

[표 7] 발화 열원별 화재발생 현황

| 구분   | 계     | 담배,<br>라이터 | 마찰,전<br>도,복사 | 불꽃,<br>불티 | 자연적<br>발화원 | 작동<br>기기 | 폭발물,<br>폭죽 | 화학적<br>발화열 | 미상  | 기타 |
|------|-------|------------|--------------|-----------|------------|----------|------------|------------|-----|----|
| 총계   | 4,692 | 1,410      | 271          | 366       | 9          | 2,164    | 5          | 52         | 380 | 35 |
| 2017 | 1,059 | 349        | 69           | 110       | 2          | 443      | 0          | 12         | 70  | 4  |
| 2018 | 1,094 | 383        | 48           | 79        | 3          | 490      | 2          | 8          | 65  | 16 |
| 2019 | 878   | 240        | 44           | 63        | 2          | 439      | 1          | 18         | 68  | 3  |
| 2020 | 865   | 252        | 47           | 58        | 1          | 405      | 1          | 7          | 92  | 2  |
| 2021 | 796   | 186        | 63           | 56        | 1          | 387      | 1          | 7          | 85  | 10 |

**(5) 시간대별 화재발생 통계분석**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시간대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3~15시 6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17시 570건, 17~19시 539건, 11~13시 508건 순으로 나타났다. 11시~21시 사이에 화재가 집중(57.5%)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자가 내부에 있는 오후 및 초저녁 시간대로, 관계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8 참조).

[표 8] 시간대별 화재발생 현황

| 구분   | 시간<br>계 | 23~<br>1 | 1~<br>3 | 3~<br>5 | 5~<br>7 | 7~<br>9 | 9~<br>11 | 11~<br>13 | 13~<br>15 | 15~<br>17 | 17~<br>19 | 19~<br>21 | 21~<br>23 |
|------|---------|----------|---------|---------|---------|---------|----------|-----------|-----------|-----------|-----------|-----------|-----------|
| 총계   | 4,692   | 303      | 246     | 199     | 242     | 215     | 393      | 508       | 608       | 570       | 539       | 473       | 396       |
| 2017 | 1,059   | 67       | 53      | 40      | 45      | 40      | 78       | 123       | 150       | 148       | 116       | 102       | 97        |
| 2018 | 1,094   | 61       | 64      | 57      | 52      | 44      | 90       | 106       | 138       | 151       | 120       | 113       | 98        |
| 2019 | 878     | 66       | 48      | 43      | 39      | 37      | 89       | 104       | 105       | 96        | 98        | 89        | 64        |
| 2020 | 865     | 68       | 37      | 38      | 55      | 45      | 72       | 94        | 117       | 86        | 101       | 85        | 67        |
| 2021 | 796     | 41       | 44      | 21      | 51      | 49      | 64       | 81        | 98        | 89        | 104       | 84        | 70        |

**(6) 장소별 인명피해 통계분석**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장소별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89명(사망 15명, 부상 7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구체적인 인명피해 현황은 다가구주택이 46명(사망 6명, 부상 40명), 단독주택이 32명(사망 7명, 부상 25명), 상가주택이 5명(사망 1명, 부상 4명), 다중주택이 3명(부상 3명), 기타 단독주택이 3명(사망 1명, 부상 2명)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이 55명(사망 13명, 부상 42명)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인명피해 현황은 아파트가 35명(사망 9명, 부상 26명), 다세대주택이 12명(사

망 2명, 부상 10명), 연립주택이 6명(사망 2명, 부상 4명)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인명피해는 34명(부상 34명)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인명 피해 현황은 한식이 17명(부상 17명), 중식이 5명(부상 5명), 일반주점이 5명(부상 5명), 분식(휴게)이 3명(부상 3명)으로 나타났다.

공장시설의 인명피해는 26명(사망 7명, 부상 19명)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인명피해 현황은 그밖의 공업이 16명(사망 3명, 부상 13명), 금속기계 및 기구공업이 5명(사망 1명 부상 4명), 화학공업이 3명(사망 3명)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장소별 인명피해 현황

| 구분    | 화재건수 | 인명피해 |    |    | 재산피해(천원)  |
|-------|------|------|----|----|-----------|
|       |      | 계    | 사망 | 부상 |           |
| 단독주택  | 833  | 89   | 15 | 74 | 2,982,522 |
| 야외    | 819  | 21   | 2  | 19 | 290,143   |
| 공동주택  | 663  | 55   | 13 | 42 | 1,953,978 |
| 자동차   | 549  | 19   | 1  | 18 | 3,041,322 |
| 음식점   | 438  | 34   |    | 34 | 1,594,261 |
| 일반서비스 | 255  | 12   | 1  | 11 | 1,816,574 |
| 공장시설  | 133  | 26   | 7  | 19 | 6,089,418 |
| 기타건축물 | 110  | 6    |    | 6  | 287,534   |
| 들불    | 103  | 1    |    | 1  | 34,680    |
| 판매시설  | 96   | 4    |    | 4  | 1,224,450 |
| 창고시설  | 82   | 2    |    | 2  | 1,479,126 |
| 일반업무  | 66   | 6    |    | 6  | 445,517   |
| 산불    | 63   | 2    |    | 2  | 37,368    |
| 자동차시설 | 45   | 1    |    | 1  | 712,681   |

|        |    |    |   |    |           |
|--------|----|----|---|----|-----------|
| 작업장    | 45 | 1  |   | 1  | 494,126   |
| 숙박시설   | 40 | 7  | 3 | 4  | 175,728   |
| 의료시설   | 35 | 2  | 1 | 1  | 120,096   |
| 종교시설   | 33 | 1  |   | 1  | 315,251   |
| 연구, 학원 | 32 | 11 | 1 | 10 | 1,097,053 |
| 운동시설   | 18 | 11 |   | 11 | 1,821,215 |
| 기타주택   | 17 | 1  |   | 1  | 278,972   |
| 위락시설   | 15 | 4  |   | 4  | 157,263   |
| 공공기관   | 11 | 4  |   | 4  | 65,725    |
| 건강시설   | 4  | 1  |   | 1  | 14,045    |
| 발전시설   | 1  | 1  |   | 1  | 3,621,626 |

### (7) 발화요인별 인명피해 통계분석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117명(36.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원인 미상이 66명(20.50%), 전기적 요인이 43명(13.35%) 가스누출이 29명(9.00%), 방화가 26명(8.07%)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는 6명이고, 부상자는 112명이다. 구체적으로 담배꽂초로 인한 사망자는 4명이고, 부상자는 21명이다. 음식물 조리 중 부상자는 30명이고, 기타(부주의)로 인한 부상자는 19명이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미확인 단락과 압착, 손상에 의한 단락이 각각 3건,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이 1건이다([표 10] 참조).

[표 10] 발화요인별 인명피해 현황

| 구분 | 계   | 전기<br>요인 | 기계<br>요인 | 가스<br>누출 | 화학<br>요인 | 교통<br>사고 | 부주의 | 기타<br>실화 | 방화 | 방화<br>의심 | 미상 |
|----|-----|----------|----------|----------|----------|----------|-----|----------|----|----------|----|
| 총계 | 322 | 43       | 7        | 29       | 23       | 1        | 117 | 2        | 26 | 8        | 66 |

|      |    |    |   |    |    |   |    |   |   |   |    |
|------|----|----|---|----|----|---|----|---|---|---|----|
| 2017 | 55 | 4  | 0 | 10 | 0  | 1 | 20 | 1 | 7 | 0 | 12 |
| 2018 | 85 | 10 | 0 | 3  | 10 | 0 | 28 | 0 | 7 | 6 | 21 |
| 2019 | 71 | 13 | 3 | 5  | 10 | 0 | 26 | 0 | 4 | 0 | 10 |
| 2020 | 65 | 12 | 2 | 9  | 2  | 0 | 22 | 0 | 4 | 0 | 14 |
| 2021 | 46 | 4  | 2 | 2  | 1  | 0 | 21 | 1 | 4 | 2 | 9  |

#### 4.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화재발생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화재안전지수 향상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전광역시 화재발생 통계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은 주택화재 예방대책, 공장시설 폭발사고 예방대책, 담배꽂초 화재 예방대책, 전기화재 예방대책,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책, 화재예방 홍보대책 등이 요구된다.

##### (1) 주택화재 인명피해 경감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장소별 사망자는 단독주택에서 15명이 사망하고, 공동주택에서 13명이 사망하였다. 전체 사망자(44명) 중 63.63%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기타 단독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기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대부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의 형성이 오래된 구도심의 경우 주거환경은 노후되고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심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는 화재발생 이후 5분 이내에 대피하지 못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소방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래된 주택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개정하였으나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주택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각 시·도는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화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은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 (2) 공장시설 폭발사고 예방

2018년 5월 29일 16시 17분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화학적 폭발에 의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9년 2월 14일 08시 42분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같은 공장에서 화학적 폭발에 의한 사고로 3명이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13일 16시 15분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소재 연구소에서 켈 상태의 연료 유량조절 측정 실험 중 실린더 내의 실험물질(연료)이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공장과 연구소는 무기를 생산하는 군산업체와 연구소는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방산업체라 하더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은 작업자 즉, 개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고의 피해를 당한 작업자들은 구체적인 위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작업 현장의 위험정보나 준수해야 되는 안전수칙이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의 주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 내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환경, 작업공정, 유지·보수 등 모든 상황에 대한 안전수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첫째, 부주의는 개인의 과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작업 오류를 발생시킨 모든 공정을 부주의 범주에 포함시켜 예방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원인이 무엇에 기인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 분석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산업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 대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사고사례 분

석결과나 이와 관련된 실험결과 등 안전관련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 주관 부처에 정보공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up>14)</sup>

### (3)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 예방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631건으로 전체 화재의 34.76%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가장 큰 원인으로 담배꽂초가 975건으로 부주의 중 59.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화재의 20.78%를 차지하고 있다. 담배 화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담배꽂초, 톱밥 부스러기는 무염연소에서 발염연소에 이르나 기타 부스러기류는 무염연소만 한다. 톱밥의 경우 0.5m/sec 전후 미풍에서는 발화가 잘 일어나지만 무풍(無風)조건에서는 발염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고무 부스러기의 경우 부스러기 표면에 담뱃불을 접촉했을 때 10분 정도 경과 후 독립 무염연소를 하고 연소범위가 확대되며, 연기의 발생량이 많아진다. 이때 어떤 가연물이 접촉되어 있다면 연소 확대될 수 있다. 담뱃불을 고무 부스러기 속에 넣었을 때는 무염연소나 발염도 없이 꺼진다. 가죽의 경우에는 표면에 놓았을 경우와 부스러기 속에 넣었을 경우 모두 10~12분 경과 후 발연과 무염연소가 확대된다. 이때 가연물이 접촉되어 있으면 발염착화 될 수 있다.<sup>15)</sup>

담배꽂초는 바람이 있는 조건에서의 연소실험에서는 톱밥과 같은 가연물은 2.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조건에는 약 8분과 12분이 경과하였을 때 훈소과정에서 유염착화로 발전하였고, 세단된 신문과 같은 가연물에서는 풍속 1.5m/s에서는 10분 이내에 유염 착화했다. 또한, 풍속 2.0m/s에서는

14) 최민석·신평식, 산업현장 폭발사고 주요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4권 2호, 한국방재학회, 2014, 209~216쪽.

15) 오재경, 「담뱃불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담배회사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1~12쪽.

6분이 경과하자 유염연소로 발전하였으며, 풍속 2.5m/s에서는 담뱃불이 가연물에 넣어진 후 4분이 경과하면서 유염 착화된다.<sup>16)</sup>

담뱃불로 인한 산발발생 위험성은 낙엽착화 실험에서 전체 실험결과 약 8.6% 정도가 발화되어 담뱃불에 의한 발화율이 높지는 않지만 가연물의 종류, 수분함유량, 풍속, 담배의 유형에 따라 조건이 형성되면 혼소과정을 거쳐 발화된다. 그 외에도 가솔린 증기, 도시가스, 카페트, 화학섬유 및 혼합섬유는 담뱃불에 의해 착화되지 않거나 접촉부위만 약간 탄화되는 반면, 방석, 이불, 의류 등 면제품과 종이류, 톱밥, 고무, 스폰지, 가죽 등 부스러기류는 무염 연소과정을 거쳐 발염 착화된다.<sup>17)</sup>

담뱃불 화재 예방대책으로 휘발유, 가스, 화학약품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금연을 하고, 이러한 장소에 "금연구역" 표시판을 붙인다. 잠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보행 중에는 흡연을 하지 않고 꽂초는 아무 곳에 버리지 않는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담배꽂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고, 담배를 피우다가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담뱃불을 끄고 나가야 한다.

#### (4) 전기화재 예방대책 추진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이 1,312건으로 전체 화재의 27.96%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이 585건(44.59%), 트래킹에 의한 단락이 137건(10.44%), 미확인 단락이 117건(8.92%), 과부하/과전류가 111건(8.46%), 압착, 손상에 의한 단락이 43건(3.28%)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단락에 의한 전기적 요인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

16) 박성천, 「담뱃불 화재의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경원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6~62쪽.

17) 오재경, 「담뱃불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담배회사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0~11쪽.

사되었다.

단락은 전원이 인가된 선간에 절연이 파괴되면서 도체가 직접 접촉되거나, 공기의 절연 파괴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저항이 0에 가까워지면서 도체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가 흐르고 접촉부에 아크에 의한 용융흔이 생긴다. 이렇게 전류의 흐름이 최종 부하측을 거치지 않고 전로 중단이 이어짐으로 해서 결국 단락(Short Circuit)현상이 생긴다. 단락의 주된 요인인 절연파괴 현상은 도체의 이격 거리와 절연유 등에 의한 절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선에서 절연피복이 손상되는 경우이다. 단락 발생 요인은 전선에 외력이 가해져 절연 피복의 손상, 접촉 불량 등 부분 발열에 의한 단락, 화재 등 외부 열에 의한 단락 등이 있다.

트래킹(Tracking)은 전력케이블의 말단 부분, 배전선의 스페이서(Spacer), 차단기나 전자접촉기, 유압변압기의 접속부분의 충전 전극간 사이의 절연물 표면 뿐만 아니라 수용가 내에서 사용하는 콘센트, 플러그 스위치 등의 접점간 절연물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원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트래킹의 원인인 이물질이나 오염물은 수분, 습기, 먼지, 오존 등 기타 도전성 이물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특히, 공장에서 발생하는 도전성 분진이나 이물질,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축적되는 먼지 및 외부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분 등이 있다.<sup>18)</sup>

단락에 대한 전기화재 예방대책으로 전선코드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손상되면 단락되거나 심선의 일부가 부러져 과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배선에는 못이나 테이프 사용을 금하고, 비닐코드는 열에 약하므로 백열등이나 전열기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기구의 전선 인출 부분에 보강과 규격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이상준, 「화재조사를 위한 전기기기 내부배선의 전기적인 용융흔과 화재원인 판단에 대한 실험적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29~30쪽

과전류에 대한 전기화재 예방대책으로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가 가해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전류에 대비한 적정용량의 퓨즈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며, 그밖에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배선방법은 과전류의 원인이 되므로 금지한다.

누전으로 인한 전기화재 예방대책으로 물기, 습기가 있는 장소의 전기 시설은 방습조치를 하고, 전선의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효력이 있도록 소정의 접속기구를 사용하거나 테이프를 단단히 감아 전기배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금속관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공사하고 금속관 끝부분에는 반드시 부싱을 사용한다.

접촉불량으로 인한 전기화재 예방대책으로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소정의 접속기구를 사용한다. 전기설비는 나사 조임부 근처를 손으로 만져보아 열이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고, 육안으로 접속부의 변색 여부와 절연물의 탄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5) 체험식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수행

2022년 9월 26일 07시 39분경 발생한 00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다가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중 부주의가 1,631건으로 전체 화재의 34.76%를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 화재는 인간의 실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며,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담배꽂초, 음식물 조리중, 불장난, 용접·절단·연마, 불씨불꽃 화원방치, 쓰레기 소각, 빨래삶기, 가연물 근접 방치, 폭죽놀이 등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대책이 요구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

국민 홍보활동 등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소방기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와 초기소화가 중요하다.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sup>19)</sup>은 5분이다. 화재발생 이후 5분 이내에 대피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방교육훈련은 소방안전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기능적 교육을 바탕으로 소방안전을 행동으로 옮겨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는 학습과정이다. 소방교육훈련은 이론적 교육과 행동으로 수행하는 훈련이 함께 포함되어야 소중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안전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기본법」과 소방관계법령은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많은 규정이 있다. 이 많은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도 없고, 교육 콘텐츠도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표준화된 교안을 만들고, 인원부족으로 인한 화재예방 교육은 의용소방대원을 안전강사로 양성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sup>20)</sup>

#### (6) 효과적인 화재예방 홍보활동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중 부주의가 1,631건으로 전체 화재의 3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적 요인이 1,312건으로 전체 화재의 27.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가 975건으로 부주의 중 59.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 조리가 456건으로

19) 골든타임은 위기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한다.

20) 채진,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서천군을 중심으로」, 『법률실무연구』 10권 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329~349쪽.

부주의 중 27.96%를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 전기적 요인, 담배꽂초, 음식물 조리는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볼 수 있다.

화재예방 홍보활동은 왜 화재를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성의 검증을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 효과적인 홍보활동은 화재예방 덕분에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2월 4일 연합뉴스의 기사를 살펴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성공사례를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소방기관에서 화재발생을 재구성하여 홍보용 자료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화재예방 교육에도 활용해야 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화재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화재발생 통계분석 하였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화재발생 현황,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발화 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발화 열원별 화재발생 현황, 인명피해 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인명피해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분석 등을 통계분석을 하였다.

현재 화재여건 및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재안전지수는 2017년 1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부주의가 1,631건으로 전체 화재의 3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적 요인 1,312건으로 전체 화재의 27.96%를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 중 담배꽂초가 975건으로 부주의 중 59.78%를

차지하고 있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89명(사망 15명, 부상 7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공동주택이 55명(사망 13명, 부상 42명)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인명피해는 34명(부상 34명)으로 나타났으며, 공장시설의 인명피해는 26명(사망 7명, 부상 19명)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화재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전광역시의 화재발생 장소와 사망자 발생 장소는 주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화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주택에 설치되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고, 그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단지가 있으며, 방위산업체, 방위산업 관련 연구소 등이 소재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폭발사고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기관에서는 연구단지,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폭발사고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가장 큰 원인으로 담배꽂초 화재가 975건으로 부주의 중 59.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화재의 20.78%를 차지하고 있다. 담배꽂초 화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담배꽂초 화재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00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대피하다가 엘리

베이터가 작동을 멈춰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34.7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 소방안전교육 훈련이 요구된다. 조속히 시민소방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은 언론사 기고, 플래카드 게시, 전광판 활용 등 다양한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왜 화재예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성의 검증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원, 산불감시요원 등 찾아가는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지역안전지수와 화재안전지수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5년간 화재통계분석을 활용하여 화재안전지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실태분석에서 오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도형,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쪽.
- 김용문·강성경·이영재,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향상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심으로」,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10권 2호, 한국방재안전학회, 2017, 7~19쪽.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2021년 대전 화재발생 현황 분석,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내부자료, 2022.
- 박성천, 「담뱃불 화재의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경원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6~62쪽.
- 봉태호·전소영·권재우,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연구원, 2020, 3쪽.
- 송창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6권 2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20, 211~222쪽.
- 오후·조진희·김보은·최수민·배민기, 「충북도민의 재난안전 인식도 분석 : 지역안전지수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29권 1호, 충북연구원, 2018, 45~69쪽.
- 신진동·원진영·김미선·김현주·이범준·이종설,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시군구 특징 분석」, 『국토계획』 51권 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 215~231쪽.
- 신현두·여차민,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역안전 개선방안 연구: 종로구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 2021, 25권 4호, 59~88쪽.
- 오재경, 「담뱃불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담배회사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1~12쪽.
- 이상준, 「화재조사를 위한 전기기기 내부배선의 전기적인 용융흔과 화

재원인 판단에 대한 실험적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29~30쪽

조성, 「화재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등급개선 방안 : 충청남  
도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권 1호, 한국민간경  
비학회, 2022, 119~140쪽.

채진,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서천군을 중심  
으로」, 『법률실무연구』 10권 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329~349쪽.

최민석·신평식, 「산업현장 폭발사고 주요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4권 2호, 한국방재학회, 2014,  
209~216쪽.

## ■ 국문초록

최근 대전광역시의 화재안전지수는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화재발생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여야 하고,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주택용 소방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공장시설에 대한 폭발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체험형식의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효과적인 화재예방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주제어 • 화재안전지수, 화재통계분석, 주택화재

##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Fire Safety Index through the Analysis of Fire Statistics - Focusing on the Fire Statistics Analysi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

Chae, Jin

Recently, the fire safety index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continues to remain low, so 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fire safety index is need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fire safety index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analysis of fire occurrence statistic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over the past five years. Firstly, as a way to improve the fire safety index, the number of deaths from dwelling fires should be reduced and residential fire fighting equipment should be installed to detect dwelling fires in advance. Secondly, explosion accidents at factory facilities should be prevented, and fires caused by cigarette butts should be prevented. Furthermor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lectric fires should be implemented, and experiential fire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must be conducted continuously. Finally, information activities are needed for effective fire prevention.

**Keyword • Fire safety index, Fire statistics analysis, Dwelling fire**

■ 논문투고일:2023. 02. 01. ■ 심사완료일:2023. 03. 13. ■ 게재확정일:2023. 03. 22. ■

# 버지니아 울프 소설 『막간』에 나타난 타자 철학\*

노영신\*\*

## 목 차

1. 들어가며
2. 이사의 타자 인식 분석
3. 자일즈의 타자 인식 분석
4. 라트로우브의 타자 인식 분석
5. 맺음말

###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소설 『막간』(*Between the Acts*, 1941)에 나타난 자아와 타자, 거리감과 친밀감, 그리고 전쟁의 문제를 타자 인식의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울프의 소설 『막간』에 나타난 타자 철학을 규명하고 있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남달리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작가로, 한평생 모더니즘의 기수적인 예술가로 소설 형식을 실험해온 울프는 모호한 그녀의 글쓰기에 담긴 미학적 장치들로 인해 그동안 현실문제들을 회피하고 있는 유희주의자로 비판과 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892)

\*\* 가야대학교 수심교양교육원 초빙조교수

해를 받아 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학적 실험들은 타자를 억압하는 당시 영국사회의 권력기제를 해체하고자 시도했던 그녀의 정치적, 윤리적 태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막간』은 울프의 마지막 유작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둔 1939년 6월의 오후, 영국 중부 어느 외딴 마을에 위치한 올리버(Oliver) 가문의 포인츠 홀(Pointz Hall) 저택을 중심으로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영국 역사를 조망하는 야외극(pageant)과 그 야외극의 막과 막 사이에 벌어지는 마을 사람들의 하루 일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나 그리고 타인 나아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불가능성과 회의를 주제로 다룬다.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서구의 문명이 종말로 치달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기존의 사회체계나 가치관을 대신할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영국사회에 나타난 타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들이 소설의 주제이자 소설 그 자체를 형성하고 있다.

울프의 경우, 타인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에게 쉽게 공감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타인과의 벌어진 틈이 울프의 타자 윤리를 정의해 준다. 이것은 절대적 타자성을 주장하는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타자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아와 타자, 거리감과 친밀감, 전쟁에 관해 천착하고 있는 울프의 소설 『막간』을 레비나스 타자 철학의 사유의 틀을 빌려 새롭게 읽어 보고자 한다. 소설 전반에 스며든 가치의 부재와 공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더욱 개체화되면서 갖게 되는 부담과 좌절을 인식론적, 윤리적, 정치적 틀에서 규명해 보는 작업은 울프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막간』에서 울프는 타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재현하는 것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그리고자 분투하고 있는데, 먼저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다.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들로는 포인츠 홀의 주인 바트 올리버(Mr. Bart Oliver)와 바트의 아들 내외인 자일즈(Giles Oliver)와 이사(Isabella Oliver), 그리고 바트의 여동생인 루시 스위딘 부인(Mrs. Lucy Swithin), 방문객들인 윌리엄 닷지(William Dodge)와 맨리사 부인(Mrs. Manresa), 마지막으로 연출가이자 극작가인 라트로우브 양(Miss. La Trobe)이 있다. 바트 올리버와 아들 자일즈 올리버 그리고 손자 조지 올리버(George Oliver)가 함께 살고 있는 이 포인츠 홀 저택은 작품에서 생기가 없고 쇠퇴해가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포인츠 홀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불화는 현대사회의 인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핍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공허하고 가치가 부재하는 사회에 속한 현대인들이 더욱 개체화되면서 그들이 갖는 좌절과 부담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Berman 22).

또 작중 주요 인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좌절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3개월 전의 위기감이 투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서구의 문명이 종말로 치달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기존의 사회체계나 가치관을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은 『막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Sears 213-214). 울프가 『막간』의 초안을 쓴 시점이 뮌헨 협정이 체결된 직후이고, 그 이후에 국제적인 위기감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존스톤(Judith L. Johnston)은 『막간』은 전쟁을 기다리는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초조한 욕망과 곧 일어날 전쟁으로 인한 파국에 대한 억제된 두려움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258-259). 피치(Linden Peach)도 이 작품은 유럽이 평화와 전쟁 사이에 있던 1939년의 문화적 심리를 재창조하고 탐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0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막간』이라는 소설 제목은 작품의 시간적 배경인 양차 세계

대전 사이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Zwerdling 304). 그럼 울프의 전쟁과 타자 인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작중 주요 인물들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

## 2. 이사의 타자 인식 분석

먼저 이사를 살펴보면, 『막간』에서 이사의 나이가 1939년에서 따온 서른아홉이라는 점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이 해가 부여하는 암울한 의미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이사는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듯 보이나 자세히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적 조건과 달리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사는 마치 결혼의 덫에 걸린 “수감된”(82) 기분을 느끼며, 남편과의 새로운 관계를 갈망하고 도식화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역할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 이사가 “변화가 없는”(155)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고, “오, 나의 삶도 여기서 끝낼 수만 있다면”(181)하고 죽음을 염원하는 모습에서는 죽음을 갈망할 정도로 지치고 고통스러운 이사의 내면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퍼셀(B. H. Fussell)이 지적하듯이 결국 이사에게 부과된 현실은 “좌절, 실패, 불안전함, 후회”(272)이다.

하지만 아내에게 가사와 양육의 책임만을 지우는 가부장제 아래 시인이 되고 싶은 열망을 접은 채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사는 사실 죽음에 대한 염원을 무색하게 할 만큼 타인의 고통에 교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과 성숙한 현실 인식을 겸비한 인물이기도 하다. 동성애자 윌리엄 닷지를 향한 남편 자일즈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며 “그래, 그가 그런 사람이면 잘못되기라도 했던 말인가? 왜 서로를 심판하는가?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알기나 하나? 여기서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61)라고 생각하는 대목은 그녀가 지니고 있는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준다.

사실상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잘 알 수 없는 존재로

서 재현되고 있는데, 이점은 레비나스가 강조하고 있는 모든 타인은 절대적인 타자라는 생각과 맥이 닿아 있다. 레비나스의 경우, 타인은 상대적인 타자성을 지닌 타자가 아니다. 타인의 타자성은 나와 상대를 구분하는 어떤 성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은 ‘무한히 낯선 자’로, ‘무한히 초월적인 자’로 남는다(Levinas 194). 이러한 절대적 타자성은 제2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둔 영국사회에 스며든 암울하고 낯선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작품에 등장하는 포인츠 홀에 살고 있는 올리버가문 사람들을 비롯하여 야외극을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 안에 담아걸고 있어서 본심이 드러나지 않은 피상적인 것들만 읽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독자를 포함한 우리가 타인의 삶을 읽어 내는 행위는 상당히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독해를 하는 일이다(Bowlby 86).

이처럼 『막간』은 타인의 삶의 진실에 도달하는 경험은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타인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작중 인물들뿐만 아니라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다. 울프는 소설의 독자들도 예외 없이 자아와 타인에 도달할 수 없는 주체임을 끊임없이 텍스트에서 환기시킨다. 여기서 발생하는 타인의 불가해성에 따른 소통의 문제는 사실 소설의 서사를 중단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소설의 주제로, 나아가 소설 자체를 형성하고 있다.

놀랍게도, 소설 전반에 스며든 타인의 삶의 인지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타인의 호소와 요청에 응답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타인과의 친밀한 교감의 순간이, 가장 의미심장한 윤리적 만남이 그 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침 신문에 실린 군인들에게 강간당한 소녀에 관한 기사를 접한 이사가 그 소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이사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력이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이해와는 사뭇 차원이 다른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이사는 마호가니 창틀 위에서 화이트 홀의 아치를 보았다. 그 아치를 통해서 막사가 보였다. 막사에서는 침대가 보였고, 침대 위에서는 소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20)라는 대목에서 이사는 신문 기사를 읽는 와중에도 시적인 상상력을 통해 자신만의 상상의 서사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허구적 서사를 만들어 내는 이사의 현실 인식은 그녀의 상상력으로 인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 정점에 이른다.

이사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처한 현실이 신문기사에서 접한 군인의 소녀 강간 범죄와, 즉 군국주의적 사회에서 여성이 착취당하고 이용되는 지극히 구체적인 역사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사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짐을 짊어진 작은 당나귀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짐은 이미 요람에서부터 여성에게 부과된, “잊고 싶으나, 기억해야 하는”(155)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적 상상력을 넓혀간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의 상상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폭력과 파시즘이 만연한 당대의 현실을 자각하고 그러한 비극적 현실을 만들어온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죄의식에 항상 깨어있다. 이사는 당시 널리 행해지던 선동가들의 “광란의 외침”(156)에는 귀를 닫고, 그 대신 “차라리 목동에게”(156), “막사에서 일어난 소동에”(156), “창문을 열었을 때 들리는 누군가의 외침”(156)에 귀 기울이기고자 힘쓴다.

이사가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타인과 공감하는 방식의 특징은 윌리엄 닷지와 의 관계에서 특히 부각된다. 작품에서는 무수한 대화가 나오지만 닷지와 의 이 대화가 중요한 것은 대화의 이면에 내재된 교감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를 안지 불과 한 시간 정도 되었지만 닷지가 “저는 윌리엄입니다”(114)라고 이름을 말하자 “저는 이사에요.”(114)하고 대답한 후 이상하게도 마치 평생 알아왔던 사이처럼 대화를 나눈다. 이들은 서로 이름을 말

해주면서 고유한 인격체로서 교류를 시작하고, 서로가 연극적 정체성 뒤에 “가려진 얼굴”(114)과 보다 진실된 인간 감정을 찾는 “공모자들”(114)임을 깨달는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인이 다가오는 순간은 전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나며, 타인의 얼굴을 직면하는 일은 타인에 의해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나의 선택이 아니므로 나와 타인의 관계는 비대칭적이고 비상호성을 지닌다(『존재에서 존재자로』 160-161). 이러한 타자의 특성은 『막간』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마치 이사가 시아버지가 떨어뜨린 『타임스』지에서 군인에게 강간당한 소녀의 기사를 접하게 된 우연처럼, 그리고 전에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윌리엄 닷지와와의 만남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울프는 우리의 만남에 내포된 예측불가능성을 부각시킨다.

계속해서 울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부에 놓여 있는 듯 보이는 타인들의 요청과 호소에 응답할 때, 무슨 일이 생길지 그 결과를, 또 그 무수한 가능성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끔 만든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기회들을 무시하고 지나치지만 울프는 우리 삶의 여정의 방향과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들은 놀랍게도 이러한 타인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아래에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울프는 우리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침에 신문기사에서 접한 소녀이든 동성애자이든 우리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그들의 호소와 요청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완전히 변할 수도 있다고 답하는 듯하다.

### 3. 자일즈의 타자 인식 분석

앞서 살펴본 이사의 현실 인식과 타자 인식은 그녀의 남편 자일즈와 첨예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폭력과 전쟁으로 요동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형언하기 어려운 끔찍한 공포를 지켜보도록 피동적으로 강요당하고 있

는”(60) 자기 자신의 처지에 분개한 그는 스스로를 무기력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사와 마찬가지로 자일즈도 1939년의 위기의식이 극명하게 반영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전운이 감도는 유럽의 불안한 정세는 자일즈의 의식을 통해 읽을 수 있는데, 그가 “언제 어느 때나 총알들이 날아와 땅에 갈퀴 자국을 낼지도 모르고, 비행기는 불니 성당을 산산조각 내고 풀리 건물을 폭파시킬지도 모른다”(53)라고 생각할 때, 자일즈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전쟁으로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다.

자일즈는 뱀이 두꺼비를 삼키려다 삼키지 못해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두꺼비 역시도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를 목격하게 되자, 전쟁이 임박한 위기 상황임에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끔찍한 교착 상태에 투사시킨다. 자일즈는 “두 생물을 한꺼번에 밟아 죽임”(99)으로써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심리적으로 타개하려고 한다. 자일즈식의 분노는 결국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뒤틀어진 욕망으로 표출된다. 이와 같은 전도된 폭력은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폭력을 파생시킬 뿐이라는 점을 울프는 일찍이 『3기니』(*Three Guineas*, 1938)에서 지적한 바 있다.

자일즈는 그 누구보다 냉철한 현실인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할 조짐을 보이는 유럽 대륙으로부터 표면적으로 안일한 분위기의 영국 내륙에 위치한 자택을 쉽게 분리한다. 그리고 포인츠 홀 안에서 그를 중심으로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간과하고 만다. 자일즈의 분노는 자신의 삶의 수많은 국면에서 주체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부인하고, 세상에 대한 자기연민과 증오에서 기인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역사라는 무대에서 자신을 비극적 주인공으로, 희생자로 규정한 자일즈는 불행한 자신의 삶과 그에 따른 보상심리에 근거하여 타인들의 삶에 가차없이 가치평가를 내리고 이에 제약을 느끼

지 않는다. 그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끔찍한 전쟁으로 치달게 된 것은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것밖에 없는 자신의 고모 스위딘 부인과 같은 무능하고 무용한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53).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정작 영국제국주의와 가부장제의 수혜자인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의식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자기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원망함으로써 많은 역사의 주역으로서 자신이 짊어진 책임은 회피한다.

그리고 자일즈는 동성애자인 윌리엄 닷지를 “우리”(111)라고 표현되는 공동체에서 배척시키는 배타성에다가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비극적인 역할을 강요받았다는 피해의식까지 더해져 더욱 더 타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편협함을 보인다. 파커 부인(Mrs. Parker)과의 대화 장면에서는, 그가 윌리엄 닷지와 같은 동성애자를 분노를 표출할 표적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에게는 “경멸”(111)받지 않을 수 있는 면죄부를 주고, 무의식 깊은 곳에 주체적 행동이 결여된 자기비판을 감춰두려는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자일즈는 파시즘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자신을 시종일관 한탄하면서도, 또 다른 지배와 탄압의 대상을 찾아서 책임의식을 상쇄하려 한다는 점에 있어서 결국 파시스트의 우를 반복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는 이러한 남편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뒤틀린 영웅심에 침묵함으로써 동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사의 눈은 “아니, 난 당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피 묻은 신발을 신은 어리석은 소년아”(111)라는 질책을 담고 있다. 울프는 『막간』에서 역사의 책임을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독재자 소수에게 돌리고 대중에게는 면책의 특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전쟁이 임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기만적 환상에 휘둘린 채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꼬집는다. 따라서 자일즈의 현실 인식과 타자 인식을 통해 『막간』은 독재자나 폭군과 맞서 싸울 저항의 잠재

력이 성숙한 현실 인식 능력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교감 능력에 있음을 일깨운다.

울프의 전쟁과 타자 인식 그리고 윤리학에 대한 사유는 『막간』을 집필하는 동안 기록한 일기에서 잘 드러난다. 1938년 8월 17일 일기에서 울프는 전쟁이 “유럽 문명을 완전히 파멸할 것”(WD 300)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1940년 6월 22일 일기에서는 “지금 우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미래도 없이 살고 있다”(WD 337)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계속해서 1940년 8월 31일자 일기에서도 영국이 공격당하는 전쟁 상태와 폭격에 의한 죽음들에 관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느낀 완전한 “억압과 위험과 공포의 감정”(WD 345)을 전달한다. 영국문명 전체가 전쟁으로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인식은 그녀가 1940년 8월에 쓴 에세이 「공습 중 평화에 대한 생각」(“Thoughts on Peace in an Air Raid”)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울프는 우리 안에 내재된 침략의 욕구를 “잠재적 히틀러주의”(155)라고 명명하고, 바로 이것이 집단적으로 구현된 것이 전쟁이며 인간성 안에 내재된 잔인성과 폭력성이 지속되는 한 삶의 절망과 불행은 제거될 수 없다고 보았다.

울프의 전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들을 좀 더 살펴보자. 울프는 1918년 8월 27일 일기에서 남동생 애드리안(Adrian Stephen)이 한 독일 전쟁포로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인간관계와 윤리학에 관한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진다. “나는 애드리안이 키가 큰 독일 포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 그들은 당연히 서로를 죽였어야 했다. 타인을 살해하는 것이 쉬운 까닭은 그의 삶이 그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에게 감겨져 있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지나간 그의 과거를 생각해 내는데 있어서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게으르기 때문이다”(D 1 186). 여기서 울프는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실패한 것을 살해 능

력과 연관시킨다. 타인의 삶을 상상하는 일에 있어 실패한다는 것은 윤리적 실패를 의미한다. 이는 쉽게 살인하고, 쉽게 국가 간의 전쟁을 허용하게끔 만든다.

전쟁에서 비롯된 이러한 물음들은 레비나스의 타자성과 책임에 관한 글에 앞서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인은 내가 죽이고자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무한은 살해에 대한 무한한 저항으로 살해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통찰을 보여주는데, 그에 따르면 “타자는 그 전체에 대한 자기 존재의 초월 자체로 나와 맞선다. 역량의 어떤 최상급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의 초월의 무한으로 말이다. 살해보다 더 강한 이 무한은 이미 타인의 얼굴 속에서 우리에게 저항한다. 이 무한은 타인의 얼굴이고, 본래적 표현이며, ‘살인하지 말라’라는 최초의 말이다”(Levinas 199). 이처럼 타자의 무한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살해에 대한 윤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울프와 레비나스 모두 타자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상상적 인식은 사람을 쉽게 살해하는 능력과 결코 양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라트로우브의 타자 인식 분석

소설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타인의 불가해성과 전운이 드리워진 영국 사회에 스며든 낯선 분위기는 소설 말미에 이르러 “차분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하라”(187)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 메시지는 작중 주요 인물인 야외극 연출가 라트로우브가 관객들에게 의도한 극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울프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연출가이자 극작가인 라트로우브는 야외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영국문학사를 패러디하고 있는데, 지배적인 문학사에 대한 도전적인 해석을 통해 현재를 조망하고 있는 예술가 라트로우브의 이러한 노력은 사실상 전통과의 힘겨운 투쟁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트로우브가 야외극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향수어린 과거의 가치에 대한 기억의 환기가 아니라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지움으로써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 관객들의 환상을 단절시키고 그들을 깨어 있는 공동 참여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관객들이 영국의 역사를 조망하고 각각 그 시대의 허상과 실상을 파악하게 한 후, 관객들이 차분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길 희망한다.

특히 라트로우브가 야외극에서 영국문학사 중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기는 엘리자베스조, 왕정복고기 그리고 빅토리아조이다. 엘리자베스조 장면에서는 뒤바뀐 운명의 공주와 거지가 결국 몸의 흔적으로 자신들의 원래 신분을 되찾고 사랑도 얻게 된다는 플롯을 다루면서 엘리자베스조의 위선과 기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로써 이성이라는 하얀 가면 속에 숨겨진 비틀어진 지배층의 검은 욕망이 드러난다. 빅토리아조 장면에서는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이 가족 공동체의 위기로 투영된다. 사실상 빅토리아조의 성역할과 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에 한정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 이데올로기로 확장되어 동질적인 영국사회에 반하는 타자들에 대한 폭력성과 배타성을 행사하고 있음을 폭로함으로써 빅토리아조의 가치들을 전복시킨다. 빅토리아조의 막이 내리자 관객들은 결국 “변화는 있어야만 해, 아니면 아버지의 턱수염도 어머니의 뜨개질도 몇 야드고 끝도 없이 자랐을 것”(174)이라고 상상하는데, 이 대목에서 관객들이 야외극을 통해 자기기만적 환상에서 벗어나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전통과 사회 내부의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빅토리아조와 에펠로그 「현재, 우리 자신들」(“The Present Time, Ourselves”) 사이에, 텅 빈 무대와 축음기의 기계소리만 들리는 막간의 순간에 이르러 관객들은 처음으로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에 대해 성찰해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앞 장면에서 보았던 “빅토리아인도 아

니었고 그들 자신도 아니었다. 그들은 실재도 없이 림보에서 떠돌고 있었을 뿐”(178), 지금 관객들의 정체성은 부유하는 상태다. 그들은 야외극 프로그램에 썬진 “우리 자신들”(178)을 보고 연출가 라트로우브가 과연 “우리 자신들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인가?”(178)하고 의문을 품는다. “1939년 6월 어느 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신들”(179)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179)이고, “그녀는 나를 절대로 알 수 없다”(179)고 확신한다. 여기서 타인의 내적 삶을 깊이 완전하게 상상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누군가를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부딪히게 되고, 또 타인을 알려는 시도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울프의 타자 철학에 내포된 타자성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장면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알 수가 없는 존재로 표출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레비나스의 모든 타인은 절대적인 타자라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빅토리아조의 막이 내려가고 십 분 동안 “현실로 관객들을 끌어들이려”(179) 시도한 라트로우브의 대담한 연출은 이 야외극에서 가장 실험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관객들은 십 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사로잡힌 죄수들처럼 갇힌 상태로 텅 빈 무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출은 야외극을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초조함과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대와 관객들 사이의 공백은 의도적인 연출가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우연적인 요소를 통해서 해결된다. 십 분이라는 불안한 침묵의 시간에 빚어진 관객들의 초조함을 단번에 해소해 주는 것은 바로 “소나기”(180)이다. 이처럼 자연의 소리, 이질적인 목소리, 불협화음이 다양하게 혼합되어진 라트로우브의 야외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카니발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어서 모든 배우들이 무대 위로 거울을 가지고 나와 관객을 향하여 비

춘다. 덩불숲에서 뛰쳐나온 아이들이 관객을 향해서 비추는 여러 거울들의 조각들은 관객들의 “얼굴”(184), “코”(184), “치마”(184), “바지”(184) 등 그들의 모습을 파편적으로 재현한다. 이에 당황한 관객들은 거울에 비쳐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축음기에서 들려오는 익명의 목소리는 “우리 자신들”(187)을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관객들은 야외극을 통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비판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고, 1939년 현재를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조각난 거울에 비친 파편화된 존재들처럼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인식과 마주하게 된다. 라트로우브의 연출은 표면적으로는 비판적이고 암울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현재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인식이 깔려져 있다. 그녀는 파편화된 거울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사실 우리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동시에 그녀는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말만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이 바로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현실을 만들어 낸다는 예리한 통찰을 보여준다. 따라서 『막간』의 서술에 재현된 파편화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사회적 붕괴라기보다는 유동적이고 새로운 공동체 개념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Cuddy-Keane 273-285).

야외극이 끝난 후 라트로우브가 새로이 구상하고 있는 연극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문명 이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암시한다. 이 새로운 작품의 주인공은 이사와 자일즈인데, 이들이 나란히 라트로우브의 새로운 연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야외극을

통해 자일즈가 폭력적 영웅노릇에 대한 이사의 비판과 자신을 향한 역사의 비판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사와 대화를 시작하려는 자일즈는 무책임한 현실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욕망의 실체를 진실되게 마주 하고, 이제껏 행하지 않았던 다른 역할을 맡아 수행할 배우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한편 이사는 이사대로, 언제나 “부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96) “막대기처럼”(96) 곳곳이 땅에다 발을 딛고 서 있는 남편 자일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막간』은 이렇듯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의 말과 요청, 호소에 귀를 기울일 때 문명의 벽이 다시금 건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침내 소설은 다양한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타자들이 서로 대화를 재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잠재력에 눈을 뜨는 진정한 삶의 주역으로 거듭날 것을 시사하며 끝이 난다.

## 5. 맺음말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살아온 이력에 대해서 달아 버린 책갈피처럼 자신을 달아걸고 있어서 타인들에 대해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것만 단지 읽을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울프의 소설들을 읽을 때 우리가 타인의 삶을 읽어 내는 일은 상당히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독해를 하는 일이다. 『막간』은 이처럼 타인의 삶의 진실에 도달하는 경험은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타인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작중 인물들 뿐만 아니라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다. 울프는 소설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예외 없이 자아와 타인에 도달할 수 없는 주체임을 끊임없이 텍스트에서 환기시킨다. 여기서 타인의 불가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는 실상 소설의 서사를 중단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소설의 주제가 되고, 나아가 소설 자체를 형성하게 된다.

『막간』은 울프가 1938년 4월 2일에 집필하기 시작하여 1941년 3월 작

가 사후에 출판되었다. 세계대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이르러서도 전 작품의 집대성적인 시도를 한 『막간』에서 울프는 타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재현하는 것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그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타인과의 공감대의 가능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바로 그 곳에 의심의 시선을 던지고 오히려 그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울프에게 있어서 쉽게 소통되거나 공통된 경험은 그저 텅 빈, 단지 말 뿐인 경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울프는 독자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대면하게 함으로써, 아는 것의 한계에 직면하게 만듦으로써, 또 독자들을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에 저항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타자 윤리학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타인과 나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모으는데서가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그들의 호소와 요청에 응답할 때, 비로소 친밀한 순간이 형성될지도 모른다고 답을 들려주는 듯하다.

## ■ 참고문헌

- 레비나스, 에마뉘엘,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역, 민음사, 2003.
- Berman, Marshall,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 Simon and Schuster, 1982.
- Bowlby, Rachel, *Feminist Destinations and Further Essays on Virginia Woolf*, Edinburgh UP, 1997.
- Cuddy-Keane, Melba, "The Politics of Comic Modes in Virginia Woolf's *Between The Acts*." *PMLA* 105, 1990, 273-285.
- Fussell, B.H, "Woolf's Peculiar Comic World: *Between The Acts*." *Virginia Woolf: Revaluation and Continuity*. Ed. Ralph Freedman. U of California P, 1980, 263-283.
- Johnston, Judith L, "The Remediable Flaw: Revisioning Cultural History in *Between The Acts*." *Virginia Woolf and Bloomsbury: A Centenary Celebration*, Ed. Jane Marcus. Indiana UP, 1987, 253-277.
- Levinas, Emmanuel,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Trans. Alphonso Lingis, Duquesne UP, 1969.
- Peach, Linden, "The last tears: 'The shooting party' and *Between the Acts*." *Virginia Woolf*, Macmillan, 2000, 195-213.
- Sears, Sallie, "Theater of War: Virginia Woolf's *Between the Acts*." *Virginia Woolf: A Feminist Slant*, Ed. Jane Marcus. U of Nebraska P, 1983, 212-235.
- Woolf, Virginia, *Between the Acts*, Harcourt, 1941.
- \_\_\_\_\_, *The Diary of Virginia Woolf*, vol. 1, Ed. Anne Olivier Bell, Harcourt, 1977.
- \_\_\_\_\_, "Thoughts on Peace in an Air Raid." *The Death of the Moth and Other Essays*, Ed. Leonard Woolf, Hogarth, 1942, 154-

157.

\_\_\_\_\_, *Three Guineas*, Hogarth, 1938.

\_\_\_\_\_, *A Writer's Diary: Being Extracts from the Diary of Virginia Woolf*,  
Ed. Leonard Woolf, Hogarth, 1953.

Zwerdling, Alex, "Between the Acts and the Coming of War." *Virginia Woolf and the Real World*, U of California P, 1986, 302-323.

## ■ 국문초록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자신의 소설들을 통해 주로 자아와 타자, 친밀감과 거리감, 소통과 소외의 문제에 천착해 왔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막간』(*Between the Acts*, 1941)은 그녀의 유작으로서 세계대전 직전의 영국사회에 나타난 타자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과 회의 그리고 그로 인한 의사소통의 실패는 모더니스트 예술가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나 『막간』에서는 타인과의 사이에 벌어진 이러한 틈이 모더니즘의 윤리학을 정의해 주는 타인과의 만남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절대적 타자와의 만남과 그 책임을 강조하는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소설에 얽혀 있는 전쟁, 죽음, 타인에 대한 공감의 문제들을 레비나스의 사유와 함께 인식론적, 윤리적, 정치적 틀에서 새롭게 독해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울프의 소설 『막간』에 나타난 타자 철학의 성격을 밝혀내는데 일조할 것이다.

주제어 ● 버지니아 울프, 막간, 타자 철학, 야외극, 전쟁, 레비나스

## ■ Abstract

### Philosophy of the Other in Virginia Woolf's *Between the Acts*

Noh, Young Shin

Virginia Woolf's novels largely focused on questions of self and other, intimacy and distance, communication and alienation. In *Between the Acts*, the final novel published after Woolf's suicide in 1941, Woolf concerns herself with questions of how other people can be known and understood. Through the crises of faith in the possibility of ultimate knowability and complete understanding that emerge from the war, a prevalent sense of unpredictability saturates and shapes Woolf's *Between the Acts*. Such failures of communication are a familiar characteristic of modernist novels. However, I argue that *Between the Acts* portrays such gaps as the very encounter with alterity that can define the ethics of modernism. The rethinking of ethics focused on responsibility for the absolute other, associated closely with Emmanuel Levinas, enables a more complex understanding of the novel. Focusing on its status as deeply engaged with questions of war, death, and sympathy for others, I suggest that *Between the Acts* interweaves epistemological, ethical, and political concerns. Reading the novel in dialogue with Levinas helps to clarify the philosophy of the other in Woolf's *Between the Acts*.

**Keyword • Virginia Woolf, *Between the Acts*, Philosophy of the Other, Pageant, War, Levinas**

■ 논문투고일:2023. 02. 20. ■ 심사완료일:2023. 03. 17. ■ 게재확정일:2023. 03. 22. ■

# 문동과장의 존재론적 의미 연구

## -동래야류·고성오광대를 중심으로-

심상교\*

### 목 차

1. 서론
2.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 문동과장 공연 양상
3. 정적존재론-시련극복을 위한 신명과 도취
4. 동적존재론-내적 독백을 통한 공연성 정립
5. 결론

## 1. 서론

본고는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의 문동과장에 대해 고찰한다. 문동이는 어떤 존재인가. 문동이를 결정짓는 존재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에서 문동과장은 어떤 의미인가. 그 본질적 내용을 찾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문동이라는 존재자의 존재 특성을 고찰하지만 철학 속 존재론은 정적 상황과 관련된다. 철학 속 존재론은 문동이처럼 한 작품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에 대한 존재의미를 찾는 논의라기보다 스타일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문동이의 정적상황과 관련된 논의도 하지만 공연상황과 관련되는 동적상황과 관련된 논의도 한다.

\*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 속의 문둥이는 인간을 비추는 현기증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문둥이들이 만들어 낸 문둥과장은 두 민속극이 가진 비판 정신에 존재통찰의 미학적 감각을 덧붙였다. 그래서 두 민속극이 예술작품으로 완성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sup>1)</sup> 문둥이라는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로 민속극이라는 존재자를 예술로 만들었고 인간이라는 존재자를 현기증 나게 했다. 현기증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의미다.

민속극에 대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기존 연구는 민속극을 이해하고 해명하는데 많이 기여하였다. 민속극 연구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많이 축적되었지만 아직 여러 관점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의 문둥과장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문둥과장은 영남지역 민속극 중 7곳에서 연희된다. 진주, 가산, 통영, 고성, 마산, 김해, 동래 등에서 연희된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야류·오광대 중에서 수영야류만 문둥과장이 연희되지 않는다. 7곳 중에서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 때문이다. 먼저, 대사없이 춤과 동작만으로 연희되고 둘째, 그 안에 서사가 들어 있으며 셋째, 서사의 의미가 동일 작품 내의 다른 과장과 의미면에서 조화를 지향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과장과 차별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조화지향은 다른 과장의 비판적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이고 차별되는 측면은 문둥과장에는 비판적 내용보다 예술작품을 완성하려는 고도의 장치의 많다는 것이다. 특히, 차별되는 지점은 본고의 연구관점과도 연결된다. 동래야류나 고성오광대의 문둥과장 외의 과장은 대략 비판적 성격을

---

1) 문둥과장의 미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문둥과장을 좀 더 다듬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문둥춤 음악연주에 정적인 요소가 필요해 보인다.

갖는다.

양반과장이나 영노과장, 영감·할미과장(제밀주과장)은 양반 비판과 관련되고 승무과장은 불교비판과 관련된다. 그런데 문동과장은 양반비판과 관련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비판보다는 문동과장 자체의 예술적 완성을 지향하는 측면이 강하다. 양반과장이나 영노과장, 영감·할미과장, 승무과장 등의 과장은 지배적 가치관과 맞서는 민중의 정신이 반영된 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동과장은 이런 과장들과 같은 성격을 지녔으면서 민속극이 공연되는 예술작품이라는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예술을 통해 시대를 통찰하며 민속극의 예술적 완성도를 결정적으로 높여 주는 과장이 문동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동과장과 관련된 연구<sup>2)</sup>는 문동과장 대사분석, 춤분석, 전체내용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편수는 많지 않다. 황규선은 고성오광대에서 현재 전승하는 문동복춤 춤사위를 연구하였고, 허창열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의 문동복춤 춤사위 변화과정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김지민은 공연상황과 대사분석을 통해 경남지역 민속극 전반을 살피면서 문동복춤에 관한 고찰을 하였다. 문동이를 신으로 분석하면서 문동복춤과장을 청신과 오신의 중간단계로 보았다. 심상교의 두 연구는 민속극 관련 주제를 고찰하면서 문동과장의 비극적 요소와 희극적 요소를 신명과 연결 지어 고찰하였다.

- 
- 2) 황규선, 「고성오광대 문동복춤 춤사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04.  
허창열, 「고성오광대 문동복춤 춤사위 연구 :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15.  
김지민, 「경남 지역 탈놀이의 변이 양상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2017.  
심상교, 「민속극에서 웃음의 의미 연구」, 『공연문화연구』42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21.  
심상교, 「민속극 표현방식과 극적 성격 재론」, 『우리어문연구』75집, 우리어문학회, 2023.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의 문동과장은 연행초기부터 연행되었는지 분명치 않은 면도 있다. 고성오광대 문동복춤의 경우 전승초기부터 공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춤사위가 여러 번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의 춤사위는 1988년 당시의 춤사위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에 6가지 정도의 춤사위가 추가되어 현재 전한다.

동래야류의 경우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승<sup>3)</sup>되었으나 1930년대 문동탈이 있었으므로 증언처럼 연희자가 없어 공연을 하지 않았을 뿐 문동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여시에는 양반과장과 영감·할미과장만 연행되었고 이후에도 문동이 배역을 맡을 사람이 없어 연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였다.

고성오광대의 경우 춤사위 변화가 2000년경까지 있었고 동래야류의 경우 동래야류가 초연되던 19세기말부터 연희되었는지 아니면 일정시기가 지난 어느 시점부터 연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민속극이 갖는 기본 정신에 바탕하여 연희하였을 것이다. 동래야류가 19세기 후반에 공연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조선후기 연행 미학에 근거하여 공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말의 예술가적 관점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성오광대의 춤사위에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화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고성오광대가 갖고 있는 내용과 형식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본고에서의 문동과장 고찰은 현재 전승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민속극이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공연되던 시기는 이론은 있지만 대략 19세기 말로 볼 수 있다. 근대사회가 싹트던 시기에 민속극이 연행되기 시

---

3) 필자가 들은 증언과 동래야류전수교재에는 1972년부터 문동과장이 본격 연희되었다고 하는데, 2023년 2월 10일 한국공연문화학회에서 발표자 김형근은 김은경의 증언을 빌려 문동과장이 이전부터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 공연은 1973년부터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작했고 형식을 완성한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민속극에는 19세기말 동시대나 그 이전을 바라보던 연희자들의 관점이 녹아들게 되었다. 이 과정에 문동과장에도 근대의식이 녹아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동과장의 근대의식은 사회비판적 측면보다는 예술적 완성도를 올리는 근대미학의 관점이 더 강하게 녹아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민속극이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문동과장의 기여한 것이다. 이로써 민속극이 종합적 공연예술로 형식을 갖추는데 문동과장이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문동과장에는 비리얼리즘적 요소도 있고 민속극을 예술로 만드는 지점도 있는 것이다. 삶의 고통과 시련을 신명으로 승화시키는 내용도 문동과장에 나타난다. 문둥이가 된 전사에 업보적 요소가 들어 있는 점은 문둥이춤의 서사와 관련되어 내적 독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본고의 존재론적 의미에서 존재론은 궁극적이고 근본적 실재가 무엇인지를 궁구하는 물음과 관계된다. 존재론이라는 용어는 철학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존재론은 형이상학이라고도 한다.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을 벗어나 인식론, 방법론, 가치론을 포함한 전반적 물음이라고도 하였다. 하이데거의 존재론 설명도 전통철학에서 언급하는 존재론과 본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존재론은 존재와 존재자 사이에 놓여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점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존재론에서 핵심은 '존재 물음(the question of being)'이며, 이것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탐색이다.<sup>4)</sup>

여기서, 존재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인간을 포함한 온갖 사물 및 현상을 의미하며,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자는 인간, 민속극, 가면, 팽과리 등과 같이 실제 있는 대상과

4) 이기상, 『존재와 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살림, 2013, 50쪽.

이것과 관련되는 모든 것이다. 존재는 존재자들 사이에서 혹은 유사한 존재자들 사이에서 서로 변별되도록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존재자들은 보통 표상을 통해 확인된다. 표상은 하나의 대상이 갖고 있는 개념이나 이미지를 의미한다. 인간이 객관적 대상을 바라보며 대상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기존 지식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어떤 개념이나 이미지가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자가 있게 하는 그 본질적 상황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존재자는 온갖 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존재는 존재자를 드러내고 자신은 은폐한다. 존재는 구체적인 실체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문둥이는 존재자이고 문둥이를 규정하는 어떤 개념이나 이미지를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본고에서의 문둥이에 관한 존재론적 연구는 문둥이를 규정하는 내적 의미가 무엇이고 문둥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존재론은 존재의 정적 상태와 관련된다. 자연의 경후 변화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파동, 흐름 등의 용어를 통해 존재의 끝없는 변화를 잡아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이미지화된 상태로 논의하기 때문에 존재론 전반은 정적 상태와 관련된다. 민속극은 공연물이고 등장인물 문둥이는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다. 때문에 문둥이의 존재적 의미를 찾고자 할 때는 문둥이가 연희를 하는 동적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문둥이가 움직이면서 춤을 추거나 동작을 하는 공연상황과 문둥이라는 존재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동적존재론에서 문둥이라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 논의는 정적존재론에서 논의한다.

---

5) 하이데거는 인간, 책, 노래, 동식물 등 세상의 온갖 사물 및 모든 현상을 존재자라고 지칭하면서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질문하기에 인간을 현존재(Dasein, presence)라고 하였다.

## 2.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 문동과장 공연 양상

문동이과장이 시작되면 굿거리장단이 연주되며 큰문둥이가 소고와 소고채를 든 채 팔다리를 떨며 등장한다. 소고로 얼굴을 가리기도 한다. 의상은 평복에 연한 연두색 조끼다. 마당 가운데로 나와서 소고와 소고채를 바닥에 던진다. 이후, 뒹굴 듯 엎어지듯 넘어진 후 마당에 앉는다. 앉아서는 땅을 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한다. 슬픔에 겨우 뒤로 자빠지듯 넘어졌다가 일어나 앉는다. 문동병으로 손가락이 없어 손을 감아쥔 채 연기한다. 일어나 앉은 큰문둥이는 태평소 소리가 나면 어깨춤을 추면서 일어선다. 일어선 큰문둥이는 서서히 움직이며 몸을 비틀거나 손목을 꺾는 동작의 춤을 춘다. 이 때 상쇠가 다가온다. 상쇠의 팽과리 연주에 맞춰 큰문둥이는 상쇠와 맞춤을 추기도 한다. 상쇠가 들어가면 큰문둥이 본격적으로 춤을 춘다. 춤의 내용은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코를 풀거나, 어렵게 걸어가는 모양, 나락을 손위에 놓고 비비는 춤사위를 보여준다. 삶의 과정에서 절망적 상황을 맞기도 하고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큰문둥이의 삶을 쓰러지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이후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무릎을 펴고 몸을 우쭐거리거나 몸을 굽는 동작도 하고 양팔로 허리를 감았다 푸는 등의 춤사위도 보여준다.

큰문둥이는 다시 한 번 쓰러진다. 쓰러져 있을 때 작은 문둥이가 등장한다. 작은 문둥이는 누워있는 큰문둥이를 안고 같이 두세 바퀴 뒹군다. 뒹구는 모습은 친구를 만난 기쁨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두 문둥이는 일어나서 소고를 들고 새롭게 신명을 얻게 된 듯이 활달하게 움직이며 ‘좋다’라는 추임새도 하며 소고를 발로 차며 이전과 다른 춤사위를 보여준다.<sup>6)</sup>

춤사위는 비틀사위-손목꺾기-뒹굴사위-코풀사위-디딤사위-겨드랑사

6) 심상교, 「민속극 표현방식과 극적 성격 재론」, 『우리어문연구』 75집 우리어문학회, 2023, 145쪽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위-근질사위-깨금질사위-배김사위-소고상대춤사위 등이다.

고성오광대 문둥복춤은 공연 제일 처음 즉 제1과장으로 연희된다. 고성 오광대 연희가 시작되면 악사들이 길놀이 하듯 악을 연주하며 입장하는데 악사들 제일 뒤에 문둥이가 따라 들어온다. 악사들이 마당을 한 바퀴 도는 사이 문둥이도 따라 돌면서 소고(중고)와 소고채를 마당 한 가운데에 놓는다. 악사들이 마당 한 쪽에 정렬하여 음악 연주 대열을 갖추면 문둥복춤이 시작된다.

1960년대 문둥탈의 특색은 눈 주변이 흰색으로 눈 모양을 따라 칠해져 있어 얼굴의 다른 면과 눈이 구분지어 졌다는 점과 병거지(패랭이 혹은 대전립)를 뒤로 약간 젖혀 씌우므로 하여 이마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점이다. 또, 현재의 문둥탈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 액체 덩어리가 굳어지고 있는 듯 하여 얼굴 전체가 불균형적이고 일그러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하면 60년대의 탈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얼굴에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모습은 강조되고 있으나 얼굴이 일그러져 천형의 슬픔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당시 문둥탈의 이빨은 아래 위 모두 열네 개로 되어 있는데 윗 일곱 개 중 우측에서 두 번째 것은 반쯤 부서져 있다.

의상 면에서 60년대와 그 이후(79년 이후)의 달라진 점은 허리띠와 덧걸이(문둥이의 상의)의 길이, 패랭이에 달린 끈이다. 60년대에는 허리띠를 두르지않고 있으며 덧걸이의 길이도 현재보다 짧아 보인다. 그리고 패랭이에 달린 끈도 현재보다 짧아 보여 가슴보다 얼굴 쪽에 더 가깝게 늘어져 있다.

1965년 공연테잎에서 문둥복춤은 처음부터 중고를 들고 춤을 춘다. 이 윤순, 허재도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부터 북을 들고 문둥복춤을 춘 적은 없다고 한다. 처음부터 중고를 들고 문둥복춤을 추는 65년 공연테잎은 편집상의 잘못이거나 증언의 오류인 것 같다.

춤사위로는 주변살피기사위-관절펴기사위-서서배김사위-앉아배김사위-비틀사위-파리(곤충)잡기사위-코푸는사위-보리이삭줍기사위-북 어르기사위-북채 북잡기사위-북놀음사위1·2·3·4·5-북 북채 발림사위-좌우치기사위-좌우어르기사위 등이 추가된다.

### 3. 정적존재론-시련극복을 위한 신명과 도취

고성오광대 문등복춤에서 문등이가 북춤을 출 때는 왼손에 북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 북채를 든다. 문등복춤의 여러 동작은 슬픔이나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 주기도 한다. 농사짓는 모습, 수확하는 모습, 수확된 곡식을 갈아서 먹는 모습, 그러한 동작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한탄하며 우는 모습 등이 표현된다. 그런 점에서 문등복춤은 춤이나 어떤 움직임이라기보다 선명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이다.

문등복춤은 천형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천형의 결과로 신체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의 신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손이다. 감아진 손모양이 바로 그것인데 문등광대는 이러한 손을 비틀며 비정상적인 신체가 빚어내는 춤을 춘다. 문등광대의 이러한 춤은 신체의 비정상적인 모습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자체가 불구적이며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등탈의 병자적 모습은 삶의 고통만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는다. 슬픔의 극한에서 기쁨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중고를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중고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이전의 회한과 슬픔 속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춤사위가 활달해지고 다리의 놀림도 활기차 진다.

문등복춤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상징은 신명의 절대성이다. 이를 통해서 선조들의 삶에서 신명을 내기 위해 매개되는 북, 그와 동일한 의미로

상징되고 있는 풍물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문동북춤에서 종고는 삶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개안의 매개물이며 고통을 잊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신명의 매개물이다. 문동북춤에서의 북(종고)은 풍물을 상징하고 문동북춤은 북을 통해 새 삶을 인식한다. 이런 결과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북으로 상징되는 풍물이었다.

문동북춤에서 북은 풍물을 상징하고 풍물은 다시 신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신명이 천형마저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 어떠한 정신적, 신체적 불구라도 신명을 통해 치유될 수 있고 새로운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춤이 바로 문동북춤 과장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모순과 투쟁도 삶에 들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고통과 모순,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된 하나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구성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헤쳐 나가는 승화의 힘을 가져야 하며 창조 의 힘도 가져야 한다. 독립된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새로운 고통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결과가 되어야 한다. 즉,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모순과 투쟁도 극복하는 인간 존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독립된 존재가 되려는 힘의 근원은 현실을 형성하는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개인으로서의 존재자나 사회 일원으로서의 존재자 의미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에 따라서는 독립된 존재자가 반드시 될 필요가 없으며 되려는 정신의 근원이나 힘의 근원을 중시할 필요도 없다고도 한다. 존재자 누구나 상대 존재자를 극복 대상으로 생각해야 하며 독립된 존재가 되려는 정신으로 형성된 사회 역시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정되어야 한다고도 한다.

현실이 인간에게 극복 대상인지 부정의 대상인지는 상황마다 다를 것

이나 다르지 않는 것은 예술창조충동은 현실의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 발동될 때 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현실의 고통을 치유하고 모순과 투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예술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각에 바탕한 몰입적 태도와 상상력에 근거하며 지적 거리는 갖는 이화적 태도 모두는 인간에게 있는 예술충동이다. 이화적인 것이 독립된 존재자를 구현하려는 충동이라면 몰입적인 것은 독립된 존재자가 파괴될 때 드러난다. 이화적인 것이 지성작용과 꿈이라는 생리학적 현상과의 비유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면 몰입적인 것은 도취라는 생리학적 현상과의 유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현실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극복한 예술의 형식을 갖추려면 이러한 몰입적 태도와 이화적 태도가 합쳐질 때 더 의미가 있게 된다.

문동이 예술의 한 형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의 결합이 필요할 것이다. 즉, 문동이 스스로 특수한 소수로 소외된 자라는 인식의 붕괴가 일어나야 한다. 관객에게도 마찬가지다. 탈춤판이라는 신명의 중심에 소수자에 해당하는 문동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의 붕괴가 일어나야 한다. 그럴 때 문동의 존재론적 의미가 확산되고 민속극의 예술적 의미가 심화될 것이다. 인간이 가진 한계와 운명의 힘 앞에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힘을 가질 때 비정상적이고 소수에 해당하는 특수한 인간으로 여겨지던 관점을 사라지고 몰입적 태도로 새로운 예술세계 창조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때 세상으로부터의 인식이 만든 존재의 특성, 자기 자신 갖는 자신에 대한 존재의 특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술세계를 창조한다. 예술세계의 창조에는 지적 태도와 상상력도 필요하다. 극복의지가 만든 힘만으로는 안 된다. 문동이는 이처럼 세상이 만든 존재적 특성과 자신이 만든 존재적 특성에서 벗어나 지적 태도와 상상력을 묶어 새로운 문동과장이라는 예술형식을 만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문동과장을 만든 연희자들의 창조력이 드러난다. 문동과장의 경우 고성오광대 연희초창기부터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공연은 여러 차례 변화와 창조의 과정이 덧붙었다. 동래야류는 처음부터 문동과장이 있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탈이 존재했기에 문동과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전승과정에 문동과장이 어느 정도 다른 모습으로 전승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속극이라는 정신 안에서 변화하였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문동과장의 현재 모습은 민속극 원래 정신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인간 존재의 경악스러운 면과 부조리한 면을 본다. 그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도 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예술이 선택될 때는 이를 이겨내려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의 근원에 몰입적 태도와 지적 태도가 결합되어야 한다. 시대와 사회의 오류를 비판하기 위한 지적 작업과 몰입적 태도의 예술창조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예술은 아름다운 가상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석된 지적 씨앗들이 들어 있어야 한다. 문동과장을 구성하고 전승시킨 연희자들에게서 이런 태도가 읽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창조는 연희자 자신들뿐만 아니라 창조물을 관람하는 관객에게도 현실극복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했을 것이다.

문동과장에서 문둥이는 처음 비극적 존재로 등장한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듯 땅을 치거나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럽게 동작한다. 그런데 비극은 한 마디로 삶과 삶에 대한 의지를 긍정하게 만드는 핵심적 계기이다. 의욕이 상실되고 삶에의 의지가 부정되는 상태가 비극적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힘을 비극이 주는 것이다. 삶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 시키고 여기서 삶을 계속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며 특히 비극이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 예술이 관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삶의 긍정을 위한 결정적 수단이 공연에서 임혀져야 하는 것이다. 관객은 그 작품을 보고 삶이 자극되고 긍정되어야 한다. 당연히 연희하는 사람도 그래야 한다. 그래야 연희의 근본적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슬픔은 생물학적 생명의 보존과 유지 및 훼손과 소멸에 대한 대응기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자연인과적 현상으로 남는다. 여기서 생명 그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무비판적으로 전제된다. 그에 따라, 존재 그 자체와 관련된 인간의 자유인과적 결단능력은 생존본능이라는 자연적 사태와 명시적으로 동화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 한탄의 삶을 살아야 하는 문둥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명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이것이 확인된다. 문둥이는 슬픔에 분노하지 않고 동화되어 극복한다. 사회의 부정과 오류에 대해서도 발언하지 않는다. 문둥이로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이었을 수 있지만 문둥과장은 이러한 모습을 잡아내 작품을 만들었다. 문둥이의 이러한 행동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소고로 상징되는 신명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신명이 만들어 낸 도취작용이 문둥이라는 존재자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존재특성이 되었던 것이다.

신명은 현실을 넘어서는 힘이며 승화의 숭고함이 작동하는 지점을 만든다. 양반과장과 영감·할미과장은 현실의 문제점을 폭로하는데 집중하였지만 문둥과장은 현실의 질곡을 넘어서는 예술적 성취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의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객체나 단순한 표상의 대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란 인간의 상태를 철저히 어떤 기분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도취의 감정을 통해 존재자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자이며, 더 이상 주관론을 주장하지 않는다. 문둥이는 이처럼 삶의 가장 투명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상태, 즉 인간 현존재가 예술을 통해 이러한 기분에 젖어 있는 상태를 형식이라고 하는데 형식은 바로 도취라는 감정의 커다란 승리이기 때문이다.

도취의 감정으로 매개되어 아름다움을 느끼는 인간은 그런 아름다움을 창조적 영역으로 옮길 수 있다. 문둥이의 세상 인식이 아름다웠기에 문둥과장은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를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사유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힘에의 의지라는 존재자의 근본특징과 이러한 존재자의 특성에 대한 물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학적인 사유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존재자의 근본특징은 여러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존재론에서는 흔히, 파동이나 흐름 등으로 규정된다. 문둥이는 조상과 연결되어 있고 양반은 지배적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다. 양반은 종속적 상황을 보여주고 문둥이는 종속에서 빠져나오는 상황을 보여준다. 문둥이가 종속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신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양반은 지배적 가치관에 종속되고 이를 지키려고 할 뿐이다. 문둥이는 현실 조건에서 좌절하지 않고 현실을 새롭게 살려는 힘에 의지한다. 마치 이별의 슬픔을 희망으로 치환한 한용운 시의 '님'과 같은 의미로 문둥이가 작동된다고도 볼 수 있겠다. 양반과장이나 영감·할미과장은 세상에 대한 리얼리즘적 응시가 분명하다. 하지만 문둥과장은 이들 과장과 다른 태도를 취한다. 리얼리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대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은 삶에 유용하다. 예술이 도취에서 창조되는 경우가 많다. 평범한 안락 상태가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혹은 어떤 존재가 참을 수 없는 어떤 조건에서 탈출하고자 할 때 예술이 창조되는 경우가 많다. 도취는 일종의 신명이다. 신명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경우가 많다. 굿 연행에 도취됨으로써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마음이 충만하면 새로운 세계를 얻게 되는 것이다. 문둥이는 문둥이 친구를 만남으로

써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 문둥이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됨으로써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미의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다. 인간은 예술작업을 할 때 완전성과 풍족성을 느낀다고 한다. 문둥이가 이런 상태가 된 것이다. 문둥이에게 인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미에서 체험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예술은 인간을 계몽하기 않으나 예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술은 삶의 자극제이며 무목적적일 수 없다. 이전의 나를 부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날 때 예술이 된다. 자기희생을 통한 승화가 예술을 만든다. 삶의 투쟁을 통해 예술을 만든다. 문둥이도 삶의 투쟁을 통해 예술세계를 만들게 되었다.

낮설고 가혹해도 위기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문둥이에게서 읽힌다. 삶 자체를 긍정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존재에 감사하는 태도가 문둥이에게 있다. 예술가는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해 문둥이는 조용한 신명을 사용한다. 타악기가 급박하게 연주되는 속에서의 신명이 아니라 침잠 속에서 잠재태처럼 인식되는 신명이다. 신명은 현실의 어려움을 도취를 통해 이겨내는 것이다. 예술적 욕망이 인간의 존재이유다. 목적의 순수성-주인공들 위기에서 고통 속에서 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럴 때 관객은 주인공을 응원하게 된다. 일상적 고뇌를 삶의 형식 안에서 예술로 치환한 것이다. 문둥이는 삶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예술적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반드시 문둥이처럼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통을 이겨내고 시련을 승화시키는 예술적 태도를 지닌 존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반과장 등 지배체제 비판이 있는 곳에 그렇지 않은 문둥과장이 자리하였기에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는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문둥과장이 없었다면 완성도가 떨어졌을 것이다.

#### 4. 동적존재론-내적 독백을 통한 공연성 정립

두 민속극 속의 문둥이는 조선후기의 민중정신과 예술정신을 모두 가진 한 개인의 불안한 실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두 민속극이 형성된 것은 19세기말이지만 두 민속극에는 멀리는 조선시대 전반, 가까이는 조선후기의 정신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대가 싹트던 시기와 민속극이 형성되던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민속극과 근대사상은 서로 영향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봉건제적 시대에서 근대적 시대로 넘어가는 역동적 시대 흐름 속 민속극은 특히 문둥이는 이런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한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둥과장은 압축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도 담아야 하고 관련 서사도 담아야 하고 비판도 예술도 담아야 했지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최대한의 압축이 몸언어를 통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외치지는 않고 조용히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내적 독백 같은 표현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문둥과장에는 문둥이의 외적 행동보다는 내면의식이 반추되고 세밀하게 표현된다. 문둥이는 일반인과 다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센병 증상이 일반인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점에서 자신을 비극적 존재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문둥이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성오광대 문둥복춤은 황량한 들판에 선 외로운 존재자의 회한을 보여준다. 회한을 통해 과거를 생각하고 그 생각이 현재의 나를 관통한다. 관통은 의식이 흐름이고 이 흐름이 지금의 나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신명일 것이다. 도취적 신명이 문둥이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 춤으로 승화된 것이다. 문둥이 삶 속에서 느껴지는 세계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춤

사위 하나가 하나의 삽화이다. 문둥이 춤에는 외로운 삶을 서사하는 내적 단독자가 들어 있다.

현실의 벽과 차가운 시선에 갇혀 외로운 영혼, 어떤 것을 욕망하기도 전에 좌절되는 자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존재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끝은 죽음이 될 것이다. 죽음이 가져오는 삶의 끝에서 느끼는 절망감으로 문둥이는 현실에서 유리된다. 이런 모습은 인간 모두의 자화상이 될 것이다. 인간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된다.

문둥이는 신체장애로 일반인과 자연스런 소통이 차단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근원적 단절상황에 처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과 불화하는 인간의 좌절된 욕망을 상징한다. 인간은 일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신과 세계가 서로 괴리되는 한 순간을 즐기겠다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은 괴리의 한 순간을 욕망하지만 문둥이는 그 반대이다. 문둥이의 일상은 괴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문둥이의 욕망은 괴리를 극복하려는 욕구일 것이다.

인간은 억압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하지만 인간은 일상에 얽매인 채 살았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문둥이는 이러한 일반적 삶마저 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인의 탈일상 꿈이 문둥이에게는 절실한 희망인 것이다. 일반인과 문둥이의 공통점은 현실을 비극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대상과 관점은 다를지라도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점은 동일할 것이다. 즉 일반인과 문둥이 모두 비극적 현실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파괴충동으로 이어지고 이 충동 안에 신명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체는 대상에 의해 자신의 결핍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상을 추구한다. 그러나 대상에 의해 자신이 결핍이 해소된다는 믿음은 허상이다.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은 또 다른 대상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주체는 오로지 죽음을 통해서만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삶이란 욕망을 따라다니는 가련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욕망 해소에 집착하기에 현실을 지탄하고 왜곡한다. 문둥이의 조상이 양반이었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은 존재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양하다. 대상이 위치한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아와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겠다는 태도이다. 그 자리는 욕체가 머무는 물리적 자리인 동시에 영혼과 자존감이 깃든 정신적 자리이기도 하다. 자신과 타인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타인의 자리와 경계를 존중하는 적절한 태도는 다른 존재자를 배려하는 일이고 환대<sup>7)</sup>와 연결된다. 환대는 상대에게 배려되는 존중이고 영혼과 자존감이 깃든 태도이다. 동래야류에서 큰문둥이와 작은문둥이의 만남이 이와 같다. 문둥이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로 갈등을 겪는지, 내면은 어떠한지를 동래야류 고성오광대 전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으며 문둥이의 내적 독백이 흘러나올 것 같은 장면을 보여 준다. 현존재적 삶 속에 이전의 여러 기억들이 반추되면서 과거로부터 오는 여러 장면들을 현재적 관점에서 표현된 것이다.

문둥이들은 현실의 삶 속이나 함몰되지 않고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들이 새로운 삶으로 치환되는 욕망이 들끓고 있다. 이 욕망은 시련과 고통을 넘어서는 승화하면서 고독과 불안을 가슴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의지의 집합체다. 문둥과장은 문둥이 자체로의 의미이자 인간과 삶에 대한 발견을 준다.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게 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지배계층의 가치관을 비판하는 내용에 부속되는 과장이 아니라 당대 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과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문둥이가 보여주는 세계 인식

7)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26쪽

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차원을 보여준다. 조상이 잘못을 하여 천형을 받았다는 업보의 문화가 문둥이에게 들어 있지만 문둥이는 그 업보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서는 독립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문동과장은 새롭게 자리매김 된다. 당대 인간이 갖는 일반적인 존재자가 아닌 것이다.

동래야류 문둥이는 두 명이 등장한다. 서사가 담긴다. 두 명의 문둥이는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로 위치한다. 세계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각자는 상대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두 문둥이는 변화 속에서 흐름 속에서 상대를 통해 자신이 위치하고 있으며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 존재에 대한 통찰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문둥이는 개별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자이면서 존재함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묻고 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문둥이라는 존재자를 이해하게 된다.

인간은 서로 대상이 되는 타자다. 그러면서 인간애를 나누는 협력적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서로를 대상으로 바라보며 갈등하기도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들이다. 인간은 인간을 거부의 대상으로 보기도하지만 새로운 발견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함에 만족하면서 공존의 상태에 만족하기도 한다. 서로가 존재함으로 충족되는 관계가 인간관계인 것이다.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를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죽는 운명을 공유하는 존재자로 존재한다. 존재 자체만으로 존재이유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문둥이는 우리가 형성되며 이 형성은 무대 밖으로 점염된다. 관객들도 문둥이라는 존재와 함께 죽는 운명을 공유하는 존재자가 된다. 문둥이와 관객이 죽는 운명을 공유하면서 우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로써 존재의 소외로부터 벗어난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

유를 갖게 된다. 죽음의 공유에서 삶의 공유가 형성된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대상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인간은 이러한 대상의 존재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다. 흐름 속의 일부를 지각하여 전체와 대비하기도 하고 대상의 내면으로 인간의 자아를 투사시키기도 한다. 대상이 비었다고 가정하여 그 빈 곳으로 많은 존재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대상의 존재의미를 파악하기도 한다. 문동과장의 예술성은 민속극 해석의 의미를 확장시킨다. 양반과장이나 영감·할미과장의 핵심주제인 지배층 비판 외에 민속극의 예술성을 보게 한다.

예술은 감각들의 집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감각은 감정과 인식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주체가 갖고 있는 감정과 대상으로부터 오는 인식이 감각을 형성하고 이 감각들이 집적되어 예술을 형성하는 것이다. 세상에 숨어있는 여러 요소들을 감각이 포착하고 이를 형식화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다.<sup>8)</sup> 기존 이론에서의 예술은 인간의 삶과 세상의 여러 모습을 재현하는 장르라고 하였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재현이 아니라 감각이 잠재태를 포착하여 형식화 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시각도 있다. 감각을 통해 대상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대상이 되어 보는 감정이입 상태를 거쳐 예술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대상이라는 존재에 굳어지지 않고 존재의 지평을 넓히며 대상과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상황이 예술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삶과 예술을 재현하는 기존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인간지성에 역동성을 더 부가시킨 후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보고 예술을 창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성은 고정되기 쉽다. 배우고 익혀온 지성으로 삶과 세상을 구성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창조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동이 되어보기, 문동이 삶에 공감하기, 기존의 문동이 해석 관점과 크

8) 들뢰즈 저,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105쪽

게 변별될 요소는 없지만 조금의 다양함으로 문둥이를 바라본다면 문둥이를 바라보는 여러 감각들이 모여 하나의 과자이 된 것이다. 이는 연희자들의 감각집적이 만들어 낸 것이지만 결국 표현된 것은 문둥이를 통해서다. 연희자들의 창조정신이 현실의 예술적 요소들을 감각화하여 문둥과장을 만들면서 세상을 예술로 구성해 내야할 것이 너무 많아 이를 약화한 것이 문둥과장이었다. 다 말할 수 없었기에 대사없이 춤과 동작만으로 구성하였다. 쏟아 내야할 서사는 내면세계로 흐르게 하여 내적 독백처럼 느껴지게 하였다.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 문둥과장의 춤에서 삶의 과정을 발견한다. 춤에 동화되어 몰입되면서 쏟아 내야할 서사는 내적 독백처럼 흘러가게 하여 예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문둥이는 상대 문둥이라는 존재자에 몰입됨으로써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인식에서 벗어난다. 문둥이는 상대 존재를 계속 인식하면서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된다. 문둥이는 서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고독하지도 않으며 공동존재로 함께 있음을 확인한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발견이며 인간에 대한 발견이 된다.

민속극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의 고통과 모순을 보여주고 그림으로써 이 세계를 부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문둥과장은 민속극 전체의 비판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민속극이 양반의 타락과 부정한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문둥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면 민속극의 예술성이 확대되어 보이게 되고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에서 문둥이과장이 이전보다 더 비중 있게 인식될 것이다.

사물의 고유한 존재는 무엇보다도 예술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본다. 예술은 사물의 고유한 존재를 드러내면서도 다 길어내어질 수 없는 은닉과 신비를 함께 드러낸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사물이 더욱더 존재하게 된다.

존재론적 해석은 언어가 존재를 은폐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도 될 수 있다. 존재론적 해석은 존재를 드러내는 언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다고 본다. 존재를 드러내는 언어에서 사물은 자신의 풍요로움과 신비를 드러낸다. 문동과장은 몸의 움직임이 언어다. 언어와 존재 즉 문동과장의 춤사위와 여러 동작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민속극의 위상은 무엇인가. 민속극이 양반으로 상징되는 지배가치 전반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민속극을 무슨 위상으로 지배가치를 비판하는가. 민중들의 생각을 반영한 예술이라는 위상으로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이라는 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문동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성을 중시한 조선시대 정신세계와 맞서는 예술이다. 문동과장은 나중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민속극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공연예술도 문동과장에서 진정한 종합예술이 되었다. 문동과장에 와서 민속극은 진정한 공연예술이 되었다. 진정한 마당극이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도구로서의 표현이었다. 양반과장, 영노과장 등 대부분의 민속극 과장들에 공연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 과장에는 주제 전달을 위한 서사가 압축되어 관객을 억압한다. 그래서 예술화 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되었다. 문동과장은 이 일시정지를 해소하는 지시가 들어 있다. 그래서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는 문동과장의 다리를 지나 예술이라는 지점에 도달한다.

소외자적 인물도 동등한 개인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집단의 문제보다 개개인의 삶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고, 예술 속에도 평범하고 거의 무명에 가까운 반영웅(anti-hero)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술은 개인의 성격을 중시하는 동시에 한 인물의 개체적 특질을

세밀히 다루는 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외면적 행동보다 내면 세계를 보다 깊이 다루는 쪽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개인을 중시하는 예술이 중시되면서 나타난 예술흐름이 리얼리즘이다. 사물을 자세히 묘사하고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예술을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현실과는 거리가 상당한 경우가 많다. 예술의 다양함 속에 개인뿐만 아니라 인간이 제기할 수 여러 생각들을 예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문둥과장도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보인다. 양반과장과 영감할미과장을 통해 현실을 고발하고 진실된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요구하지만 이런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문둥과장을 통해 보여준다.

문둥과장은 영감할미과장이나 영감과장의 리얼리즘적 태도를 보완하는 과장이다. 조상이 양반이었는데 죄를 지어 그 자식이 문둥이로 태어났다는 점은 필연적이 않다.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근대적이지 않다. 유교적 합리주의가 오래동안 봉건제적 체제의 중요한 이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둥이의 전사는 예술이 가져야 할 실험적 태도를 보여준다. 한 인물의 특징적인 성격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들이 치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의식의 싹틔, 예술이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준다. 현실의 부정한 모습만으로 민속극 한 작품을 구성하기에 부족한 요소를 문둥과장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문둥과장만으로도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지만 민속극 전체의 리얼리즘 성격을 탐미적 형식으로 리얼리즘을 완성키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 것이다.

## 5. 결론

본고는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의 문둥과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문둥이

의 정적상황과 관련된 논의도 하였고 공연상황과 관련되는 동적상황과 관련된 논의도 하였다.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 속에서 문둥이는 인간을 비추는 현기증 같은 존재가 되었다.

민속극이 형성되고 공연되던 시기는 19세기 말로 근대사회가 형성되던 시기다. 19세기말과 그 이전을 바라보던 연희자들의 관점이 민속극에 들어 있는 것이다. 문둥과장에는 근대의식의 선편이 들어 있다. 그리고 민속극을 종합적 공연예술로 완성시키는 시작점도 문둥과장에 들어 있다. 문둥과장에는 비리얼리즘적 요소도 있고 민속극을 예술로 만드는 특성도 들어 있다. 삶의 고통과 시련을 신명으로 승화시키는 내용도 문둥과장에 나타난다. 문둥이가 된 전사에 업보적 요소가 들어 있는 점은 문둥춤의 서사와 관련되어 내적 독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탈춤판에서 문둥과장이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은 거의 없다. 이런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 문둥이의 존재론적 의미가 확산되고 민속극의 예술적 의미가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가진 한계와 운명의 힘 앞에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게 되어 문둥과장의 의미는 새롭게 읽히게 될 것이며 민속극에 대한 해석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예술은 세상으로부터의 인식이 만든 존재의 특성, 자기 자신 갖는 자신에 대한 존재의 특성에서 벗어날 때 창조된다. 예술세계의 창조에는 지적 태도와 상상력이 필요하다. 시련과 고통을 넘어서려는 극복의지가 만든 힘만으로는 안된다. 문둥과장은 세상이 만든 문둥이라는 존재적 특성과 문둥이라는 존재 자신이 만든 존재적 특성에서 벗어나 지적 태도와 상상력을 묶어 문둥과장이라는 예술적 과장을 탄생시킨 것이다.

## ■ 참고문헌

- 항규선, 「고성오광대 문동복춤 춤사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04.
- 허창열, 「고성오광대 문동복춤 춤사위 연구 :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15.
- 김지민, 「경남 지역 탈놀이의 변이 양상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2017.
- 심상교, 「민속극에서 웃음의 의미 연구」, 『공연문화연구』42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21.
- 심상교, 「민속극 표현방식과 극적 성격 재론」, 『우리어문연구』75집, 우리어문학회, 2023.
- 이기상, 『존재와 시간 :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살림, 2013, 50쪽.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26쪽
- 들뢰즈 저,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105쪽

## ■ 국문초록

본고는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의 문동과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문동과장의 정적상황과 관련된 논의와 공연상황과 관련되는 동적상황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동래야류와 고성오광대 속에서 문둥이는 인간을 비추는 현기증 같은 존재였다.

문동과장에는 근대의식의 선편이 들어 있고 종합적 공연예술이 시작된 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동과장에는 비리얼리즘적 요소도 있고 민속극을 예술로 만드는 지점도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삶의 고통과 시련을 신명으로 승화시키는 내용도 문동과장에 나타난다. 문둥이가 된 전사에 업보적 요소가 들어 있는 점은 문동춤의 서사와 관련되어 내적 독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었다.

탈춤판에서 문둥이는 신명의 중심에 있다. 소수자에 해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문둥이의 존재론적 의미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가진 한계와 운명의 힘 앞에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진 존재가 문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럴 때 세상으로부터의 인식이 만든 존재의 특성, 자기 자신 갖는 자신에 대한 존재의 특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술세계를 창조하게 된다. 문둥이는 이처럼 세상이 만든 존재적 특성과 자신이 만든 존재적 특성에서 벗어나 지적 태도와 상상력을 묶어 새롭게 문동과장이라는 예술형식을 만든 것이다.

주제어 • 문동과장, 동래야류, 고성오광대, 존재, 예술

## ■ Abstract

### Study on the ontological meaning of mundung(leper)- gwajang:

#### Focus on *Dongrae Yaryu* and *Goseong Ogwangdae*

Sim, Sang Gyo

This paper examines the *Dongrae Yaryu* and *Goseong Ogwangdae* acts of mundung(lepers)-gwajang. It can be said that leper theater contains modern consciousness and is the theater form where comprehensive performing arts began. It can also be said that there are elements of anti-realism in the performance of the lepers, and there is a point of making folk plays into art. The content of sublimating the pain and trials of life into spirits also appears in the acts of the mundung(lepers)-gwajang.

In the *Talchum*, the acts of the mundung(lepers)-gwajang are at the center of the deity. It is not an existence that corresponds to a minority. It is necessary to re-recognize the ontological meaning of lepers. The perception that lepers are beings who have the power to advance into a new world, rather than collapse in front of human limits and the power of fate, should be spread.

**Keyword • Act of Mundung-Gwajang, Dongrae Yaryu, Goseong Ogwangdae, Existence, Art**



# SF 영화에서 기억의 재현 혹은 허구의 기억을 포장하는 방식: 영화의 시청각적 표현 스타일을 중심으로\*

오 세 섭\*\*

## 목 차

1. 들어가며
2. SF 영화에서 기억의 역할, 그리고 재현 기법
3. SF 영화에서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
4. 맺으며

### 1. 들어가며

기억은 SF(Science Fiction)<sup>1)</sup>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SF 장르<sup>2)</sup>의 특성상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지적 생명체 및 안드로이드(Android)<sup>3)</sup>가

\* 본 논문은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개최한 2022 학술대회 “세계 SF장르 콘텐츠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과 강사

- 1) SF라는 용어는 1929년에 휴고 건스백이 만든 잡지 『어메이징 스토리』에서 시작되었다. 박상준 외,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케포이북스, 2016, 169쪽.
- 2) SF 영화가 정밀한 외삽(Extrapolation)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타워즈> 시리즈 등 일련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SF 영화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기반한, 넓은 의미에서의 SF 장르를 다룰 것이다.
- 3) 안드로이드는 『미래의 이브』(오귀스트 빌리에 드 릴아당)에서 나온 말로, 인간과 가깝게 생긴 로봇을 부를 때 사용한다. 전홍식·김창규, 『SF』, 북바이북, 2016, 52쪽.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계에서 인물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은 인간적인 것의 원형이자, 안드로이드의 녹음/녹화 기능과 구별되는 정신적 작용이라고 간주되는 듯하다.

그리하여 오래전부터 기억을 매개로 하는 SF 영화들이 만들어졌다. <블레이드 러너>(리들리 스콧, 1982)처럼 필립 K. 딕(Philip K. Dick)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이나 안드로이드, 복제인간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기억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거나 반전을 이끌어 내는 도구로, 혹은 자아정체성의 중요한 담보로 활용되곤 했다.

이런 영화에서 기억은 대부분 회상(Flash Back) 장면을 통해 표현된다. 기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건을 재현<sup>4)</sup>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영화는 시청각적 표현 수단을 사용하여 인물의 기억(그 인물이 본 사람, 장소, 사건 등)을 복원한다. 그리고 관객들은 영화가 만들어낸 장면을—그 기억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한 채—따라간다. 영화는 이런 식으로 관객의 시선을 붙잡으면서 내러티브를 진행시킨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복제인간(혹은 안드로이드)과 기억 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 문제를 아우르는 경우가 많았다.<sup>5)</sup>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기억과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접근보다는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 즉 영화의 양식적 표현 탐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SF 영화에 등장하는 기억이 언제나 진실을 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기억이 조작되거나, 허구의 기억이 주입되기도 한다. 주인공의 착각을 통해 이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현(再現)이란 “다시 나타남. 또는 다시 나타냄”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2.12.12.

5) 대부분 기억과 존재의 관계성을 탐구하였다(강순규 2011; 노시훈 2017; 박소현·함충범 2020; 이연향 2020; 천현순 2020·2021; 김재웅 2022). 그 외에, 비선형적인 시간 관점에서 미래의 기억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박영석, 2018).

야기가 진행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재현된 기억을 신뢰하며, 인물의 행동을 지지한다. 이것은 영화가 갖는 몰입감 때문이다. 영화는 영화만의 다양한 기법과 장치를 활용하여, 회상 장면을 실제인 양 재현하는데, 여기에 관객이 반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짜 기억/조작된 기억을 재현하는 영화 문법을 분석하고, 영화-관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각적 형상화, 편집 기법, 사운드의 활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재현과정에서 드러나는 SF 영화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기억의 재현에 시청각적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스타일의 관점에서 SF 영화의 양식을 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SF 영화에서 기억의 역할, 그리고 재현 기법

### 1) SF 영화에서 기억의 역할

기억의 사전적 정의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 또는 “사물이나 사상(事象)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sup>6)</sup>이다.

기억은 SF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등장인물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내러티브 진행을 위한 열쇠가 된다. 때로는 반전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표 1] SF 영화에서 기억의 역할

| 기억의 역할    | 영화 내용                        |
|-----------|------------------------------|
| 자아정체성의 판단 | 기억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거나 또는 의심함 |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2.12.18.

|        |                       |
|--------|-----------------------|
| 사건의 진행 | 기억을 따라가면서 사건이 진행됨     |
| 반전의 요소 | 숨겨진 기억이 드러나면서 반전이 일어남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F 영화에서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에서는 기억 삭제(Memory Erasure)와 기억 이식(Memory Implant)이 쉽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인물의 정체체가 뒤바뀌길 수도 있다.<sup>7)</sup> 사실 기억과 정체성 사이의 관계는 지금도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매라든지 기억상실증 같은 질병 때문에 기억을 잃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SF 영화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가정하여, 얼마든지 기억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설정하는 것이다.

기억은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파편화된 기억은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등장인물이 기억을 잃어버린 뒤 다시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거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은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기억이 반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잃어버린 기억 또는 숨겨진 기억이 드러나면서 진실이 밝혀진다. 여기서 반전의 대상은 인물의 정체 혹은 숨겨진 사건이다. 처음에 보여준 상황이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정반대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정체는 알고 보니 누구였다’라든가, ‘사건의 전말은 원래 이렇하다’라는 식으로 재정의 된다.

이렇듯 SF영화에서의 기억은 인간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장치로 활용되

7) 노시훈, 「SF 서사에 나타난 기억과 정체성의 모티프: 영화 <오블리비언>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Vol.18 No.1, 문학과영상학회, 2017, 128쪽.

는가 하면, 사건을 전개하거나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기억의 재현 방식은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2) 기억 재현을 위한 영화 문법

영화는 재현에 있어서 타 예술 장르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크게는 시각 요소와 청각 요소로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영화가 기억을 재현하는 감각은 문학 작품에서 문자로 이루어진 설명이나 묘사보다 실제적이다. 그리고 회화가 가진 평면적인 시각화를 넘어서 입체적인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다. 연극처럼 배우의 연기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하지만, 영화는 연극과 달리 시간과 장소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도 있다.

더구나 영화는 다양한 샷(Shot)과 앵글(Angle)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클로즈업 샷(Close-up Shot)이나 주관적인 앵글을 사용하여 연출자의 의도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sup>8)</sup> 카메라 움직임, 조명, CG와 D.I 등의 시각 효과를 이용하여 정교한 시각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서사적 편집을 통한 장면 구축은 물론이고, 몽타주(Montage) 기법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병치시킬 수도 있다.

영화에서 청각 요소는 더 교묘하게 기능한다. 영화는 대사, 음악, 효과음, 현장음 등에서 소리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소리를 추가하기도 한다. 특히, 대사는 감정의 전달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하여 대사를 통해 숨겨진 사실을 파악할 수도 있다.

---

8) 클로즈업 샷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지극히 영화적인 시점이다. 영화는 클로즈업 샷으로 확대된 이미지를 통해 숨겨진 공간을 암시하고,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며, 사물의 표정까지 드러낼 수 있다. 방기호, 「영화에서 클로즈업의 상징성 연구 - 이명세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형사 Duelist> 사례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0~28쪽.

[표 2] 기억의 재현 과정에 활용되는 영화의 양식들

| 영화 문법  | 내 용                                  |
|--------|--------------------------------------|
| 시각적 요소 | 샷 사이즈, 앵글의 종류, 카메라 무빙, 조명, D.I, 편집 등 |
| 청각적 요소 | 대사, 음악, 효과음, 현장음                     |

### 3) 기억을 재현하는 영화들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작품은 <토탈 리콜>(폴 버호벤, 1990)과 <페이책>(오우삼, 2003), <더 문>(던칸 존스, 2009)과 <오블리비언>(조셉 코신스키, 2013), 그리고 <산책하는 침략자>(구로사와 기요시, 2017)와 <애프터 양>(코고나다, 2021)이다.

위의 작품들은 대중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억이 중요한 모티브로 자리하고 있다. 영화에서의 기억은 다시 회상 등의 방법을 통해 재현된다.

이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기억의 재현 방식은 크게 시각적 형상화, 몽타주 기법, 영상 이미지의 저장과 재생, 대사에 의한 전언(傳言), 메시지 전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 문법을 사용하여 관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표 3] 분석 대상 작품들

| 영화 문법  | 작품 제목          | 감독       |
|--------|----------------|----------|
| 청각적 요소 | 산책하는 침략자(2017) | 구로사와 기요시 |
|        | 오블리비언(2013)    | 조셉 코신스키  |
| 몽타주    | 페이책(2003)      | 오우삼      |
|        | 애프터 양(2021)    | 코고나다     |
| 대사     | 토탈 리콜(1990)    | 폴 버호벤    |
|        | 더 문(2009)      | 던칸 존스    |

<산책하는 침략자>와 <오블리비언>에서는 신체에 침입한 외계인 혹은 복제인간을 통해 인간과 똑같이 생겼지만, 인간과 다른 타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체가 가진 기억의 진위를 탐색한다.

<페이첵>과 <애프터 양>의 경우, 떠오르는 기억을 장면 연결을 통해 보여준다. <페이첵>은 몽타주 기법을 활용하여, 인간이 기억을 떠올릴 때 심리적으로 느끼는 파편적인 경험을 시각화하였다. 반면에, <애프터 양>은 안드로이드의 하드에 담긴 메모리를 검색하다가 갑자기 조우하는 기억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 메모리 속에 담긴 영상물의 시각적 유사성을 통해 기억과 저장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토탈 리콜>과 <더 문>은 기억을 드러내는 방식이 앞선 영화들과는 조금 다르다. <토탈 리콜>은 시각화된 회상 장면 대신, 대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토탈 리콜>에서는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 기억이 재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문>에서는 상대방이 보낸 영상 편지가 등장한다. 이 영상에 담긴 메시지는 주인공의 가짜 기억을 강화하고,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작품을 분석하여, SF 영화가 어떤 식으로 기억을 재현하고 허구의 기억을 포장하여 드러내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화가 담고자 하는 주제와 기억의 재현 양상이 어떻게 결부되는지 파악할 것이다.

### 3. SF 영화에서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

기억은 주관적이다. 그리고 일방적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잠자코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러한 기억을 시청각적인 형상화를 통해 전달한다. 복제인간처럼 외형적으로 똑같은 캐릭터가 등장한다든지, 숨겨진 영상을 복원하여 보여주는 등 시각적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대사를 통해

설명을 곁들인다. 그러다 보니, 등장인물은 물론이고 관객들까지도 재현된 기억을 신뢰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기억의 재현 또는 허구의 기억을 포장하는 방식을 크게 시각적 형상화, 몽타주, 대사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 1) 시각적 형상화를 통해 표현되는 기억

### (1) <산책하는 침략자>: 형상화된 존재를 바라보는 입장

<산책하는 침략자>(구로사와 기요시, 2017)에서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외계 생명체가 등장한다. 이들은 인간에게 스며들어 신체를 빼앗은 뒤,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다. 겉모습은 실제 사람과 똑같이 때문에 다른 이들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다. 게다가 그 사람의 기억까지도 고스란히 살아 있다. <신체 강탈자의 침입>(돈 시겔, 1956) 이래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신체 강탈자(Body Snatcher)’ 영화의 전형이다.

<산책하는 침략자>의 초반부에, 나루미는 병원에 있는 남편 신지를 만나러 간다. 신지는 신지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소한 행동이나 표정은 조금씩 달라져 있다. 잡지를 거꾸로 들고 있다든지, 나루미에게 존댓말을 쓰기도 한다. 나루미는 이런 신지가 타인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진 못한다.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sup>9)</sup>

이후 신지가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 신지의 정체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하지만 그러는 것도 잠시, 신지가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 듯, “여기를 함께 걸은 적이 있어?”(신지), “아주 오래전에, 함께 슈퍼를 갔었지”(나루미), “오, 정말 오랜만이네.”(신지) 같은 말을 건넬 때, 다시 신지를 믿게 된다. 둘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sup>10)</sup>

9) 이것은 극중 인물뿐만 아니라 관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관객 또한 현재의 신지가 과거의 신지와 동일 인물일 거라고 생각한다.

10) 엄밀하게 말하면, 신지는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

하지만 여기에는 신지와 똑같은 외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억이 아무리 정확하다 한들, 그것이 신지의 모습을 한 인물이 아니라 네모난 상자였다면, 나루미(그리고 관객들)는 그것을 신지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기억을 매개로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식에서는 형상화가 필수적이다.<sup>11)</sup>



[그림 1]잡지를 거꾸로 들고 있는, 신지와 똑같이 생긴 외계 생명체

일반적으로 SF 영화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뒤, 관객을 유인한다. 물론 그 세계만의 규칙이 새로운 적용되기 때문에, 영화의 초반부에는 진입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장벽을 넘는다면, 영화가 만든 세계관을 쉬이 받아들일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각적 형상화다. <산책하는 침략자>와 같은 ‘신체 강탈자’ 영화들은 이러한 형상화를 통해 등장인물은 물론 관객까지 속이려 든다.<sup>12)</sup>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형상이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 번 이런 설정이 구축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기억 속의

---

를 들어, 신지는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신지는 그것이 나루미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루미를 대한다. 이것은 후술할 <애프터 양>의 기억/저장 개념과 정반대다. 신지는 기억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양은 저장하지만 그것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11) 그렇기 때문에 신지가 나루미에게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나루미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나루미로서는 눈앞의 신지가, 자신이 아는 신지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루미는 신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간주한다.

12) 게다가 영화는 1인 2역이나 CG 등을 통해 얼마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야기들은 모두 그 사람의 것이라고 믿게 된다.

**(2) <오블리비언>: 허구의 기억을 공유하는 복제인간**

조셉 코신스키의 2013년 작품 <오블리비언>은 인류가 모두 타이탄으로 이주한 뒤, 지구에 남아 바닷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시설을 관리하고 외계인 약탈자를 감시하는 49번 기술요원 잭 하퍼(이하 49번 잭 하퍼)의 이야기를 다룬다.

처음에는—주인공이나 관객들 모두—이러한 내러티브를 충실하게 따라간다. 49번 잭 하퍼와 짝을 이룬 빅토리아와의 관계, 임무 수행, 그리고 2주 후에는 지구를 떠나 타이탄으로 이주한다는 설정을 받아들인 뒤, 그들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바라본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49번 잭 하퍼는 ‘잭 하퍼’라는 인물을 원형으로 한 복제인간 중 하나였으며, 빅토리아 또한 ‘원형’ 빅토리아의 복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혹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가짜라는 사실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를 알기 전까지, 영화의 전반부 내내 주인공과 관객은 주인공이 지닌 허구의 기억을 쫓아간다.



[그림 2] 52번 잭 하퍼(좌)와 49번 잭 하퍼(우)가 조우하는 장면

결국 49번 잭 하퍼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52번 잭 하퍼를 만나는 순간, 49번 잭 하퍼뿐만 아니라 관객들 또한 이들이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를 위해서 톰 크루즈(Tom Cruise)가 1인 2역을 수행한 49번 잭 하퍼와 52번 잭 하퍼를 모두 비슷한 슛 사이즈(바스트 슛)로 촬영한 뒤, 앞

뒤로 연결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림 2 참조).

원래 복제인간은 자아정체성이 희미한 존재다. 얼마든지 복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화에서는 복제인간이 수행하는 업무와 기능도 서로 똑같다. 이는 언제든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52번 잭 하퍼의 기지에 있는 빅토리아가 49번 잭 하퍼를, 마치 52번 잭 하퍼처럼 대하는 장면을 보면서 섬뜩함을 느끼게 된다.<sup>13)</sup>

결과적으로 49번 잭 하퍼는 수많은 복제인간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번 잭 하퍼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시점에서 반복되는 기억들 때문이다. 49번 잭 하퍼는 계속해서 줄리아에 관한 꿈을 꾸다. 그리고 꿈속에서 줄리아를 사랑한다. 주인공의 꿈에 등장하는 기억은 당연히 주인공의 기억일 수밖에 없다는 일반론에 덧붙여 강력한 시각 재현까지 동반되면서, 관객은 그 기억이 당연히 49번 잭 하퍼의 것이라고 간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실제 잭 하퍼의 아내인 줄리아의 태도이다. 49번 잭 하퍼의 기억 속에 줄리아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는 걸 알게 되자, 줄리아는 마치 원형 잭 하퍼에게 하듯 49번 잭 하퍼를 대한다. 그리하여 49번 잭 하퍼와 사랑을 나누고, 그의 아이를 출산한다. 줄리아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 한 원형과 복제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오블리비언>에서 복제인간은 처음에는 허구의 기억을 이식 받았지만, 그 기억 속의 감정까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원형과 똑같은 정체성을 갖는

---

13) <블레이드 러너>(리들리 스콧, 1982), <아일랜드>(마이클 베이, 2005), <더 문>(던칸 존스, 2009) 등의 영화처럼, 자신이 복제인간인지도 모른 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영화는 SF 영화에 자주 다뤄왔던 소재이기도 하다. SF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복제인간은 자아정체성이 희미해진 현대인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들은 직장이나 조직에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다. 그리하여 49번 잭 하퍼는 마치 질 들뤼즈(Gilles Louis René Deleuze)의 시뮬라크르(Simulacre)처럼, 독자성을 가지는 복제품이 된다.<sup>14)</sup>

## 2) 몽타주를 통해 복원되는 기억

### (1) <페이책>: 파편화된 기억의 형상

<페이책>(오우삼, 2003)의 주인공 제닝스는 업무상, 자신의 기억을 수시로 지우는 인물이다.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비밀스러운 업무를 수행하고, 비밀유지 차원에서 일정 기간의 기억을 삭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던 어느 날, 3년 계약의 일을 마치고 3년의 기억을 지운 뒤 돌아온 제닝스는 그가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 예를 들면 9천2백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포기하고, 불법 사업과 관련한 특허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혹감에 빠진다. 이렇게 <페이책>은 기억을 삭제한 주인공이 과거의 자신이 벌인 행적을 추적하는 이야기이다.

함정에 빠진 제닝스는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만, 삭제된 기억은 파편화되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페이책>에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할 때,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표현한다. 우리가 또렷하지 않은 기억이라든가 흐릿한 사실을 떠올릴 때 정확하지 않은 형상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간다고 느끼는 것처럼, 몽타주 기법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불규칙하게 연결하고 있다.

---

14) 이에 대해 노시훈은 기억을 되살려낸다면 “아무리 많은 복제인간이라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시훈, 앞의 논문, 2017, 135~136쪽. 그러나 모두 같은 기억을 가진 복제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개별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획일적 존재에 가까울 것이다. 이것은 <신체 강탈자의 침입>(돈 시겔, 1956)이나 <패컬티>(로버트 로드리게즈, 1998)에서 같은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는 외계인들이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이것은 인격 동일성(Personal Identity) 혹은 인격 정체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수많은 복제인간 잭 하퍼에게 원형 잭 하퍼와 동일한 인격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원 외,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학』, 한울아카데미, 2021, 265쪽.



[그림 3] <페이чек>에서 파편화된 제닝스의 기억 이미지

[그림 3]은 제닝스가 떠올린 기억의 조각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이다.

짧은 이미지 인서트(#1)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과거장면을 특정하기 위한 색보정(#2)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클로즈업 샷(#3), 프리즈 프레임(#4), 줌 인(#5),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6) 등을 통해 파편화된 기억을 표현했다. 이러한 기억의 흐름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복 재생되어, 관객으로 하여금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제닝스의 노력에 동조하는 한편, 그 이미지들 속에서 실마리를 찾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재현에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기 때문에 그를 함정에 빠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아울러, 그 기억조차도 정확한 기억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공의 선악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페이чек>에서 기억의 재현은 미스터리 장르의 규칙을 따른다. 중요한 정보를 감추는 방식으로 진실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페이чек> 속에 등장하는 미래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기억을 삭제할 수 있고 삭제한 기억을 복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가짜 기억을 삽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페이чек>에서 기억이란 매우 가변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다 보니, 연인인 레

이철크를 기억하지 못하는 제닝스가 레이철크처럼 분장한 뒤 제닝스를 속이려는 여자와 키스한 뒤, 거꾸로 레이철크를 기억해 내는 일이 발생한다.



[그림 4] 레이철크와 키스하는 제닝스(좌),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제닝스(우)

영화에서는 두 여자와 키스하는 제닝스의 모습을 똑같은 샷 사이즈와 앵글로 촬영했다. 하지만 색감을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기억 속의 장면과 현실 속의 장면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것은 명백히 관객을 위한 장치지만, 화면 속 당사자인 제닝스도 관객과 똑같이 이질감을 느낀다.<sup>15)</sup> 이렇게 두 여자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앵글과 샷 사이즈, 색감을 이용한 것이다.

<페이첵>에서의 기억은 서사적 편집이 아닌, 몽타주 기법을 통해 표현된다. 이것은 주인공과 관객에게 파편화된 이미지를 남기고, 미스터리 구조를 심화시킨다. 실제로 우리의 기억이 그러하듯, 불안정한 기억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2) <애프터 양>: 기억과 단순 저장의 차이

<애프터 양>(코고나다, 2021)에서는 안드로이드 '양'이 중심인물이다. 어느 날, 가족처럼 지냈던 양이 작동을 멈추자, 제이크는 양을 고치기 위해 이곳저곳을 수소문한다. 그러던 중, 양의 몸속에 불법 저장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제이크는 저장장치를 재생하여 양의 과거를

15) 결정적으로는 레이철크로 분장한 여자의 눈동자를 보면서, 레이철크의 눈동자를 떠올리고 다시 레이철크를 기억해 낸다. 가짜가 진짜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를 떠올리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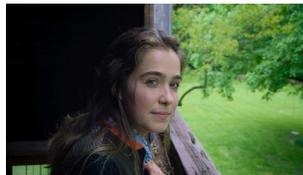
살펴본다. 영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억의 의미, 단순한 복사/저장과의 차이를 고찰한다.

사실,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sup>16)</sup>해 낸다는 기억의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기억과 복사/저장과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애프터 양>에서도 마찬가지다. 안드로이드인 양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본 것을 저장할 수 있다.<sup>17)</sup> 그러므로 양이 녹화한 영상은 블랙박스의 동영상처럼, 단순히 기계장치의 영상 저장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양이 자신의 고유한 기억을 남겼으며, 그런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면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적 생명체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렇게 영화는 양의 남긴 영상물이 단순 저장인가 고유한 기억인가를 추리하는 식으로 흘러간다.

여기서 양이 남겨놓은 영상물이 양의 온전한 기억이라는 사실은 시각적 형상화를 통해 드러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에이다’라는 인물의 형상화다. 안드로이드인 에이다는 제이크가 양의 저장장치를 탐색하다가 발견한 캐릭터로,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림 5] 안드로이드 에이다(좌)와 인간 에이다(우)를 바라보는 양의 시선

단순하게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양이라는 (남성) 안드로이드가 에이다라는 (여성) 안드로이드를 좋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실, 이것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3.01.19.

17) 물론 이 영화에서는 안드로이드의 기억 저장장치가 인간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저장을 금지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만으로도 안드로이드의 일반적인 습성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드로이드에게는 이성적인 호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제이크는 양이 저장한 다른 영상물을 찾아보다가 에이다가 양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다.

아주 오래전에 저장한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에이다와 똑같이 생긴, 인간 에이다가 등장한다. 당시 양은 인간 에이다의 일생을 함께 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여성을 원형으로 삼은 안드로이드 에이다에게 친밀감을 나타낸 것이다. 제이크와 관객들은 인간 에이다, 그리고 인간 에이다와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 에이다를 기록한 영상물을 보면서, 에이다에 대한 양의 감정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숲 사이즈와 앵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 인간 에이다를 바라보는 양의 시선과 안드로이드 에이다를 바라보는 양의 시선은 비슷하다. 이러한 화면의 반복을 통해 두 명의 에이다에 대한 양의 감정이 유사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sup>18)</sup>

두 번째는 공간의 형상화다. 양은 에이다가 있었던 장소와 에이다가 없는 장소를 모두 저장하는 방식으로, 에이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일례로 [그림 6]에서처럼, 에이다가 있었던 장소와 없는 장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앵글과 숲 사이즈를 활용함으로써 에이다의 존재와 부재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양의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6] 인간 에이다의 존재/부재를 드러내는 공간 기억

18) 구체적으로는 측면 부감 바스트 숲으로, 마치 양이 보호자의 시점에서 두 에이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영화에서는 먼저 안드로이드 에이다에 관한 양의 기억을 보여주고, 이후에 인간 에이다를 보여줌으로써, 인간 에이다에 관한 애정이 시간이 흘러 안드로이드 에이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서 시각적 형상화뿐만 아니라 숲의 크기와 앵글을 통해, 감정의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애프터 양>은 기억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동일한 형상, 양의 시선을 통해 반복되는 숲 사이즈와 앵글 그리고 존재/부재의 풍경을 통해, 안드로이드 양이 단순 저장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 판단을 통해 선택 저장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인간의 기억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다.<sup>19)</sup>

### 3) 대사 속에서 주조되는 기억

#### (1) <토탈리콜>: 전언(傳言)을 통한 재현

<토탈 리콜>(폴 버호벤, 1990)의 주인공 퀘이드는 앞서 살펴본 <오블리비언>의 49번 잭 하퍼나 <페이첵>의 제닝스처럼 기억을 삭제한 (혹은 삭제당한) 인물이다.

영화 초반, 평범한 노동자로 등장하는 퀘이드는 화성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만 아내의 반대에 부딪힌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리콜이라는 여행사를 찾아간다. 이 여행사는 뇌 속에 가짜 기억을 주입하여 마치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기억을 꾸며주는 곳이다. 하지만 퀘이드는 기억을 주입하던 도중, 발작을 일으키고 만다. 이미 화성에 다녀온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퀘이드는 이런 사실이 기억에 없다.

<토탈 리콜>에서는 퀘이드의 기억이 시각적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따

---

19) 양이 저장한 영상물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게 인간의 관점일 수도 있다. 영화 속에서 안드로이드 에이다는 제이크에게 인간은 늘 자신들 위주로 생각한다고 비판한다.

라서 기억의 영화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회상(Flash back)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이 자리를 전언(傳言)이 채우고 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의 대사로 채우는 것이다. <토탈 리콜>은 주인공의 기억이 아니라 타인의 기억으로 본인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다 보니 <토탈 리콜>은 SF 액션 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퀘이드의 기억에 관해서만큼은 미스터리 구조를 택하고 있다. 과연 퀘이드는 화성 비밀요원인가? 아니면, 악당의 하수인이었다가 정의의 편으로 돌아선 영웅인가? 혹은 정의의 편으로 돌아선 척하고는 반란군을 잡으려 한 진짜 악당인가? 어찌면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는 리콜이라는 여행사에서 화성과 모험이라는 테마에 맞게 주입한 가짜 기억일 수도 있다.

연출자는 이러한 내러티브를 진행하기 위해 대사를 활용한다. 시각적인 효과는 액션에 집중하고, 미스터리 구조는 음향(대사)을 활용하는 식이다. 그리하여, 전언을 통한 기억의 재현은 퀘이드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함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20)</sup> 게다가 사람들마다 퀘이드에 대한 의견이 모두 다르다. 한쪽에서는 그가 선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착한 척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도 들린다.<sup>21)</sup>

이렇게 <토탈 리콜>은 시각적으로 재현하지 못하는 기억의 신뢰성을 매개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영화에서 기억은 정확하게 재현되지 않는다. 마치 말로 쌓아 올린 형상과 같다. 실체는 보이지 않고, 실체를 설명하는 말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관객은 그 진실을 알 수 없다.

---

20) 거꾸로 말하면,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기억/사건은 관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본문에서 다룬 <산책하는 침략자>, <오블리비언> 같은 영화를 그러하다.

21) 본인이 본인에게 쓴 영상편지가 두 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화면 속 주인공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림 7] 두 개의 영상편지에 등장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

<토탈 리콜>은 2084년을 배경으로 지구와 화성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주인공의 기억을 봉인한 채, 주변 인물을 통해서만 주인공의 과거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진실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이 영화에서는 기억을 재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억을 활용한다.<sup>22)</sup> 그리고 이것은 의혹을 증폭하는 소문이 되어 인물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 (2) <더 문>: 한 방향 메시지와 착각

<더 문>(던칸 존스, 2009)의 주인공 샘은 3년 동안 달에 파견된 노동자다. 그는 달 표면에서 청정에너지를 채취하여 지구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샘은 지구에 남겨둔 아내와 딸이 있는데, 통신위성의 고장으로 연락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영상 메시지를 녹화해서 주고받으며 지낸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샘은 3년짜리 수명을 지닌 복제인간이었다. 아내와 딸은 심어놓은 기억이며, 가족이 보낸 영상 메시지는 샘에게 주입한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가짜 정보에 불과했다. 이를 모르는 샘은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기억을 가진 채, 영상메시지를 보면서 가족을 그리워하고, 기지 안의 인공지능 컴퓨터인 거티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3년의 수명을, 오직 노동을 위해 사용한다.

처음 영화를 보는 관객은 샘의 사정을 알 수 없다. 다만, 아내인 테스와

---

22) 퀘이드가 직접 등장하는 회상 씬이 없었다 뿐이지, 사람들의 전언과 소문은 모두 퀘이드를 옆에 두고 이야기 된다. 그러므로 퀘이드의 존재(시각적 요소) 또한 일정한 역할을 한다.

아주 어린 딸 이브가 있다는 사실을 거티와 샘의 대화를 통해 전달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건, 녹화된 영상 메시지다.



[그림 8] 아내와 딸이 보낸 영상 메시지를 확인하는 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영상 메시지가 실시간 쌍방 소통이 아닌, 한 방향의 전달이라는 점이다. 영화 속에서 가족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샘의 기억 외에는 이 영상 메시지(그리고 가족사진) 밖에 없다. 영상 속에서 샘의 아내 테스는 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딸을 무릎에 앉혀 놓고는 아빠에게 인사를 하라고 말한다. 이런 방식은 메시지를 받는 당사자가 샘이라고 확신하게 만든다.

만약 한 방향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나 영상 통화처럼 실시간 소통이었다면, 이 메시지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sup>23)</sup> 하지만 녹화된 메시지의 전달은 기억의 조작을 감추고, 오히려 그 기억을 공고화하였다.

<토탈 리콜>의 주인공 퀘이드가 주변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 미지의 기억을 형상화하였다면, <더 문>에서는 일방적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가짜 기억을 확인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사를 통해서 기억을 재현하거나 허구의 기억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마치 현대사회의 정보 전달 형태를 보여주는 듯하다.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를 받는다. 특히, 영상화된 메시지는 시각적 재현을 통해 정보

23) 영화의 후반부에서 샘은 지구에 있는 딸 이브와 영상 통화를 한다. 샘은 어린 나이가 아닌, 15살이 된 이브를 보면서,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의 신빙성을 높이려 한다. 그리고 <더 문>에서 샘이 그러했듯이, 수용자는 그 메시지를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방적인 메시지의 전달은 오류를 일으키기 쉽다.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4. 맺으며

본 연구에서는 SF 영화에서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했다. 영화 속에서 기억을 이야기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영상이나 사운드(대사)를 통해 기억을 재현하는 장면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관객은 기억이 스크린에 재현되는 순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내러티브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영화를 향유하면서 얻게 된 습관이기도 하지만, 영화 자체가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시청각적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영화의 모든 장면은 재현이다. 시나리오의 지문과 대사가 배우를 통해 재연(再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영화 기법이 사용된다. 클로즈업 샷을 선택하고 외재음을 삽입하는가 하면, 정교한 세트와 CG를 이용하여 영화 속 이야기가 ‘그럴듯하다’라고 믿게 만든다. 특히 SF 영화처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낯선 생명체와 규칙이 등장하는 경우,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재현 양식을 추구하려 한다. 이렇듯 철저하게 양식화된 SF 장르에서 기억을 얼마나 세련되게 표현하는가의 문제는 주제적 의미의 구현은 물론이고, 영화 전체의 완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섯 편의 SF 영화를 분석하였다. 신체를 강탈한 외계인과 복제인간을 통해 시각적 형상화와 기억의 재현과의 관계를 살펴봤으며, 단순 동영상 저장과 기억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파편화된 기억을 표현하는 몽타주 기법을 분석하였으며, 전언만으로 이루어진 기억의 재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기억을 재현하는 영화적 기법의 종류

와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도 있다. 본문에서는 주로 시청각적 표현을 중심으로 기억 재현의 양식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작품의 범위를 좁혀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대신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는데 머물렀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주제, 캐릭터의 심리, 내러티브의 전개 등 세부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의 이론을 바탕으로 SF 영화의 재현 양상을 탐구할 것이다.

기억과 정체성의 연관성은 흥미로운 주제다. 최초의 SF 소설이라 할 『프랑켄슈타인』(메리 셸리)에서부터 기억과 정체성을 연관 짓는 시도가 있었다. SF 영화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고 기억을 더듬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다. SF 영화 속 세계는 기술문명이 발전했지만 윤리의 한계는 사라진 디스토피아인 경우가 많다. 그곳에서는 복제인간과 안드로이드가 등장하고, 개인의 기억 삭제와 이식이 자유롭게 일어난다. 이런 세계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이기 마련이다.<sup>24)</sup>

이렇듯 SF 영화는 인간이 상상하는 미래 사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뒤, 영화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한다. 그속에서 구현된 기억은 실제보다 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혹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영화가 가진 특성이자 매력이지만, 인간 그리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

24) 이것은 현대인의 불안이 반영된 결과다. 조직화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영화 속 복제인간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모든 영화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불안과 공포는 당대 영화에 고스란히 담긴다. 오세섭, 『공포영화, 한국 사회의 거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20, ix쪽.

## ■ 참고문헌

### 단행본

데이비드 보드웰·크리스틴 톰슨 저, 주진숙·이용관 역, 『영화예술』, 이론과 실천, 1996.

박상준 외,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케포이북스, 2016.

오세섭, 『공포영화, 한국 사회의 거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20.

이중원 외,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학』, 한울아카데미, 2021.

전홍식·김창규, 『SF』, 북바이북, 2016.

### 논문

강순규, 「비인간적인 인간과 인간적인 복제인간 - 영화 <블레이드 러너>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Vol.4 No.2,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11.

김재웅, 「인공지능, 기생화된 타자아와의 대화? -영화 <업그레이드>에서 스템의 생존방식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No.66,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22.

노시훈, 「SF 서사에 나타난 기억과 정체성의 모티프: 영화 <오블리비언>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Vol.18 No.1, 문학과영상학회, 2017.

박소연·함충범, 「2010년대 할리우드 영화 속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적 존재 양상 연구: <그녀>(2014), <블레이드 러너 2049>(2017),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2017)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Vol.16 No.3,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20.

박영석, 「드니 빌뇌브의 <컨택트>에서 드러나는 비선형적 시간 지각과 자유의지의 문제」, 『영화연구』 No.75, 한국영화학회, 2018.

방기호, 「영화에서 클로즈업의 상징성 연구 - 이명세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형사 Duelist> 사례연구」, 흥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2006.

이연향, 「<루시드드림>과 <메모리즈>를 통해 본 꿈과 가상현실에 대한 분석」, 『아시아영화연구』 Vol.13 No.2,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0.

천현순, 「몸·기억·자아 - 사이언스 픽션 속 합성인간의 자아정체성 문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No.42, 한국브레히트학회, 2020.

천현순, 「새로운 몸, 이식된 정신 - SF 영화에 재현된 정신전송과 자아 동일성 문제」, 『獨逸文學』 Vol.62 No.4, 한국독어독문학회, 2021.

### 인터넷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다음영화, <https://movie.daum.net>

### 영화 자료

<더 문 Moon>(던칸 존스 Duncan Jones, 2009)

<산책하는 침략자 Before We Vanish>(구로사와 기요시 黒沢 清, 2017)

<오블리비언 Oblivion>(조셉 코신스키 Joseph Kosinski, 2013)

<애프터 양 After Yang>(코고나다 Kogonada, 2021)

<토탈 리콜 Total Recall>(폴 버호벤 Paul Verhoeven, 1990)

<페이чек Paycheck>(오우삼 吳宇森, 2003)

## ■ 국문초록

인간과 복제인간,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인격체가 존재하는 SF 영화에서는 등장인물의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의 기억은 영화적 기법을 통해 회상 장면으로 재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을 시각적 형상화, 몽타주, 대사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SF 영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억의 재현 기법이 어떤 식으로 관객에게 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산책하는 침략자>(2017)와 <오블리비언>(2013)에서는 시각적인 유사성을 통해 기억의 진실과 허구를 뒤섞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페이백>(2003)과 <애프터 양>(2021)에서는 회상 장면을 등장하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감춰진 기억을 찾는 과정을 담았다. 그리고 <토탈 리콜>(1990)과 <더 문>(2009)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을 담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된 기억은 자아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사건을 진행하는가 하면, 반전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회상 장면에서 나타난 영화의 표현 기법을 알 수 있으며, 재현의 완성도가 관객의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SF 장르, 기억, 자아정체성, 재현, 회상

## ■ Abstract

### Representation of Memories or The Way of Embellishing Fictional Memories in SF Films: Focus on the Audio-Visual Expression Style of Film

Oh, Se Seop

In science fiction (SF) films where various personalities such as humans, cloned humans, and androids exist, the memory of the characters often plays an important role. Their memories are represented as flashback scenes through cinematic techniques.

In this study, the methods of representing memories are classified into visual imagery, montage, and dialogue, and corresponding SF films are examined. Then I look into how the representation technique of memory works on the audience.

In *Before We Vanish* (2017) and *Oblivion* (2013), a method of mixing the truth and fiction of memories was used through visual similarity, and in *Paycheck* (2003) and *Miss Yang* (2021), the process of finding hidden memories appears by changing the time when the flashback scene is put in. In *Total Recall* (1990) and *Moon* (2009), there are scenes in which memories of the past are recalled through the words of others.

Memories represented in various ways become a criterion for judging self-identity, progressing an event, or becoming an element of reversal. Ultimately, memories convey the theme the film wants to talk about.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know the expression technique of flashback scenes shown in movies, and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completeness of reproduction on the audience's immersion.

**Keyword • SF genre, memory, self-identity, representation, reminiscence**

■ 논문투고일:2023. 02. 14. ■ 심사완료일:2023. 03. 15. ■ 게재확정일:2023. 03. 23. ■

# 영화 <파이트 클럽> 주인공의 정신질환과 극복과정 -라캉철학을 중심으로-

전 범 수\*

## 목 차

1. 서론
2. 자크 라캉의 정신 분석학
3. <파이트 클럽> 주인공 잭의 정신질환과 극복과정
4. 결론

### 1. 서론

영화 <파이트 클럽>의 주인공 잭 (에드워드 노튼 역)은 조용히 일만 하며 사는 평범해 보이는 독신남이다. 그러나 그는 일상의 반복 속에 공허함을 느끼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브랜드 가구와 옷 등을 구매하며 소비를 통한 쾌락을 추구한다. 물질적인 쾌락을 통해서도 불면증이 전혀 나아질 기색이 없자, 잭은 색다른 자극을 위해 말기 암 환자 흉내를 내며 가짜 이름표를 달고 환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그는 출장 중 비행기에서 멧쟁이 비누 사업가인 타일러 더든 (브래드 피트 역)을 만나게 되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 대한 그만의 저항

\* 목원대학교 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 게임콘텐츠학과 조교수

적인 시각에 매료되어 타일러와 함께 “파이트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든다. 이 모임에서는 참여자들이 낯선 자와의 피 튀기는 맨손 싸움을 통해 날 것 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잭은 태어나 처음 경험해 보는 일탈감을 느끼고 타일러와 함께 점점 모임의 규모를 넓혀간다. 그러나 육체적인 충돌을 통한 지루한 일상에서의 도피를 추구했던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파이트 클럽은 설립자인 잭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조직으로 발전하며, 타일러의 주도하에 사회에 대한 폭탄 테러 행위 등을 기획하며 이를 통한 물질만능주의 사회로부터의 근본적인 해방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영화 <파이트 클럽>을 평하며 심리학자 슬라보 지젝은 이렇게 말했다: “해방은 아프다.”<sup>1)</sup> “해방”이라는 단어는 항상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우리 민족은 “해방”이 되었다 하고, 수많은 입시생, 고시생들은 시험이 끝남을 “해방”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의 “해방”이 아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지젝이 말하는 해방의 고통은 영화에서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주인공 잭의 심리적인 아픔을 이야기한다. 본 연구는 영화 <파이트 클럽> 주인공 잭의 내면을 라캉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지젝이 말한 “해방의 아픔”을 라캉이 정립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우선, 본 연구는 라캉이 나눈 인간 정체성의 3가지 영역, 상상계, 상징계, 그리고 실재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파이트 클럽> 속 잭의 정신 상태의 변화 과정을, 도착증, 정신병, 실재계로의 진입, 세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영화 속 타일러 더튼과 말라 싱어(헬레나 본햄 카터)의 특성을 설명하여 파이트 클럽을 통한 잭의 상

---

1) Eric Dean Rasmussen, Liberation Hurts: An Interview with Slavoj Zizek, Electronic Book Reivew, 2022.10.02.

징계로부터의 해방은 왜 실재계의 진입이라 볼 수 없는지, 그리고 잭이 결국 어떻게 실재계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 2. 자크 라캉의 정신 분석학

### 1) 상상계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원하는 이상향을 찾아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수진의 연구<sup>2)</sup>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어린아이들이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나’라는 정체성의 개념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본인의 완전한 신체를 처음으로 보면서, 이상적 나에 대한 상상적 이미지이자 타자에서 귀환한 이미지들의 집합인 ‘이마고’를 형성한다. 이것은 존재의 완벽함에 감탄하는 나르시시즘적인 순간이며, 이 순간은 아이가 “상상계”에 진입하는 순간이다. 또한, 이수진은 ‘이마고’와 현실 속에서 보이는 부족한 자신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유사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상상계의 특징이라 설명한다. 상상계에 머물러 있는 시기의 아이(6개월 - 18개월)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가장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욕망은 결국 자신의 욕망이 되고 이것을 자신의 순수한 욕망이라 착각한다. 결국 상상계 단계에서의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는 아이에게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쾌락의 수단이다.

### 2) 상징계

상상계 단계부터 ‘나’라는 정체성은 타인의 이미지에 의해 형성 되듯이

---

2) 이수진, 「라캉의 나르시시즘 개념 고찰의 정신분석 실천적 의미」, 『현대정신분석』 21권 2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9, 91-93쪽.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외적인 사물 혹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존재들을 “타자”라고 칭하며, 라캉은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외부 세력을 통틀어 “대타자”라 정의한다.<sup>3)</sup>

지젝의 저서 『How to Read Lacan』에서,<sup>4)</sup> 지젝은 라캉의 “대타자”를 체스 게임의 룰에 비유하며 설명한다. 체스에서 왕, 여왕, 포차 등의 캐릭터들은 각각 특정한 룰을 내포한 상징물으로써 체스 게임을 지배하듯이, 인간 세계에서도 우리는 언어의 문법 혹은 예의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여겨지는 제스처나 말투와 같은 상징적 요소들에 종속되어있지 않은가? 상징들이 모여 우리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욕망을 지배하며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게임의 룰인 “대타자”란 결국 상징적 질서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대타자의 상징적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가 결국 “상징계”이다.

원수현의 연구<sup>5)</sup>에 의하면 인간이 어머니와 유일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아이는 아버지의 존재를 통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머니는 자신과 동일인이 아닌 타자, 즉 자신과 구별되는 독립된 객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존재는 아이가 어머니가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이 환상임을 자각하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는 아이가 어머니의 품 밖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범을 적용하며 아이를 훈련한다. 이렇게 아버지의 상징적 질서는 아이의 생각과

3) 배우리,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과 뉴미디어아트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0-26쪽.

4) Slavoj Zizek, How to Read Lacan, W.W. Norton & Company, 2007, pp. 7-9.

5) 원수현, 「라캉의 도착증 구조와 현대 정신분석의 경계선 구조 비교 고찰」, 『현대정신분석』 19권 2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7, 149-179쪽.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대타자”인 사회가 제시하는 상징적 질서를 따르며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

### 3) 실재계

인간의 욕망은 ‘상징계’인 사회의 여러 규범에 의해 다스려진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위해 수면시간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고, 안정적인 수입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곳에 취업하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조건에 맞는 상대와 결혼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상징계 안의 법과 질서로 다스려지고, 우리는 충동적 욕망을 계속 억제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살아간다고 착각한다.

배우리의 연구에 따르면<sup>6)</sup> 라캉은 기존의 상징적 질서, 즉 굳어진 기의와 기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기존의 기의가 적용되지 않는 불안정한 언어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곳이 ‘실재계’라 한다. 상상계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본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허구적 주체이고, 사회의 규범과 도덕을 따르는 상징계의 주체는 모방적 주체라면, 실재계의 주체는 끊임없이 기존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하며 새로운 의미를 무한하게 창출해 나가는 주체라는 의미이다. 즉, 실재계는 대타자인 사회의 규범을 넘어 자신만의 독자적인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단계이다. 또한, 라캉은 대타자가 사라짐으로써 기존의 주체가 상실되는 과정을 ‘소외’라 정의하고, 이 과정에서 주체의 결여를 인지하고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찾아내어 대타자의 결여를 메우기 시작하는 것을 ‘분리’라고 한다.<sup>7)</sup> 외와 분리의

6) 배우리,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과 뉴미디어아트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5쪽.

7) 김숙현, 「라캉의 주이상스 주체로 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한국연극학』 38권, 한국연극학회, 2009, 40-41쪽.

과정을 거쳐 인간은 실재계를 경험하고, 결국 진정한 욕망(주이상스)의 주체가 된다.

### 3. <파이트 클럽> 주인공 잭의 정신질환과 극복과정

#### 1) 상징계를 벗어나고 싶은 잭



사진 1



사진 2

영화 초반 잭의 독백으로 설명되는 그의 일상은 라캉이 말하는 상징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그는 생기 없는 목소리로 본인을 “이케아 가구의 노예”라고 자칭하며, 새로 나온 신제품은 무조건 주문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산 물건들이 하나씩 화면에 등장하지만 모든 소유물은 결국 상품 카탈로그 속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몽타주 시퀀스를 통해 표현되고(사진 1), 잭은 우주 탐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발견되는 새로운 행성들은 전부 대기업의 이름으로 명명될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사진 2). 또한, 잭은 이러한 본인의 생활을 “모든 것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모든 것은 반복적으로 복사된 서류일 뿐”이라고 까지 말한다. 즉, 물질주의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회의 규범이 이미 타의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개인은 그곳에서 적응해 가며 자신의 욕망을 규범에 맞추어간다.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잭은 이러한 상징계 속 삶이 행복하지 않다. 삶에 대한 그의 불만은 심각한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잭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말기 고환암 환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는데(사진3), 이곳에서 그는 밥이라는 거대한 유방을 가진 말기 환자를 만난다(사진 4). 잭은 밥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쌓였던 슬픔을 모두 쏟아내듯이 오염하고(사진 5, 6), 이후 일시적으로 불면증을 극복한다. 표면적으로는 잭이 슬픔의 공감을 통해 마음을 치유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라캉의 이론으로 접근하자면 사실 잭이 사회에서 소외된 고환암 말기 환자들만의 작은 사회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상징계에서의 탈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에 머리를 파묻듯이 밥에게 안기는 잭이 (사진5) 마치 상징계를 경험하기 이전 상상계를 벗어나지 못한 아이의 모습으로 잠시나마 귀환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진정한 실재계로의 진입은 아니지만 잭은 거짓된 신분으로나마 환자들 사회 속에서 상징계로부터의 탈피를 경험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 2) 도착증자 잭

잭은 밥과의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마치 상상계 시기와 흡사한 쾌락을 얻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숨기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는 라캉의 도착증 이론으로 설명된다. 인간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며, 이는 아버지, 즉 제삼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삼자의 역할이 미비하였거나 부재했을 경우, 인간은 어머니와의 사랑으로부터 이미 분리되어있다는 것을 부정하며 제삼자의 법 대신 자신의 단독적 법을 만들어 상상계의 욕망을 억압한다.<sup>8)</sup> 결국, 상상계에서 어머니와의 사랑은 절대적인 쾌락인데, 도착증자는 이런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금기를 거는 이중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sup>9)</sup>

윤보협<sup>10)</sup>의 연구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작, 『나쁜 남자』의 주인공인 한기가 라캉이 말하는 도착증을 앓고 있는 캐릭터의 전형적인 예로 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한기는 길거리에서 본 여대생 선화에게 한눈에 반하지만, 하루 인생을 사는 한기에게는 한없이 높은 존재다. 한기는 그녀에게 강제 키스를 하고, 부하들을 동원해 그녀를 사기의 함정에 빠트리며, 결국 창녀로 전락시켜 버린다. 여기까지는 자격지심에 빠진 한기가 선화를 독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한기는 창녀가 된 선화를 지켜만 보거나,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손님들을 응징만 할 뿐, 그녀와 접촉하거나 강간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한기는 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깡패 놈이 무슨 사랑

8) 백상빈, 홍유진, 「도착증과 중증 인격장애: 라캉 정신분석의 관점」, 『정신분석』 27권 4호, 한국정신분석학회, 2016, 5-7쪽.

9) 문장수, 「인간 범주에 대한 라캉의 구조적 정의에 대한 비판」, 『철학논총』 71권 1호, 새한철학회, 2013, 47-74쪽.

10) 윤보협, 「정신병적 캐릭터의 서사적 기능 연구 - 텍스트 구성과 관객 동일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2, 88-107쪽.

이야?”라고 소리친다. 이것은 결국 제삼자의 법을 대신하여 한기 본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선화를 사랑하고 맘대로 납치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본인만의 법도를 지키는 한기의 이중적인 태도는 라캉의 도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파이트 클럽>의 잭도 신분을 속이고 모임에 참석하는 극 초반에는 한기와 비슷한 도착증자의 증상을 보인다. 잭은 어머니의 젖과 같은 밥의 가슴에서 진심 어린 오열을 하며 마치 상상계의 아기가 엄마와의 사랑을 나누는 듯 쾌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선 안 돼!”라는 자신만의 법으로 자신의 쾌락에 금기를 걸며 가짜 신분을 이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 3) 실재계에 근접한 인물, 말라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잭은 어느 날 말라를 여러 시한부 환자 모임에서 발견하고(사진 7, 사진 8), 그녀도 자신과 같은 가짜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잭이 직장생활과 환자 모임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하는 것과는 달리, 말라는 잭보다는

좀 더 일관적으로 상징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듯하다. 그녀는 남성들만 모이는 고향암 환자 모임에도 본인의 성별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참석하는가 하면, 모임 밖에서도 차가 달리는 도로를 무작정 건너거나(사진 9), 남의 옷을 세탁소에서 훔쳐 중고 옷 가게에 팔아버리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다(사진 10). 잭이 상상계와 상징계의 경계에서 도착증 환자의 이중성을 보이지만, 잭의 시점에서 볼 때 말라의 행동에는 본인의 충동적 욕망에 충실한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상징계 질서를 파괴하는 말라의 삶의 방식은 라캉의 “죽음 충동”과 연관되어 있다. 라캉은 실재계의 주체는 상징계의 기표와 기의의 고리를 끊고 독자적인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인간세계에는 결국 언어라는 넘지 못하는 대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sup>11)</sup> 그래서 결국 실재계의 주체는 자연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한계를 넘는다는 것, 즉 죽음의 욕망을 추구하여 상징계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는데, 라캉은 이를 주체가 갖는 “죽음 충동”이라고 한다. 잭은 내레이션으로 말라의 삶의 철학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직도 본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녀가 상징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기이한 행동을 일삼으며 궁극적으로 죽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것은 라캉이 말하는 실재계의 “죽음 충동”을 의미하므로 말라는 상징계를 넘어 실재계에 근접하려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 4) 잭의 실재계로의 진입 실패

잭은 말라와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도착증적인 이중성을 자각하고, 다시 불면증에 시달린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잭은 출장에서 돌아와 자기 집이 불에 타버린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을 잃고 갈 곳도 없어진 잭은 비행

11) 김숙현, 「라캉의 주이상스 주체로 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한국 연극학』 38권, 한국연극학회, 2009, 42쪽, 52-53쪽

기에서 잠시 말동무가 되어 금세 친해진 비누 사업가, 타일러 더든에게 연락한다.<sup>12)</sup> 둘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타일러는 “네가 가진 물건들이 결국 너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충고를 주며 실의에 빠진 잭을 위로하고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폐해에 대해 설교한다. 이후, 타일러는 잭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하며 이유 없는 싸움을 건다. 이 싸움을 발단으로 둘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사회구조를 타도하며 맨손 싸움을 통해 본인의 참모습을 찾는 것을 지향하는 “파이트 클럽”이란 비밀 조직을 세운다. 파이트 클럽의 탄생 이후, 잭은 자신을 얽매던 직장과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해방되는 듯 보이며, 물리적인 싸움을 통해 “죽음 충동”을 충족시키며 말라와 흡사하게 상징계로부터 해방을 이루고 실재계로 근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 11



사진 12

그러나 타일러 더든과 파이트 클럽은 궁극적으로 잭의 실재계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로는, 파이트 클럽은 강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트 클럽은 규모가 점점 커지며, 군대와 같이 규율을 강조하고, 규율을 어길 시엔 참혹한 응징만이 기다리는 차가운 집단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그 규율의 중심에는 잭의 분열된 자아인 타일러 더든이 존재한다. 기존의 대타자, 물질적인 사회를 타도하겠다는 의도는 더든의 법도라는 또 다른 대타자를

12) 영화 후반에 타일러 더든은 결국 잭과의 동인인물, 즉 잭의 분열된 자아로 밝혀 지지만, 잭은 영화 후반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형성하여 파이트 클럽만의 강력한 상징계가 생겨난 것이다. 타일러 더든의 상징계는 자아분열을 인지하지 못하는 잭에게는 자신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폭군과 같은 대타자이다. 이런 모습은 영화 후반부의 한 시퀀스에서 여지없이 드러난다. 여기서 파이트 클럽이 폭력 테러 집단으로 변질하고, 대 테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메이햄”을 진행하던 중, 잭은 타일러의 테러 계획을 막기 위해 경찰에 자수를 한다 (사진 11). 그러나 잭이 마주한 경찰관들도 파이트클럽의 멤버들로 밝혀지고, 이들은 “아무리 리더인 당신일 지라도 프로젝트 메이햄에 대해 알리는 사람은 없애라고 당신이 지시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잭을 제거하려 든다(사진 12). 결국, 타일러가 세운 법칙은 동일 인물인 잭 본인의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며 그에게 강압적으로 적용된다.

잭이 해방되어 실재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잭이 분열된 자아인 타일러 더든을 타인으로 인지하는 환각증세, 즉 정신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캉이 말하는 정신병은 ‘아버지의 이름’이 폐쇄되어 상징계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상계에 갇혀버린 상태를 말한다.<sup>13)</sup> 이렇게 상상계에 갇혀버린 환자들은 상징계로의 진입을 돕는 아버지인 대타자 역할을 환각이나 환청으로 만들어내어 상상계로부터의 분리를 시도한다.<sup>14)</sup> 잭은 기존에 말기암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었던 도착증적인 쾌락의 충족이 말라의 등장으로 저지되면서, 상상계의 충동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잭이 기존에 가졌던 도착증은 상징계로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신병으로 악화되었고, 그는 상징계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제지할 수 없는 본인의 과도해진 욕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이를 엄마로부터 분리하려는 아버지와 같은 대타자인 타일러 더든이

13) 문장수, 「인간 범주에 대한 라캉의 구조적 정의에 대한 비판」, 『철학논총』 71권 1호, 새한철학회, 2013, 49쪽.

14) 문장수, 앞의 논문, 50-51쪽

라는 환각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진 13



사진 14

맹정현의 연구에 의하면,<sup>15)</sup> 라캉이 정의한 정신병의 또 다른 특징은, 주체가 압도적인 쾌락으로부터 시달리는 것이기에 결국 쾌락을 느끼지 못하며 죽음의 기운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결국 원래 가졌던 망상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 또한 특징이다. 잭은 타일러 더든의 존재를 확신하며 파이트 클럽을 운영하지만, 점점 극단적인 폭력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고 피해망상을 가지며 결국 타일러와의 맞대면에서 타일러는 자신이 만들어낸 망상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사진 13, 14), 이러한 잭의 모습은 맹정현이 정리한 라캉의 정신병의 특징과도 일치한다.

##### 5) 잭을 실재계로 근접시킨 헐리우드 식 극 전개와 영웅주의



사진 15



사진 16

15) 망상 : 현실 붕괴를 막기 위한 정신병자의 자생적 해결책, cowgirlblues, <http://cowgirlblues.egloos.com/593476>, 2022.10.03.



사진 17



사진 18



사진 19

영화 후반, 타일러에게 납치되어 도심을 폭탄으로 붕괴하려는 “프로젝트 메이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잭은 타일러 더튼은 곧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자신의 얼굴을 총으로 쏘고, 이를 본 타일러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쓰러진다(사진 15, 16). 이후 잭은 부하들에게 납치되었던 말라를 풀어주라 명령하고, 그녀와 손을 잡고 붕괴하는 도심을 바라보며 영화의 대미를 장식한다. 잭이 본인 쾌락의 반대 세력이었던 말라를 더 이상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상상계 욕망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상징계를 대변하는 현대 문명의 붕괴조차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기존의 상징계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며, 상상계와 상징계를 넘어 실재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정한 죽음충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이것은 잭의 실재계를 향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영화 <파이트 클럽>에서 잭이 본인의 정신병에서 비롯된 환각 증상인 타일러 더튼을 총 한 방으로 제거한다는 점은 사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다이하드>나 <스파이더 맨> 시리즈와 같은 상업 액션 영화의 3장 구조 속 클라이맥스 시점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점으로 오르고, 주인공은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약점을 간파하여 처치하며 시원한 극의 결말을 이룬다.<sup>16)</sup> <파이트 클럽>의 후반 시퀀스도 이러한 전통적인 헐리우드식 액션영화의 공식을 따르며, 자신의 얼굴에 총을 쏘아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타일러를 제거한 주인공 잭은 마치 최종 보스를 무찌른 주인공 영웅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극적인 쾌감을 주는 영화의 진행과는 달리 정신병의 치료는 약물치료나 상담치료 등에 의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이다. 결국, <파이트 클럽>은 난해한 인간의 심리를 주제로 다루었지만 복잡한 정신병 치료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주인공의 총 한 발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액션영화의 허구성을 이용하여 상업영화로서의 재미를 추구하였다.

#### 4. 결론

라캉은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정립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갖는 욕망의 생성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상상계에서 상징계로의 진입이 성공적이지 않으면 도착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며, 상상계로부터의 분리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정신병으로 규정한다. 영화 <파이트 클럽>은 극 초반 잭의 이중잣대를 통해 그의 도착증을 표현하며 타일러 더든이라는 환각 증상을 통해 잭의 ‘정신병’을 표현하고, 극 후반에 그가 타일러를 무찌르고 말라와 재회하는 것을 통해 잭의 ‘실재계’의 진입을 표현한다. 지젝이 말한 “아픈 해방”은 결국 <파이트 클럽>에서 주인공 잭이 상상계와 상징계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실재계로 진입하기까지의 뼈아픈 우여곡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6) Blake Snyder, "Save the Cat!", M. Wiese Productions, 2005, pp. 89-90.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나 누구나 잠재적으로 자신 고유의 순수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계의 표면적 그리고 암묵적인 법칙에 맞서 순응과 저항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영화 <파이트 클럽> 속 잭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상징계나 상상계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채우기 어려운 자신만의 욕구를 인지하고, 이를 향해 끊임없이 독립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쾌락이며 실재계의 삶이라 말하고 있다. 결국, 영화 <파이트 클럽>은 잭의 “아픈 해방”을 통해 관객에게 도착증과 정신병의 폐해를 경고하고 있으며, 상업 액션 영화의 영웅주의를 활용하여 어려울 수도 있는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과 ‘실재계’의 의미를 관객에게 흥미롭게 전달한다.

## ■ 참고문헌

- 김숙현, 「라캉의 주이상스 주체로 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한국연극학』 38권, 한국연극학회, 2009, 40-53쪽.
- 문장수, 「인간 범주에 대한 라캉의 구조적 정의에 대한 비판」, 『철학논총』 71권 1호, 새한철학회, 2013, 47-74쪽.
- 원수현, 「라캉의 도착증 구조와 현대 정신분석의 경계선 구조 비교 고찰」, 『현대정신분석』 19권 2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7, 149-179쪽.
- 윤보협, 「정신병적 캐릭터의 서사적 기능 연구 - 텍스트 구성과 관객 동일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2, 88-107쪽.
- 이수진, 「라캉의 나르시시즘 개념 고찰의 정신분석 실천적 의미」, 『현대정신분석』 21권 2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9, 91-93쪽.
- 배우리,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과 뉴미디어아트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0-26쪽.
- 백상빈, 홍유진, 「도착증과 중증 인격장애: 라캉 정신분석의 관점」, 『정신분석』 27권 4호, 한국정신분석학회, 2016, 5-7쪽.
- Blake Snyder, *Save the Cat!*, M. Wiese Productions, 2005, p. 89-90.
- cowgirlblues, <http://cowgirlblues.egloos.com/593476>, 2022.10.03.
- Eric Dean Rasmussen, *Liberation Hurts: An Interview with Slavoj Zizek*, Electronic Book Reivew, 2022.
- Slavoj Zizek, *How to Read Lacan*, W.W. Norton & Company, 2007, p. 7-9.

## ■ 국문초록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정립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갖는 욕망의 생성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상상계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어머니의 욕망이 곧 본인의 욕망이 되는 단계이고, 상징계는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분리되어 사회의 규범을 익히며 새로운 쾌락과 욕구를 배워가는 단계이다. 그리고 실재계는 사회의 규범과 억압을 극복하고 “죽음충동”을 통해 끊임 없이 자신만의 참된 욕망을 탐구해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에서 상상계로부터의 분리가 성공적이지 않으면 이중잣대의 특징을 보이는 도착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분리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되면 환각증세를 보이는 정신병이 생기기도 한다.

영화 <파이트 클럽> 초반의 주인공 잭 (에드워드 노튼 역)은 시한부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상계의 충동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거짓된 신분을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를 피하려는 이중적인 도착증 환자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의 거짓정체가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잭은 타일러 더든(브래드 피트 역)이라는 가상 인물을 설정하는 환각증세를 보이며 정신병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영화 후반에서는 잭이 본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타일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액션영화의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 정신병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영화는 주인공 잭이 상상계와 상징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재계로 진입하는 과정을 허구적 흥미요소를 더하면서 극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어려울수 있는 주제를 대중에게 쉽게 풀어서 보여준다.

주제어 • 파이트 클럽, 라캉,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 도착증, 정신병, 주이상스

## ■ Abstract

### Analysis of Jack's Mind, the Protagonist of <Fight Club> - Based on Lacanian Psychoanalysis -

Chun, Bum Sue

Jack, the protagonist of <Fight Club>, suffers from insomnia, and is tired of his daily routine in a capitalist society. After encountering his own alter ego, Tyler Durden, he founds the Fight Club in order to start a violent revolution in attempt to mock and resist the materialistic world.

Jacques Lacan establishes three stages in human psyche: the Imaginary, Symbolic and the Real. Each stage explains the mechanics of human desires. Most of us experience the Imaginary, then transition to the Symbolic stage. However, incomplete separation of oneself from the Imaginary in transition to the Symbolic causes paraphilia, and absence of any separation from the Imaginary inflicts one with psychosis. <Fight Club> shows Jack's psychological journey that travels from paraphilia, psychosis and all the way to entering the Real. Particularly, by portraying Tyler Durden and Marla Singer as two opposite forces around Jack, the film alludes to the stark contrast between the traits of psychosis and the Real. Furthermore, as a commercial movie from Hollywood, the film successfully packages its plot and characters into the three act structure and heroism, prevalent in Hollywood action movies, making its psychological theme more accessible to general audiences.

**Keyword • Fight Club, Lacan, paraphilia, psychosis, the Real**

■ 논문투고일:2023. 02. 06. ■ 심사완료일:2023. 03. 21. ■ 게재확정일:2023. 03. 22. ■



# 도심 속 문화재로 감영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감영 정비사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이 승 용\*

## 목 차

1. 들어가며
2. 사적 정비의 일반적인 특성
3. 감영의 정비계획 사례 비교 분석
4. 도심 속 문화재로 감영의 정비방안 고찰
5. 맺음말

### 1. 들어가며

문화재 정비의 주요 방향은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진정성 및 장소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궁궐과 관아 등은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고 입지에서도 도심에 조성된 문화재이다. 한편 궁궐과 달리 관아 즉 감영은 근래에 지정 또는 정비되고 있어 이미 개발된 주변 환경으로 문화재가 속해있는 당시의 환경과는 많이 달라져 정비의 기본을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같이 주변의 여건에 의해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합한 정비방안을 고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 속의 문화

---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재로 근래에 정비계획을 세우거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전라감영, 경상감영과 강원감영에서 정비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고, 비교 및 고찰하여 도심 속 감영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사적 정비의 일반적인 특성<sup>1)</sup>

### 1) 사적 정비 개요

사적 정비는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역사적 자취로서의 유적 중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호하여야 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은 역사성과 진정성과 장소성을 가진 문화재로서 원형 보존을 통해 후세에게 전하고 물려주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구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유구를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의 정비에는 유구 보존을 위한 활동과 유적의 이해를 돕는 활동으로 구성되게 된다.

### 2) 사적 정비 사전 조사 내용

#### (1) 유적 성격의 조사

유적·유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적·유구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할 유적·유구의 성격은 유적의 범위, 형태, 기능과 유적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① 유구, ② 사건, ③ 인물, ④ 장소 등을 중심으로 고려된다.

---

1) 김영원 외, 『사적정비의 계획과 설계/궁궐·관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참고 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함

## (2) 유적의 현황 조사

사적을 정비하는 것은 유적을 보존·관리하는 것과 활용 측면에서 공개하여 역사교육의 장소로 제공한다. 따라서 유적의 현황과 방문자의 이용도에 따라 ① 전시성이 높은 유적의 선택, ② 유적의 공개 방법과 공개 정도 등을 검토하여 관람영역을 구분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 (3) 주변 환경 학술조사

사적 정비는 해당 유적과 함께 주변 환경의 정비도 필요하다. 사적에 다가갈 때부터 사적이 인지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사적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의 주변 환경 또한 역사적 경관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이는 위화감보다는 그 시대의 사적이 담고 있는 현장감이 있는 모습으로 정비되도록 주변 환경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 (4) 정비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정비를 위한 조사 및 연구는 정비의 구상단계부터 사업 진행 과정 중에도 자료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며,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경우는 기존의 계획 및 설계 내용을 재검토한다.

### 3) 사적의 정비 요소

사전 조사에서 도출된 유적의 특성에 기초하여 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다음의 사적 정비 요소에 따라 복원 및 활용 측면에서 정비한다.

#### (1) 사적 영역의 구획

정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간구성을 고려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사적을 구성하고 있는 각 공간의 유기적 통합과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람영역을 구분하고 관람 동선 체계를 정비한다.

#### (2) 관람시설

관람시설은 포장재와 안내시설로 구분된다. 포장재는 통행 유도과 조절, 공간의 통합과 분할, 장소의 분위기 연출 등을 고려하여 계획된다. 안내 시설은 사적 관련 중심으로 계획 및 설치된다.

### (3) 전시시설

유적 자체를 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제를 설정하고 전시하되 유구의 노출 전시가 어려운 경우 전시관을 별도로 계획한다. 감영의 경우 복원된 건축물을 전시관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편 별도 전시관 계획 시 위치와 양식은 사적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4) 편의 및 관리시설

방문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 매표소, 관리사무소, 기타 공공시설을 계획한다.

### (5) 건축공간 활용

문화재 보존에 문제없고 역사적 장소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회의장 및 교육장으로 개방되어 활용할 수 있다.

## 3. 감영의 정비계획 사례 비교 분석

감영은 궁궐과는 달리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변형, 훼손되어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선화당 등 남아있는 주요건물을 중심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화하며, 발굴조사 등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점차 감영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전라·경상·강원감영 등 세 감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논의된 추진 정비계획을 분석한다.

### 1) 감영의 현황과 공간구성의 특징

조선 시대는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여 지방 통치를 맡게 하였으며, 감영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전국 팔도를 관장하는 지방관청으로 관찰사가 거처하던 곳이다. 감영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감영의 현황

| 명칭   | 위치     | 주요 유적 및 문화재                           |
|------|--------|---------------------------------------|
| 경기감영 | 서울 종로구 | 경기감영터, 경기감영도병                         |
| 강원감영 | 강원 원주시 | 청운당, 포정루, 선화당, 관동관찰사영문, 징청문           |
| 충청감영 | 충남 공주시 | 선화당, 포정사 문루                           |
| 전라감영 | 전북 전주시 | 풍남문, 풍락헌, 풍패지관, 경기전, 전주사고, 전라감영지, 예기루 |
| 경상감영 | 대구 중구  | 선화당, 징청각, 관풍루, 측우대                    |

감영은 지방 도시의 중심으로서 궁궐의 규범에 맞추어 조성되었으며, 가장 변화한 곳에 자리하였다. 지형에 따라 배치하여 읍성, 도로 등은 다소 불규칙하지만, 감영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다.

감영의 공간구성은 관아의 홍살문에 해당하는 포정문을 포함하여 세 개의 문과 마당으로 이루어진 진입 공간과 정청인 선화당과 관리의 처소인 정청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생활공간인 내아와 후원이 부속된다. 관원들의 영역은 정청각 반대편으로 배치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하위직의 영역은 진입 공간에 배치된다.

[표 2] 감영의 공간구성

| 공간 | 포정문      | 영리청<br>군관청 | 중삼문 | 비장청      | 내삼문 | 선화당<br>정청각 | 내아 | 후원 |
|----|----------|------------|-----|----------|-----|------------|----|----|
| 특성 | 관아<br>경계 | 진입<br>공간   |     | 행정<br>사무 |     | 내무<br>정청   | 살림 |    |

## 2) 전라, 경상 및 강원감영의 정비계획 분석

### (1) 전라감영 복원연구 논의내용 분석<sup>2)</sup>

전주시는 전라감영 부지에 있던 도청사가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그 부지와 관련 전라감영복원사업의 기본방향을 세워 사업을 추진한다.

[표 3] 전라감영 복원사업 추진과정 및 내용

| 년도   | 사업 추진과정 및 내용   |
|------|--|
| 1951 | 선화당 건물 화재로 소실  |
| 1996 | 전북도 내 언론사 전라감영 복원사업 본격 제기  |
| 2000 | 전라북도 기념물 107호 지정(부지 4,884평)  |
| 2004 | 전북발전연구원, <전북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방안> 보고  |
| 2005 | 7월 전북도청 완전 이전  |
| 2006 |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사업 로드맵 제시<br>문화재청, 전라감영지 유적 발굴조사 허가, 착수<br>『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 절충안 제시(도심 속 역사공원 안) |

전주는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통과 문화라는 자원을 예향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문화도시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주의 도시 정체성을 구체화한 전통문화 중심도시전략에서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 나타나는 중요한 역사적·공간적 의미에서 찾고 있다.



[그림 1] 전라감영 상징복원 조감도(자료 84쪽 복사)

2) 전북발전연구원,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2008. 자료 고찰 및 분석정리

따라서 전라감영 복원을 단순한 감영 자체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전주시 도시 문화 정체성과 연계하고 있다. 즉, 한옥마을과 객사 중심의 문화거리 사이에 위치하여 양 구역을 연계하는 도시문화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으며, 감영 복원사업은 그 문화적 의미를 확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0년에 들어와 전라감영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기초자료 미흡으로 반려되고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후 전라감영 복원 방안으로 장소성과 시간성을 고려하여 ① 역사의 회복(historical zone), ② 흔적의 중첩(art & workshop zone), ③ 도시의 기억(cultural zone), ④ 미래로 전진(plaza zone) 등으로 구역을 구분하고, 고건축과 현대건축 등 건축이 주축을 이루는 구체적인 감영 복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2) 경상감영 사적 지정 논의내용 분석<sup>3)</sup>

경상도에는 조선 태종대부터 별도의 감영 없이 관찰사가 도내를 순력 하였으며, 선조 34년(1601년) 대구에 감영이 설치되면서 이곳에서 정무를 보았다. 대구 경상감영지는 경상감영의 중심 건물인 선화당과 장청각이 원 위치에 잘 보존되어 있고 발굴조사 결과 감영지가 확인된 임진왜란 이후 8도의 관아 구성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표 4] 경상감영 사적지정 추진과정 및 내용

| 년도   | 사업 추진과정 및 내용           |
|------|------------------------|
| 1920 | 관풍루 이축                 |
| 1966 | 경북도청 이전                |
| 1970 | 중앙공원 개원                |
| 1972 | 선화당, 장청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
| 1982 | 선화당, 장청각 대구시 유형문화재 지정  |

3) 문화재청, 『대구 경상감영지 지정조사보고서』, 2016. 자료 고찰 및 분석정리

|      |                |
|------|----------------|
| 1997 | 경상감영공원으로 명칭 변경 |
| 2017 | 대구 경상감영지로 지정   |

경상감영지는 1966년 도청이 옮겨간 후 1970년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시의 중심에 위치하여 ‘중앙공원’이라 불리다가, 1997년 ‘경상감영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시민들은 공원으로 개방되어 활용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나 감영을 문화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도시공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사적으로 지정될 때 고려된 감영 복원정비와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복원정비를 위한 전략으로 사적지 지정을 목표로 역사 공간 본래의 의미를 구축하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한 원형복원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사적지 정비를 수행하며, 무리한 추정 복원을 지양하고 정확하고 왜곡 없는 복원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주변 공간 및 시민과 공생하는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단계별 복원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공간을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왜곡 없이 정확한), 현재(실생활 공간 속에 살아있는), 미래(세대를 넘어 기억되는)를 담고 있는 역사적 공간 창조를 목표로 정비 방향과 추진계획을 세웠다.



[그림 2] 경상감영 사적지 복원정비 종합배치도(자료 33쪽 복사)

단계별로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사적으로 지정 후 복원에 필요한 주변 대지의 확보 및 정비, 관 풍루 이축 복원 및 중삼문 및 진입공간 복원 등 감영 기본 축을 복원 및 정비한다. 또한, 역사문화 미관지구 설정을 위한 연구를 통해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2단계는 복원하기 위한 복원 여건 조성을 위해 인지도 확대를 위한 학술대회, 주민포럼 및 감영 관련 도시축제 개최 등을 고려한다.

3·4단계는 장기계획으로 인접한 공공시설 등의 이전과 추가 확보된 공간에 대한 발굴조사, 감영 인근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 실행 및 경상감영 역사문화관 건립 등을 고려한다.

### (3) 강원감영 사적 공원 조성과정 분석<sup>4)</sup>

강원감영은 강원도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조선 태조 때 설치되어 고종 때까지 500년 동안 강원도의 정청 업무를 수행했던 곳이다.

감영의 규모는 31동 건물이 있었으나 원주시 청사 등이 생기면서 현재는 선화당, 포정루, 청운당 등의 건물만이 남아있다.

2000년 발굴조사 결과 감영에 속한 건물의 건물터와 포정루에서 선화당으로 이어지는 보도, 외곽으로 둘러쳐진 담장터, 행각터 등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또한, 선화당 뒤편에 있는 방지의 호안석축 등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잘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강원감영 복원사업 추진과정 및 내용

| 년도   | 사업 추진과정 및 내용                       |
|------|------------------------------------|
| 1995 | 강원감영 사적공원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보고서 작업     |
| 1996 | 1단계 복원사업 시작(1996-2005)             |
| 2000 | 구원주 제2청사 철거, 1단계 복원영역(선화당 영역) 발굴조사 |
| 2001 | 1단계 복원(선화당 영역) 착공                  |

4) 원주시, 『강원감영 사적공원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 1996. 자료 고찰 및 분석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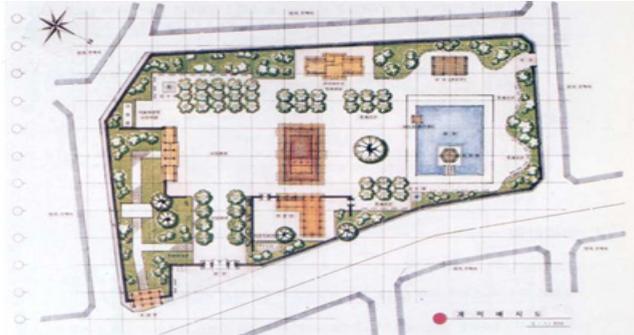
|      |                           |
|------|---------------------------|
| 2002 | 원주 강원감영으로 지정(지정면적 9,608㎡) |
| 2005 | 1단계 복원(선화당 영역) 사업 준공      |
| 2006 | 2단계 복원사업 시작(2006-2017)    |
| 2011 | 원주우체국 철거                  |
| 2012 | 강원감영 2단계 복원 설계용역 착수       |
| 2014 | 2단계 복원 학술연구용역             |
| 2015 | 2단계 복원(후원영역) 착공           |
| 2017 | 후원 준공                     |

한편 지정에 앞서 원주시는 1996년 원주감영 사적공원 기본조사 및 설계를 시행하였고, 문화재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감영지 복원정비로 도심 내 사적 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속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동시에 전통문화체험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영지 복원정비계획과 함께 감영지 내 조형물·휴게시설·안내판 등 공원시설물 배치계획 및 현존 건조물 보전 및 활용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비의 접근 방향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 및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공청과 내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감영 일곽의 정비 및 복원이며, 2단계는 시청 별관청사로 사용하는 부지 및 주변 행각이 해당하는 곳을 정비하는 것이다. 3단계는 뒤편의 후정 일곽으로 연못지 및 누각(관풍각) 등의 휴게 및 후원 조경 등의 복원정비를 계획하였다.

단계별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로 복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강원감영 계획배치도(자료 39쪽 복사)

### 3) 전라·경상·강원감영 정비계획 비교 분석

전주시의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이것을 매개로 구도심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감영 및 주변 문화재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획의 주된 내용은 구도심 활성화에 집중하여 감영의 문화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주변이 위화감을 표출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경상감영이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방향은 체계적인 전략 위에 단계별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공원에서 사적 공간으로의 인식 전환과 이에 따른 복원 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따라서 토지매입과 주변의 관공서 이전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조성 등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원주시의 강원감영은 도심 속의 사적 공원으로 조성하고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단계별로 부지를 확보하고 발굴조사 등을 통해 강원감영 구역 내에서 감영의 원형을 조성하고 있다.

이상 세 감영의 정비 방향 및 추진계획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전라·경상·강원감영 정비계획 비교

| 구분    | 전라감영  | 경상감영   | 강원감영  |
|-------|---|--|---|
| 정비 방향 | 전통과 현대의 문화적 절충과 도심 역사공원 조성  | 주변과 공생하며 과거·현재·미래를 담는 역사적 공간 창조  | 도심의 사적 공원 조성과 시민 문화체험 공간 제공 및 활용  |
| 추진 계획 | -도시 문화정체성을 기본으로 한옥마을과 객사를 연계한 역사문화 구역 조성<br>-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이 공존과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행 | -부지확보 및 유구 발굴을 통해 사적의 인지도 확보 및 복원 여건 조성<br>-지속적 대지 확보 및 발굴 후 사적 구역 점진적 확대 및 역사적 공간화 작업 | -단계별 진입 및 중심공간 정비 복원 후 연못지 등 후정 일곽 정비 및 복원<br>-사적과 연계된 관람 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설치로 도심 속 사적 공원 조성 |

전라, 경상 및 강원감영의 정비 방향과 추진계획을 살펴보았을 때 정비 방향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문화재 주변이 도시화 및 개발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재 즉, 사적을 도시의 구성요소로 이해하여 정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비과정에서 감영 구역을 해당 문화재가 포함된 도시의 사적 공원으로 정비하고, 또는 이 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시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계획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비내용을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영의 정비과정은 감영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복원 정비되기보다는 도시의 문화자원의 하나로 보고 정비되는 것으로 보여 문화재를 복원하고자 하는 정비 방향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4. 도심 속 문화재로 감영의 정비방안 고찰

도심 속에 있는 문화재를 정비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문화재의 현황과 주변 환경 등의 상황에 따라 정비를 하는 방안을 해당 지자체의 현황과 정비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사적 정비의 일반적인 내용과 상호 비교 분석하여 감영 본래의 모습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

는 현장감 있는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심 속 문화재 즉 감영의 정비방안을 고찰해 본다.

### 1) 감영 정비에서 고려할 방향과 내용

감영 정비에서 고려할 정비 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감영의 정비 방향과 정비내용

| 구분    | 정비 방향                     | 정비 내용  |
|-------|---------------------------|--|
| 유적 성격 | 사적의 특성이 이해되는 정비 방향과 방법 제시 | 유적의 역사성, 진정성, 장소성 확인<br>주변 환경 및 문화과 연계된 고유성 확인               |
| 유적 현황 | 유적 현황과 유구를 통해 유적을 직접 체험   | 유구 상태 확인과 복원 및 활용계획<br>사적 영역 구획 및 관람체계 계획<br>공간구성과 전시 및 활용계획 |
| 주변 환경 | 사적의 장소적 정체성과 현장감 있는 주변 환경 | 학술조사로 역사적 정체성이 있는 정비<br>사적 경관 고려한 도시공간 조성                    |
| 관람·전시 | 감영의 문화재적 특성을 이해하는 관람 및 전시 | 감영의 특성에 따른 주제 선정 및 계획<br>사적 경관을 고려한 전시시설 건립                  |

첫째, 사적의 특성이 이해되는 정비방향과 방법의 제시이다. 일반적으로 감영은 유구, 인물, 사건, 인물 및 장소 등 모든 사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비하는데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확인 작업을 통해 유적의 특성과 고유성 등을 고찰하고 정비 방향과 방법을 정한다.

둘째, 유적의 현황을 보고 유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적의 현황을 보면 선화당 및 포정문 등 주요 건축물 등이 원형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기본으로 유구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영역과 관람영역을 정비하고 보존·관리와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정비한다.

셋째, 사적의 장소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감영은 일반적으로 담장 등으로 사적이 구획되지만, 읍성과 연계되는 유적으로 그 사적 영역은 주변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주변이 개발된 현황에서 사적 영역의 확대는 쉽지 않겠지만 학술조사를 통해 역사적 흔적이나 요소들을 찾아 그 시대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감영의 특성을 이해하는 관람 및 전시계획이다. 감영의 특성에 따른 관람 및 전시 주제를 잡고 사적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전시시설 건립 등을 고려한다.

## 2) 감영의 정비방안 고찰

도심 속에 위치하는 문화재인 감영을 정비하는 것은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진 주변의 환경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감영이 도시시설의 하나로 고려되어 문화재 정비의 기준과 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영을 정비하는데 주변 환경과 공존하면서 감영의 가치와 의미가 인지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감영의 일반적인 정비 방향과 내용을 참조하고 앞서 논의한 세 감영에서의 현황과 정비계획을 기초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유형은 문화재 주변 환경을 역사 환경을 고려한 관계망을 구축하여 문화재의 정체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비방안이다. (N-type)

문화재 주변 환경이 도시화 되어 유적 범위가 제한되고 사적 영역이 완전하게 구획되기 어려운 현황에서 주변의 도시재생과 주변의 문화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가 인지되도록 정비하는 방안이다.

전라감영의 경우에서도 이와 같은 정비내용을 볼 수 있는데, 즉 문화재 유구의 한계로 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및 도시문화시설들과 연계하고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화재 간의 연결과 가로 정비에 비중

을 두고 문화재와는 관계없이 과도한 건축이나 시설 계획이 추진되어 역사적 경관을 볼 수 없다.

역사적 관계망 개념은 주변의 문화재 또는 문화시설 간에 관계 및 문화재 주변 환경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역사성, 진정성 및 장소성을 담고 있는 역사적 경관을 기초로 주변 환경을 계획하는 것으로, 단순히 가로계획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조사로 파악된 주변 환경의 특성과 주변 문화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기초로 공간과 공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역사적 관계망 계획 및 조성과정에서 문화재의 의미와 고유성이 있는 역사적 경관을 가진 역사적 현장감을 계획하고 그 위에 도시가 조성되는 것이다.

[표 8] N-type 정비과정

|   |
|---|
| <b>유적과 유구 발굴조사 및 사적 영역의 정비 기준 설정</b>  |
| 사적 구역 내 남아있는 유구 중심으로 역사적 공간구조 계획 및 정비   |
| <b>사적과 인접한 정비 범위 설정 및 사적과 연계된 역사적 환경 학술조사</b>   |
| 감영과 접목된 인접 지역의 역사적 현장감 및 도시구조 계획 및 정비   |
| <b>인근 문화재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망 계획으로 역사적 환경 조성</b>  |
| 문화재 및 주변 간의 상보적 관계망 구축을 고려한 가로 및 공간 계획<br>도시 가로와 접한 부분에 역사적 시설 및 건물의 적정 규모와 외관 계획<br>도시 가로 배후 영역의 일정 규모의 도시계획 및 역사적 도시시설 건립 |
| <b>사적 영역의 공간 확대와 도시구조 속 역사적 환경 조성</b>   |
| 인지도 확대와 영역 내 역사적 환경 공감 및 사적 구역의 확장 계획<br>감영 관련 도시문화시설의 건립과 지속적 인지도 확대 및 구역 확대 정비  |
| <b>역사적 경관 조성 및 사적 정비</b>  |
| 문화재 주변의 역사적 경관 조성으로 사적의 가치 재조명 및 의미 구현  |

이것은 대구 경상감영의 경우와 같이 감영의 유적과 유구에 도시 관련 시설이 들어와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주변에 도로가 계획되고 건물이 도로에 접하여 지어져 있어 감영 본래의 사적 영역을 구획하고 원형을 복원하

기에 어렵고 역사적 의미를 퇴색된 상황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즉, 감영의 자료를 조사하고 구역 내의 감영의 유적을 최대한 찾아 발굴조사 및 정비 등을 통해 유적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정비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사적이 상호 중첩되어 정비되면 감영 본래의 도시와 관계망 속에 역사적 경관이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사적 본래의 가치와 의미가 인지되는 문화재 공간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문화재 정체성이 조성된 문화재 영역을 복원 및 정비하고 영역 주변을 역사적 경관으로 조성해 나가는 정비방안이다. (A-type)

발굴조사 자료에 근거해 감영의 공간을 구성하고 담장 유구 및 복원 등을 통해 감영의 영역을 구획하고 문화재 영역에서 영의 모습을 온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도록 정비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확보된 감영 영역 내에서 유구를 복원하고 원형의 공간구조를 계획하여 문화재 구역 내의 감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 영역 내에서 문화재 본래의 모습으로 정비된 감영을 체계적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역사적, 진정성 및 장소성 등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오직 사적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정비방안이다. 한편 감영의 정비된 모습과 함께 주변의 개발이 상호 보완되어 현장감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표 9] A-type 정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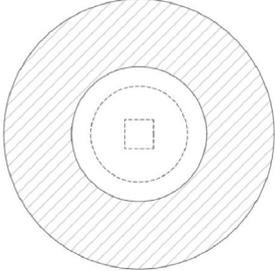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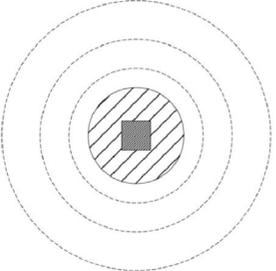
|  |
|--|
| <b>유구와 발굴조사와 학술조사로 사적 영역 구획 및 정비 방향 설정</b> |
| 감영의 역사성, 진정성 및 장소성을 조사 후 근거자료에 기초한 정비계획    |
| <b>사적 영역 내 공간구성 조성 및 문화재 구역</b>            |
| 구역 내 유구 복원·복토 및 경계 정비로 온전한 공간구조 계획 및 조성    |
| <b>사적 영역 정비와 주변 환경의 문화재 느낌의 현장감 조성</b>     |
| 문화재 정비와 주변의 문화재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및 적용       |

이상과 같이 도심 속의 문화재 정비의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문화재의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N-type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정비방안의 유형은 사적 정비를 진행할 때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N-type과 A-type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려되거나 적용되고, 정비방안 A-type처럼 감영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본연의 정비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비방안 N-type처럼 주변 환경의 정비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된 도시 속에 문화재를 복원 정비하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적 구역 전체를 발굴 및 복원을 통해 구역 및 감영 당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감영이 문화재로서 가치와 의미가 표출될 필요가 있고, 도시시설의 한 부분이 아니고 감영의 사적 구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변의 현장감 있는 경관 조성 과 인근 문화재 상호 간의 관계망을 고려한 역사적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의 의미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개념 과 문화재 영역에서 사적의 공간구조를 보완 및 정비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가 구현하고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점진적 역사적 경관으로 변화되는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0] 정비유형의 특징

| 구분    | 정비유형  |  |
|-------|---|--|
|       | N(Network)-type 관계 구조형  | A(Area)-type 한정 영역형  |
| 특징    | 주변의 현장감 있는 경관 조성 과 인근 문화재 상호 간 관계망으로 조성된 역사적 경관(주변 문화재 환경 조성)<br>이를 통해 문화재의 의미를 인지 되는 사적 의미의 잠재 공간 구현 | 문화재 영역에서 사적의 복원 및 정비로 문화재 가치와 의미가 구현된 감영 공간구조(온전한 감영 공간 구현)<br>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점진적 역사적 경관으로 변화 및 조성 |
| 복원 정비 | 관계적 복원 정비<br>주변 역사 환경 계획 및 조성에서 사적의 정체성 완성  | 영역적 복원 정비<br>사적 영역 정체성 조성에서 주변의 역사적 경관 및 환경 변화   |

| 공간 구성 | 영역 내 역사 공간구조<br>도시 흐름 속 관계망 구조   | 사적 내 공간구성<br>주변과 문화재 현장감 조성  |
|-------|--|--|
| 도시    |  <p data-bbox="400 643 649 696">주변 : 역사 관계 조성<br/>▶ 사적 : 영역 의미 인지</p> |  <p data-bbox="767 643 1016 696">사적 : 영역 발굴 정비<br/>▶ 주변 : 사적 경관 조성</p> |

###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도심에 있는 문화재의 정비와 관하여 논의하였다.

도시 속에 있는 문화재는 정비하기에 앞서 이미 형성된 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 및 문화재 영역이 훼손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조성된 도심 속에 있는 문화재를 정비하는 것은 문화재의 역사성, 진정성 및 장소성을 갖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훼손된 역사적 환경을 회복하고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하는 정비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 속에 있는 문화재로서 감영을 선정하여 정비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전라, 경상 및 강원감영의 정비계획을 비교 분석하여 정비 방향의 공통점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비의 기본적인 취지와 방법을 기준으로 도심 속의 문화재인 감영의 정비방안을 고찰하였다.

이에 감영 정비에 있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가 표출되는 정비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재 주변 환경을 상호 관계를 고려한 현장감 있는 경관으로 조

성하고 인근 문화재 상호 간의 관계망을 통해 역사적 경관을 조성하여 그 관계망에 들어서면 당해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이다.

둘째, 한정된 문화재 영역 내에서 관련 자료를 기초로 사적의 공간구성을 정비하여 그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가 구현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주변 도시적 환경을 역사적 경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지도 상승 및 도시계획 측면에서 시행이 고려되는 정비방안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도심에 있는 문화재인 감영에 대한 적절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문화재 주변에 조성된 일반적인 도시환경을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가 인식되는 역사문화환경으로 재구축해 나가도록 제시된 방안이다. 이 연구를 기초로 추후 감영 이외의 문화재 정비에서 그 문화재의 특성이 고려된 정비방안에 관하여 고찰이 이루어져 당해 문화재에 적합한 정비방안을 제시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김영원 외, 『사적정비의 계획과 설계/궁궐·관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정비편람』, 2011.

원주시, 『강원감영 사적공원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 1996.

전북발전연구원,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2008.

문화재청, 『대구 경상감영지 지정조사보고서』, 2016.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심에 있는 문화재로 감영을 정비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감영이 도시의 시설 중 하나로 이해되고 이에 따라 문화재의 본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감영을 정비하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인지되고 주변 도시환경도 문화재와 상호공생하는 정비방안을 고찰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감영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정비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고 정비 사례로서 전라, 경상 및 강원감영의 정비 방향 및 계획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에 다음의 두 가지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재 주변 환경의 현장감 있는 경관 조성과 인근 문화재 상호간의 관계망을 통해 역사적 경관을 조성하며, 그 관계망을 통해 당해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가 인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이다.

둘째, 한정된 문화재 영역 내에서 관련 자료를 기초로 사적의 공간구성을 정비하여 그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가 구현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주변 도시적 환경을 역사적 경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서 시행이 고려되는 정비방안이다.

이상의 정비방안으로 도심 속의 문화재인 감영에 대한 적절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문화재 주변에 조성된 일반적인 도시환경을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가 인식되는 역사문화환경으로 재구성해 나가고자 제시된 방안이다.

주제어 • 도심, 문화재 정비, 역사적 관계망, 문화재 영역

## ■ Abstract

### A Study on the Maintenance Plan of Gamyeong as Cultural Heritage in the City Center

: Focused on the Comparison and the Analysis of Cases of Gamyeong

Lee, Seung Yong

As a problem in maintaining Gamyeong(Traditional Provincial Office) as a cultural property in the city center, it is understood that Gamyeong is one of the urban facilities, and accordingly, both the value and meaning of Gamyeong are not recognized. Therefore, research is required concerning the maintenance directions and cont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Gamyeong and the following two maintenance plans that were suggested.

The first plan is to design a historical landscape of the network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nearby cultural properties and know about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cultural property by the network.

The second plan is to realize the value and meaning of cultural assets by reorganizing the spatial composition of historical sites based on the data and change an urban landscape into a historical landscape.

**Keyword • City Center, Cultural Heritage Maintenance, Historical Network, Cultural Heritage Area**

■ 논문투고일:2023. 01. 19. ■ 심사완료일:2023. 03. 20. ■ 게재확정일: 2023. 03. 22. ■

# 지역 문화의 예술 콘텐츠화 과정 연구

## -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_홍산 모시 이야기>’ 를 중심으로 -

임수정\*

### 목 차

1. 들어가며
2. 홍산 모시
3.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_홍산 모시 이야기>’  
의 콘텐츠화 과정
4. 맺음말

## 1. 들어가며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들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하여 관광콘텐츠<sup>1)</sup>로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 축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관광 콘텐츠 활성화로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역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장소에 존재하는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미디어콘텐츠, 예술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창출, 유통해야 할 것

\*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인문융합학부 강사

1) 조해진, 「지역문화유산의 콘텐츠제작 활성화에 관한 연구-강릉대도호부관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5권 4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9, 497쪽.

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은 대부분 관광상품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콘텐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를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다양한 시도는 사라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국가 고유의 민족성을 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모시로 유명한 지역은 충남 서천군 한산이다. 그러나 충남 부여군 홍산면도 저산팔읍<sup>2)</sup> 중 모시 생산과 모시전이 가장 큰 지역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산업혁명과 지역쇠퇴로 홍산 모시 생산이 중단되었고, 한산모시에 가려져 홍산 모시의 역사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라져가는 홍산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홍산문화보존회’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 \_홍산 모시 이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지난 2021년 KBS 2TV에서 방영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129회차에서 홍산 모시가 저산팔읍 중 모시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모시전도 컸다고 소개<sup>3)</sup>한 바 있다. 현재는 홍산면에 살았던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홍산 지역민들의 기억을 문화적 기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알레이다 아스만(Assmann, Aleida)은 오랫동안 전승되면서 창의적으로 재창조된 것을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sup>4)</sup>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은 시대적 제도에 의해 기록된 것과 문화를 경험한 공동체의 기억으로 분류되며 두 개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절충해 재창

2) 위키백과 사전에 의하면 저산팔읍은 저포 즉 모시가 생산되던 충청도의 여덟 개의 읍을 지칭하는데 부여, 임천, 한산, 홍산, 서천, 비인, 남포, 정산이다. 18세기 후반부터 저산팔읍을 중심으로 모시 5 일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3) KBS 2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2021.07.03. 방영.

4) Aleida Assmann, “Memory, Individual and Collective”, in: Robert E. Doodin &Chales Tilly(Eds.), The Oxford Handbook of Contextual Politic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220-221쪽.

조해야 그 가치가 인정<sup>5)</sup>된다고 말한다. 또한, 얀 아스만(Assmann, Jan)은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억을 반복하거나 한 매체에 정착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며 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그 형태를 형성<sup>6)</sup>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 문화가 존재했던 장소와 문화적 기억은 지역문화콘텐츠에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_홍산모시 이야기>’는 2022년 충남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충남 무용 예술지원사업 개인 분야에 선정된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고는 홍산 모시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였다. 그 기록을 위해 홍산문화보존회 회장 최병현, 홍산보부상보존회 회장 진수범, 홍산 모시 직조 명인 임명순과 조온숙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4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를 제작하였다. 또한, 그 과정을 기록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자료집, 홍산 모시로 제작한 의상 그리고 Dance Film을 2022년 9월 17일에서 9월 24일까지 전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아낸 <모시 장사 타령> 노래를 Dance Film 음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전시 기간 초대 공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라져 가는 지역 문화를 예술 콘텐츠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홍산 저산팔읍과 홍산 모시의 역사성을 문헌 조사하여 논의하고 기획 배경과 내용, 기획의 특징으로 나누어 예술 콘텐츠 제작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작된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를 장소성, 문화적 기억으로 분류하여 본 프로젝트

5) 김정현, 송희영, 「문화적 기억과 도시 정체성 재현으로서의 문화콘텐츠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32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8, 104-105쪽.

6) Aleida Assmann, “Canon and Archival”,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Erll, A. and Nünning, A. Eds, Berlin: Walter de Gruyter, 2008, 98-99쪽.

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사라져 가는 지역 문화를 춤으로 기록하고 콘텐츠로 확장하는 예술작업은 지역 문화 발전과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연구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과정 연구는 지역 문화콘텐츠 발전과 활성화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 2. 홍산 모시

모시옷은 여름에 주로 입는 의복으로 모시 원단을 제작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지만 옷을 관리하고 보존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효율성이 떨어져 선호하는 옷은 아니다. 그러나 모시품로 만든 모시의 제작과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다.

문헌에 따르면 모시옷은 신라 시대 대중들이 입었던 옷<sup>7)</sup>이라고 알려져 있다. 신라본기 제11권에 현안왕이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열었을 때 응렴(鷹廉)이 왕에게 삼베와 모시옷을 즐겨 입는 귀족의 이야기 속에 모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응렴이 만난 귀족은 비단옷을 입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베와 모시옷을 입어 검소한 생활<sup>8)</sup>을 한 것이다. 이 일화를 통해 신라 시대에는 서민들이 주로 모시옷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주로 입었던 의복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홍산면이 모시의 집산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저산팔읍 상무좌사 공문제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홍산 저포 조합이다. 그리고 홍산면이 충남의 저산팔읍(苧産八邑)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저산팔읍(苧産八

7)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8) 최태경,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 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7, 115쪽.

은)은 모시 생산을 가장 많이 했던 부여, 홍산, 남포, 비인, 한산, 임천, 정산, 한산 8읍을 칭한다. 백제 충남권에 있는 8읍을 중심으로 저산팔읍 상무좌사와 저산팔읍 상무우사라는 보부상이 결성되었다.

[표 1] 저산팔읍(苧産八邑)장<sup>9)</sup>

| 군   | 면             | 장날      |
|-----|---------------|---------|
| 부여군 | 임천면<저산팔읍상무우사> | 5일, 10일 |
|     | 홍산면<저산팔읍상무좌사> | 2일, 7일  |
| 서천군 | 한산면           | 1일, 6일  |
|     | 비인면           | 4일, 9일  |
|     | 서천읍           | 2일, 7일  |
| 보령군 | 주포면           | 3일, 8일  |
|     | 남포면           | 2일, 7일  |
| 청양군 | 정산면           | 5일, 10일 |

저산팔읍 상무좌사의 기록 유산은 우리나라 보부상 조직 중 가장 최초이며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로 지정되었고 저산팔읍 상무우사는 가장 오래된 보부상의 역사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830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50건의 고문서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데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보부상 유품 4건의 106점은 국가민속문화재 제30-3호로 지정된 문화유산<sup>10)</sup>이다. 특히 홍산 상무사의 주요 특산품은 모시였으며, 일제강점기 초까지 홍산장은 모시 유통이 가장 활발했던 곳<sup>11)</sup>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저산팔읍의 역사성이 현재까지 홍산면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저산팔

9) 18세기 후반 모시가 거래되던 저산팔읍은 5일장이 크게 열렸다. 모시 생산과 거래가 왕성했던 저산팔읍을 중심으로 보부상이 결성되었고 현재 부여군 행정구역에 있는 임천과 홍산을 중심으로 보부상 활동이 왕성했다. 이는 임천을 중심으로 활동한 저산팔읍상무우사와 홍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저산팔읍상무좌사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2023.03.19.

10) 이창식, 「보부상의 문화유산적 가치」, 『무형유산학』 제4권 1호, 무형유산학회, 2019, 246쪽.

11) 위의 논문, 253쪽.

읍 상무좌사 공문제이다. 홍산면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저산팔읍 상무좌사 공문제는 2022년 문화재청 미래 무형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부여군은 홍산면에서 진행되는 저산팔읍 상무좌사와 임천에서 개최되는 저산팔읍 상무우사 공문제를 부여군 향토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저산팔읍 상무좌사 공문제는 조선 후기에 보부상들이 공문(公文)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알려진다. 제사상에 공문과 제물을 함께 올려 무형 문화유산으로 뽑히며, 총회뿐 아니라 임원, 접장 등을 선출하고 잔치를 벌이는 축제와 같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홍산 저포 조합은 해방 후 일반사람들이 살았던 적산가옥이었다가 2017년 11월 22일 국가등록 문화재 제364호로 지정되었다. 본 건물은 1920년에 건립되었으며 저포의 집산지였던 홍산을 대표하는 2층 벽돌 건물<sup>12)</sup>이다.

홍산은 일 년에 삼천 필이 넘는 모시를 생산하였으며 전국 보부상들은 홍산 모시전에서 모시를 사 주변 지역에 유통했다고 한다. 홍산 직조 명인 조온숙에 의하면 “충남지역은 물론이고 대구, 부산, 목포에서 모시 상인들이 모시를 사기 위해 홍산장에 모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홍산은 모시를 전국에 유통하는 집산지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시로 유명한 지역을 한산이라고 알고 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한산모시관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서천군은 지역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 한산모시관을 설립하였고 한산모시 콘텐츠를 개발하여 알리기 시작하였다. 한산모시관에는 모시 전시, 체험, 한산모시의 역사, 한산모시 상품들을 판매하는 쇼핑관<sup>13)</sup> 등의 콘텐츠가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 문화를

1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2023.01.28.

13) 한산모시 전시관은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방연옥(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박미옥(충남무형문화재 제1호) 등 전통 직조 기능 보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를 콘텐츠로 개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한산모시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여군에서는 모시 상인 보부상의 역사성만 강조하고 있어 홍산 모시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저산팔읍 중 모시의 생산과 유통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한산보다 홍산이었다. 현재 홍산은 모시의 생산과 판매가 정체되어 사라질 위기에 있다.

따라서 사라지는 지역 문화를 위해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사라져가는 지역 문화를 예술로 기록하는 실천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예술작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_홍산 모시 이야기>’ 콘텐츠화 과정

본 장에서는 사라져 가는 지역 문화 홍산 모시를 기록하고 이를 예술 콘텐츠로 확장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_홍산 모시 이야기>’의 기획 배경과 내용, 기획의 특징을 나누어 진행한다. 기획의 특징에는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홍산 모시 이야기와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의 과정을 제시하고 장소성과 문화적 지역 개념을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기획 배경과 내용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_홍산 모시 이야기>’는 2022년 충남문화

---

자들 중심으로 1993년 8월 개관하였다. 또한, 한산모시의 맥을 잇고 관광객들에게 체험을 통해 한산모시를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모시풀이 처음으로 발견된 곳인 건지산시슬에 모시각, 전통공방, 전통공방, 한산모시 전시관, 토속관, 전수교육관, 모시체험장, 방문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산모시관홈페이지, <https://www.seocheon.go.kr/mosi.do>, 2023.01.28.

재단에서 실시하는 충남 무용 예술지원 사업 중 개인 분야에 선정된 프로젝트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들어내기 위해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부여지역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홍산 모시에 주목하였다. 문화를 예술로 기록하는 콘텐츠 개발은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본고는 그동안 지역의 문화를 콘텐츠화하는 과정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sup>14)</sup> 본 연구 또한 문화콘텐츠 연구의 일환으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를 예술로 기록하는 것이다.

다음 [표 2]는 본 프로젝트의 기획 정보이다.

[표 2] 기획 정보

| 구분                 | 내용                             |
|--------------------|--------------------------------|
| 총기획 및 연출           | 임수정                            |
| Dance Film 안무 및 출연 | 임수정                            |
| 홍산 모시 타령           | 최병현                            |
| 인터뷰                | 최병현, 진수범, 임양순, 조은숙             |
| 영상 촬영 및 편집         | 허윤기                            |
| 홍산 모시 직조           | 임양순, 조은숙                       |
| 홍산 모시 염색           | 오명옥                            |
| 모시 의상 제작           | 홍조 이소영                         |
| 자료집 기록             | 임수정                            |
| 주관, 주최             | 임수정                            |
| 후원                 | 충남문화재단, 부여군, 홍산문화보존회, 홍산보부상보존회 |

위 [표 2]는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_홍산 모시 이야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나타낸 표이다. 기존의 학술 연구에서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14) 문화를 활용한 예술 콘텐츠 연구 사례로는 임수정, 「장소 특정적 공연을 통한 지역의 특성화의 시도와 그 효과」, 『인문콘텐츠』 41호, 2016, 인문콘텐츠학회, 153-175쪽.

임수정, 「조선의 여성문인 김호연재 시의 Dance Film 콘텐츠와 과정」, 『문화와 융합』 제42권 10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833-852쪽.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문헌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하지만, 문화연구는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면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인문학적으로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산 모시와 함께 삶을 살아온 지역민 4명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참여인들은 현재까지 홍산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홍산에 두 분밖에 남지 않은 홍산 모시 직조의 맥을 이어오는 분들이다.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홍산 모시에 대해서 기록하였으며 임양순 명인님의 삶을 스토리텔링하여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에 녹여 제작하였다. Dance Film 음원으로 활용한 <모시 장사 타령>은 홍산문화보존회 회장 최병헌이 지역식퇴로 점점 사라져 가는 홍산의 모습을 노래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홍산 모시 풀로 직접 제작한 모시 원단으로 천연 쪽 염색을 들여 의상을 제작하였다. 모시는 참여한 임양순, 조온숙 명인님이 직접 직조하신 원단을 활용하였다.

다음은 기획 의도를 제시한다.

[표 3] 기획 의도

| 구분    | 세부 내용   |
|-------|---|
| 기획 목적 | 본 콘텐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여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하고 춤으로 확장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사라져 가는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고 홍산 모시와 함께 삶을 살아온 지역민들의 기억 속 홍산 모시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예술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이다. 셋째, 장소 특정적 Dance Film을 제작하여 장소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
| 기획 의도 |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렌스_홍산 모시 이야기>’는 지역의 역사 문화를 기록하고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킨 모시 장인들의 이야기를 예술 콘텐츠로 확장하는 작업이다. 홍산 모시 장인들이 만든 모시로 공연 의상을 제작하고 공문제를 지냈던 홍산지역에서 장소 특정적 공연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예술 콘텐츠화 과정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 기대한다. |

[표 3]에 제시한 목적과 의도를 통해 본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

을 알 수 있다.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춤으로 재해석하는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문화적 요소를 작품에 적용하는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프로젝트의 특징을 홍산 모시 이야기와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로 나누어 인터뷰 과정에서 발견한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 2) 기획의 특징

### (1) 홍산 모시 이야기

홍산 모시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해 온 지역민들의 기억 속 홍산 모시에 대해 기록하기 위해 홍산문화보존회 회장 최병헌, 홍산보부상보존회 회장 진수범, 현재 두 분밖에 남지 않은 홍산 모시 직조 명인 임양순과 조온숙 총 4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역쇠퇴로 사라져 가는 홍산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홍산문화보존회 최병헌 회장은 60곡의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0곡의 노래에는 홍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60곡의 노래 중 <모시 장사 타령>을 Dance Film 음원에 활용하였다.

#### 모시 장사 타령

이른 봄에 놀지 않고 거름을 내어  
모시밭에 거름 주고 길러낸 모시  
아낙네들 정성으로 자란 모시가  
오뉴월에 자란 것이 손주 키만 하네요  
태모시 필모시 얼씨구나 좋구나

푸른 쪽빛 태모시가 만들어지니  
그 모시가 홍산장에 태모시라오  
아낙네들 옹기종기 길쌈을 해서  
덜커덩 똑딱 짜낸 것이 홍산에 필모시  
태모시 필모시 얼씨구나 좋구나  
  
이장저장 돌아봐도 홍산장만 하겠소  
푸른 쪽빛 태모시를 구경 한번 하시오  
매일같이 일만 하는 우리 서방님  
모시옷을 입고 보니 날개 단 듯 하네요  
태모시 필모시 얼씨구나 좋구나  
  
한산장에 모시 한 필 닷 냥이던데  
홍산 모시 질이 좋아 옛 냥 주시오  
  
태모시 필모시 홍산에 명물  
잠자리 날개 같은 홍산에 필모시  
태모시 필모시 얼씨구나 좋구나

위 내용은 <모시 장사 타령>의 노랫말이다. 노래의 텍스트를 보면 예전 홍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 다 볼 수 있다. 홍산의 문화가 사라져 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홍산문화보존회 최병헌 회장님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한 줄씩 적어냈다고 한다. 전문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경험을 통한 노랫말에는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문화적 기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창조적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다음 [표 4]는 발간한 자료집에 수록된 인터뷰 내용이다.

[표 4] 홍산 지역민 인터뷰

| 참여자<br>이름   | 인터뷰 내용  |
|-------------|---|
| 최<br>병<br>현 | <p>예전에는 집집마다 모시풀 농사를 지었어요...지금 이때쯤이면 모시를 베서 꺾질을 벗기고 태모시를 만들었죠. 태모시를 필모시로 짜려고 틀에 걸어서 짰던 어른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홍산지역 사람들은 모시를 다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도 논일과 밭일을 하면서 째째이 모시를 짜셨으니까요.</p> <p>모시는 손으로 만드는 수공이라 산업화 과정에서 모시 생산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집 모시밭도 제법 컸어요. 150 평정도 모시 농사를 지어서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모시를 짜서 몇 필은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예전에 모시전 옆에 검사소가 있었는데 모시를 검사하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검사소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시장에서 모시를 팔 수 있었습니다. 또 모시전 옆에는 표백소도 있었습니다. 모시를 뽀얗게 탈색해서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 홍산 모시전은 굉장이 컸어요... 홍산 사람들도 한산 가서 팔고 한산 사람들도 홍산장에 와서 팔고 그랬습니다. 모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태모시를 장에서 사다가 모시를 짜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산모시를 세모시라고 하는데 홍산 모시도 세모시입니다. 태모시를 사람 속살이 보일 정도로 입으로 가늘게 짜서 모시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홍산 모시옷을 잡자리 날개 같은 옷이라고 했습니다.</p> <p>예전 어머님들은 모시를 많이 하셔서 모시품을 이빨로 짜다 보니 이 한쪽이 달았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모시풀을 베어다 주면 어머니가 모시를 짰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늘 상 보면서 자랐습니다.</p> |
| 진<br>수<br>범 | <p>홍산 보부상의 정확한 명칭은 저산팔읍상무좌사입니다. 저산팔읍은 모시 생산이 많은 8개 지역을 말합니다. 저도 보부상보존회 일을 하기 전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지역의 부장들의 활동하는 모습과 몇 년간 직접 활동하면서 하나씩 배우게 되었습니다.</p> <p>모시는 전국 어디에서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8군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양이 많았습니다. 8군에서 생산된 모시는 전국적으로 유통됐습니다. 특히 홍산은 유통하는 8군 중에 가장 큰 지역이었습니다.</p> <p>무엇보다 지역민들 스스로가 홍산 보부상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홍산 보부상 문화를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후대까지 계승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예산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p>   |

|            |   |
|------------|---|
| <p>임양순</p> | <p>태어난 곳은 보령 미산입니다. 열다섯부터 모시를 짰어요. 모시를 짜면 목돈이 생기니까 친정에 보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홍산으로 시집을 왔는데 시집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모시를 해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먹고 살았습니다. 남 한필 할 때 저는 두 필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모시하느라 12시전에 자곤 기억이 없습니다. 요새는 거래가 없어서 모시를 안하고 있어요. 제 작년까지 모시 찾으면 매고 했는데 작년부터 장사꾼도 똑 끊기도 모시를 미리 짜도 못 팔면 헛수고니까 누가 찾으면 그때그때 짜고 팔고 합니다. 예전에 홍산은 모시를 짜는 사람도 많고 장사꾼도 많아서 새벽 4기가 되면 대문 앞에 짠 모시를 내놓으면 장사꾼들이 모시를 걸어갔어요. 모시는 하기는 어려워도 먹고살기 좋았어요. 자식들도 힘들지 않게 가르치고 살림살이에도 도움도 되고 그래서 어려운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모시풀을 베어다 팔기도 했어요. 홍산에 모시가 많아서 밭에서 베어다 팔기도 하고 태모시를 사다가 모시 짜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모시풀이 없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홍산에 모시풀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모시전이 싹 없어졌어요.</p> <p>저는 모시 때문에 참 어렵기는 해도 재미나게 하면서 지금까지 모시를 짜며 노력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살다가 마음이 복잡하면 잠안자고 더하고 돈 없으면 모시 베다가 삶아서 이빨로 짜서 무릎에 비벼서 모시를 연결해서 틀에 놓고 짜서 팔고.... 모시로 돈 부족하다고 생각도 안하고 살았네요.</p> <p>요즘에는 모시가 사라져서 서운해요. 난 가끔 꿈도 꾸요. 옛날에 모시 했던 꿈이요. 예전에 모시하면서 살았던 내 모습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네요.</p>              |
| <p>조은숙</p> | <p>미산에서 태어나서 서천으로 이사해서 모시는 어릴적부터 어른들 하시는 거 보고 자랐습니다. 예전에 모시가 주 생활이었죠. 그리고 홍산에 결혼해서 호면서 모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품팔러 가고 돈 벌러 공장 가고 그런 것을 안하면 시골 생활이 주로 모시였어요. 어릴적 서천에서 모시 할 때도 홍산으로 모시 팔러 많이 왔어요. 예전 홍산 시장이 지금 구 시장 공동 화장실 있는 그 앞이었어요. 홍산 다음으로 판교도 모시장이 컸지요. 홍산에 대구, 부산, 목포 그쪽에서 거상들이 오면 모시가 모자라서 하여튼 파동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시가 사라지더라구요. 아무래도 중국 모시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 모시는 몇만원 안갔죠. 그렇게 중국모시가 싸니까 한국 모시가 자리매김을 못하더라구요. 모시풀을 키워야 소비가 없으니 쓸모가 없게 되니까 점점 모시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p> <p>예전 홍산은 집집마다 모시풀 농사를 지었어요. 모시풀 꺾대기 벗겨서 시장에 내다 팔아도 돈이 됐으니까요. 예전 홍산장에는 필모시는 새벽 4시부터 팔았는데 5시가 되면 싹 끝났어요. 그리고 새벽 6시 되면 태모시를 팔았고 태모시가 끝나면 실모시를 팔았어요. 한국 모시가 안 팔리니까 모시풀도 다 없어진 거죠. 요즘에도 홍산장에 태모시를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 만나면 자네가 모시 할 때가 좋았다고 하세요. 요즘 모시 짜는 사람이 없어서 사가는 사람도 없죠. 서천 한산에서 한산모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홍산에서 해야 하는데 왜 한산에서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한산은 모시 시장이 크지 않았거든요. 한산 세모시라고 하는데 홍산도 세모시를 많이 짰어요.</p> |

예전의 홍산은 집집마다 모시풀 농사를 지어 모시를 생산하였다. 주 생  
산품이 모시다 보니 모시풀 농사와 모시 직조는 홍산 주민들의 생계 수단  
였다.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찼던 홍산장의 모습은 주로 모시 거  
래가 주를 이루었으며, 충남 저산팔읍 중 홍산에서 가장 모시 생산과 판매  
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홍산에서 모시가 사라진 주된 원인은 산업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서 수공예품인 모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92년 한·중 수  
교 이후 값싼 중국 물품이 수입되면서 가격 경쟁에 밀려 모시 생산이 중단  
되었다는 것을 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 산업화, 도시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어 현대인들에  
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지역 문화가 쇠퇴하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서 예술가, 지역 문화기획자, 지역 행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라져 가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 시  
도, 기록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를 예술에 반영하는 작업은 그 문화를 경험하고 자란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지며 이러한 관점에서 콘텐츠화 작업은 예술가 혼자만의 작업  
이 아닌 지역민들과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본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하고 새롭게 만들  
어가는 지역민들의 이야기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좋은 텍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는 지역을 더욱 결속하게 하는 힘을 형성할 것이  
다.

## (2)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는 임양순 명인님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

현한 영상 콘텐츠이다. 촬영장소는 홍산 관아에 있는 홍산객사에서 진행하였다. 홍산 객사는 조선시대의 객사로 국왕의 전패를 모신 장소이면서 외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파견으로 온 관리가 머물렀던 장소이다. 홍산 객사는 홍산 관아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1982년 8월 3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sup>15)</sup>되었다.



[그림 1] 인터뷰 참여자<sup>16)</sup>

영상에 활용된 음악은 조지 크럼(George Henry Crumb, 1929-2022)의 《Makrokosmos I》와 <모시 장사 타령>이며, 의상은 인터뷰에 참여한 직조 명인이 짜신 홍산 모시에 천연 쪽 염색을 들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영상 콘텐츠와 의상은 전시로 확장하여 홍산 모시를 홍보하였다.

다음은 임양순 명인의 인터뷰에서 도출해 낸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 작품 내용이다.

여성으로서 가정의 역할을 해야 했던 명인님의 삶은 칼 용의 집단 무의식 아니무스를 떠올리게 한다.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을 의미하는 아니무스! 임양순 명인님은 가냘픈 손으로 모시풀을 베고 이로 짜서 틀에 넣어 짜는 과정을 통해 몸이 힘들어도 자식을 부양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억척같이 남편의 역할까지 감수했다.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냈지만 이젠 그것도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자식들도 키우고 돈도

15)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https://terms.naver.com/>, 2023.02.21.

16) 왼쪽부터 홍산문화보존회 회장 최병헌, 홍산보부상보존회 회장 진수범, 직조 명인 임양순과 조운숙이다. 본 사진은 인터뷰 당시 촬영했던 사진이며 자료집 발간 시에 활용하였다.

별면서 살림까지 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했다. 먹고 살기 위해 이가 달도록 모시풀을 찌서 발버둥 쳤던 임양순 어머니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을 것이다. 홍산 모시와 명인님의 삶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홍산의 문화와 그리고 모시와 함께 연결되어 존재했다. 그런 그녀의 몸과 감정은 여성 무용수의 몸을 통해 재표현된다.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명인님의 작업이 무용수를 통해서 기록된다.

홍산의 모시밭 풍경이! 모시전 풍경이! 동네 아주머님들의 모시를 찌는 풍경이! 이젠 곧 사라지겠지만 명인님의 몸과 정신은 예술가의 기록 작업을 통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2022. 08. 15. 촬영 Dance Film<기억 2<sup>nd</sup> Story> 내용 중에서)

지역의 문화는 지역민들의 삶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홍산 모시는 지역민들이 삶의 생계 수단이었다. 위 영상은 모시를 찌는 작업이 고단했지만 홀로 자식을 키워야 했던 여성의 이미지를 움직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의 작품 내용은 처음부터 설정하여 진행한 것이 아니다. 홍산 모시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모시와 한평생을 살아온 임양순 명인님의 삶을 알게 되었고 여성으로서 깊이 공감하고 표현한 것이다.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에는 지역 문화, 그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온 지역민의 이야기, 예술가의 몸이 함께 존재한다. 본 작품은 전시 일정이 종료된 후 유튜브 채널에 탑재<sup>17)</sup>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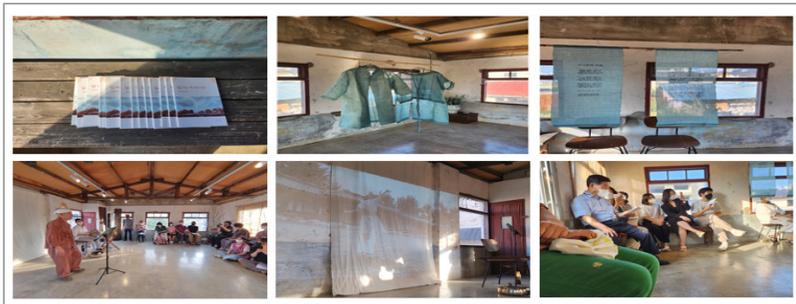
‘Dance Film<기억 2<sup>nd</sup> Story>’은 사라질 위기에 있는 홍산 모시를 춤으로 기록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지역민들의 삶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결과물이다. 홍산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라져 간다는 아쉬움에 옛 홍산의 모습을 노래로 만든 홍산문화보존회 최병헌 회장의 노력과 모시와 한평생을 살아 온 직조 명인님들의 삶은 홍산지역의 정체성을 들어내는 본 프로젝트에 가장 좋은 수단이 되었다.

17)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E8AqqAzGPUE>, 2023.02.21.



[그림 2] Dance Film 촬영 장면

기록과정에서 수집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은 전시로 확장하였다. 과정을 기록한 자료집과 홍산 모시로 제작된 의상,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을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시 시작일 9월 17일에는 사라져 가는 홍산의 문화와 모습을 그린 노래를 공연하면서 홍산의 문화를 홍보하였다. 전시는 장소는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에 있는 ‘스튜디오 부여’에서 진행하였으며 전시 기간 관람객은 약 500명이다.



[그림 3] 전시 모습

지역문화콘텐츠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_홍산 모시 이야기>’는 결과 보다는 그 과정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의 의미

역사는 기억과 상대적이라는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주장은<sup>18)</sup> 역사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역사 인식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집중되다 보니 민중의 기억은 배제되었고 공동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초래했다.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시작하여 집단기억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사라지면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이는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었다.<sup>19)</sup> 사회정치적 이권에 의도적으로 선택된 역사 기록에 저항하는 민중의 집단기억은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된 것이다. 즉 문화적 기억은 역사의 재평가에서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기억은 기억을 보존하는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형성<sup>20)</sup>된 것이다. 또한, 야스만의 정치 사회적 이권에 따라 선택된 역사 그리고 문화 공동체의 기억을 객관적으로 절충해 재창조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을 넘어 지역 문화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제시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라져가는 홍산문화를 기록하기 위해 홍산문화보존회 최병헌 회장은 홍산의 역사 문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기억을 채록하였다. 이러한 홍산 공동체의 집단기억은 60여곡의 노래로 재탄생된 것이다.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에 활용된 <모시 장사 타령>도 공동체의 기억을 노래로 재해석한 것이다. 현재 홍산의 노래는 본 프로젝트의 전시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2022년 백제 문화제 행사에 초대되어 공연하였으며 2023년 부여 문화

18) 피에르 노라 외 저, 김인중 외 역, 『기억의 장소: 제1권 공화국』, 나남, 2010, 34-35쪽.

19) 제프리 K. 올릭 저, 강경이 역,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217쪽.

20) 김정현, 송희영, 「문화적 기억과 도시정체성 재현으로서의 문화콘텐츠 연구- 폴란드 브로츠와프 ‘난쟁이도시’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32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8, 104-105쪽.

행사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문화적 기억은 예술 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안 아스만의 주장에 근거하여 음악과 춤이라는 예술 매체로 재생산되어 홍산의 역사 문화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촬영장소인 홍산 객사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홍산의 역사적 장소이다. 홍산 객사에는 국왕의 전패가 모셔져 있으며 저산팔읍 상무좌사 공문제를 드리는 홍산 관아에 위치하고 있다.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의 촬영장소는 홍산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 속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 특정적이라 정의할 수 할 수 있다.

홍산의 모시는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홍산지역에 정착하여 제도적 영향 아래 변화되고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있다. 지역과 지역에서 역사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온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예술의 역할은 문화를 향유한 민간 공동체의 기억을 반영하는 작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 4. 맺음말

지역의 문화를 예술로 기록하는 콘텐츠화 작업은 문화연구의 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 문화를 활용한 예술 콘텐츠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춤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_홍산 모시 이야기>’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역의 문화를 예술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홍산의 문화를 몸으로 느끼고 살아왔던 지역민들과 협업하여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술작업과 차별성이 있다.

홍산은 충남의 저산팔읍 중 모시 생산과 유통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다.

그러나 현재는 모시품의 풍경도 집집마다 모시를 짜는 모습도 사라져 홍산 주민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지역의 문화가 사라지는 현상은 홍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지역쇠퇴 현상이 일어나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 되는 것이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홍산의 모시 문화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부여군 지자체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비 공예마을에 홍산 모시 생산 플랫폼을 만들어 모시 직조의 명인을 지속적으로 배출시켜 그 맥을 이어가거나 사비 공예마을에 상주한 공예작가들과 협업하여 홍산 모시 굿즈 상품 개발을 시도해보는 것도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한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문화를 보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콘텐츠 과정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과정 연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우수 레파토리 예술작품으로 재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학자, 지역 문화기획자, 예술가,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협업하는 모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최태경,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 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7.
- 국립민속박물관, 『부보상, 다시 길을 나서다 :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 충청남도, 2010.
-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2010.
- 피에르 노라 외 저, 김인중 외 역, 『기억의 장소: 제1권 공화국』, 나남, 2010.
- 제프리 K·올릭 저, 강경이 역,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 문화재관리국 편, 『저산팔구상무우사유품』,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1992.
- 조영준,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저산팔읍 상무우사 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 조연준,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저산팔읍 상무좌사 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 이창식, 「보부상의 문화유산적 가치」, 『무형유산학』 제4권 1호, 무형유산학회, 2019, 235-281쪽.
- 조해진, 「지역문화유산의 콘텐츠제작 활성화에 관한 연구-강릉대도호부관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5권 4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9, 495-506쪽.
- 최종호, 「보부상의 역사와 전통, 창조적 전승 방안: 부여 임천상무우사를 중심으로」, 『무형유산학』 제5권 2호, 무형유산학회, 2020, 79-123쪽.
- 임수정, 「장소 특정적 공연을 통한 지역 특성화의 시도와 그 효과」, 『인문콘텐츠』 41호, 인문콘텐츠학회, 2016, 153-175쪽.
- 임수정, 「조선의 여성 문인 김호연재 시의 Dance Film 콘텐츠화 과정」,

『한국문화융합학회』 제43권 10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833-852쪽.

김정현, 송희영, 「문화적 기억과 도시정체성 재현으로서의 문화콘텐츠 연구-폴란드 브로츠와프 ‘난쟁이도시’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32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8, 99-117쪽

Aleida Assmann, “Memory, Individual and Collective”, in: Robert E Goodin & Charles Tily(Eds.), The Oxford Handbook of Contextual Politic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210-297쪽.

Aleida Assmann, “Canon and Archive”, Cultural Memory Studies: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Erl, A. and Nünning, A. Eds. Berlin: Walter de Gruyter, 2008, 97-107쪽.

최종호,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 『한국전통문화학보』 98호, 2015.12.0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2023.01.28.

한산모시관 홈페이지, <https://www.seocheon.go.kr/mosi.do>, 2023.01.28.

KBS 2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2021.07.03. 방영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E8AqqAzGPUE>.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를 춤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또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여 지역 문화콘텐츠 연구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춤을 위한 기록 <호모나랜스\_홍산 모시 이야기>’는 충남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충남 무용 예술지원의 개인 분야에 선정된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기록과정에서 발견된 콘텐츠를 작품에 녹여내어 기존의 예술작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홍산 모시를 기록하기 위해 홍산문화보존회 최병헌 회장, 홍산보부상보존회 진수범 회장, 홍산 모시 직조 명인 임양순과 조은숙 총 4인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홍산문화보존회 최병헌 회장은 잊혀져 가는 홍산의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예전의 홍산 모습을 노래로 만들어 고향의 문화를 지켜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홍산 지역민의 홍산 모시 이야기를 기반으로 ‘Dance Film <기억 2<sup>nd</sup> Story>’가 제작되었다. 작품의 내용은 모시를 하며 홀로 자식을 키워낸 임양순 명인님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홍산문화보존회 최병헌 회장의 <모시 장사 타령>이 음원으로 사용되었고 인터뷰에 참여한 직조 명인이 짠 모시에 천연 쪽 염색을 들인 원단을 활용하여 의상을 제작하였다.

문화를 예술에 반영하는 작업은 그 문화를 경험하고 자란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을 본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하였다. 즉, 콘텐츠화 작업은 예술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닌 함께 협업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예술을 활용한 지역 문화연구의 방향성 제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지역 문화, 무용 콘텐츠, 홍산 모시, 지역문화콘텐츠, 문화연구

## ■ Abstract

### Study on the Process of Local Culture Contentization : Based on Record for Dance <Homonarrans\_Hongsan Mosi Story>

Lim, Su Jeong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recording disappearing local culture in the form of dance and explores its meaning. The main purpose is to present a research direction for local culture contents by focusing on the process rather than the results.

‘Record for Dance <Homonarrans\_Hongsan Mosi Story>’ is a project selected for the individual field of Chungnam Dance and Arts Support conducted by the Chungnam Cultural Foundation. This project differs from existing art work by reflecting the content found in the recording process into the work.

In order to record Hongsan Mosi, which is in danger of disappearing, four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hoi Byung-hun, chair of the Hongsan Cultural Preservation Society, Jin Soo-beom, chair of Hongsan Peddler Preservation Society, and two weaving masters, Lim Yang-soon and Cho On-sook.

During the interviews, it was found that Choi Byung-hun, chair of the Hongsan Cultural Preservation Society was trying to protect his hometown's culture by making songs of the old Hongsan's image to preserve and develop the forgotten Hongsan culture. ‘Dance Film <Memory 2<sup>nd</sup> Story>’ was produced based on the Hongsan Mosi story of the local Hongsan people. The content of the dance film symbolically expresses the life of Lim Yang-soon, a master who raised his children alone while weaving a Mosi. In addition, 《Hongsan Mosi Taryeong》 by Choi Byung-hun was used as a sound source, and costumes made of naturally dyed Mosi, which were woven by a

weaving master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were utilized.

The work of reflecting culture in art is conducted with local people who have experienced and grown up with the local culture, and from this point of view, contentization work is only possible when artists work together, not alo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in presenting the direction of local cultural research utilizing art.

**Keyword • Local culture, Dance content, Hong-san ramie, Local culture content, Culture study**

## 논문투고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1년 11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 지식의 대중화, 교양 관련 이론,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2023년부터 적용)

- 1)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정하되, 편집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2월 15일, 2호 학술지는 6월 15일까지, 3호 학술지는 10월 15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

- 1) 논문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

원가입을 한 후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5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학술지 및 간행물을 통해 이미 출판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게재확정 이후라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1)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업로드한다.
- 2)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kl@mokwon.ac.kr) 투고도 가능하다.
- 3) 모든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https://lic.jams.or.kr>)에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논문 원문파일(저자, 소속 삭제)’을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7조 8)항) 기준 10매~ 20매 (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25매(참고문헌, 초록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 또는 ‘MS Word’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논문에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 4) 원고는 논문 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 초록 및 주제어,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저자 모두 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한다.

-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 7)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 소속기관    | 직위        | 투고자 정보   |
|---------|-----------|--|
| 대학      | 교수, 강사    |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
|         | 박사 후 연구원  | 성명/ 대학명/ 박사 후 연구원  |
|         | 학생        | 성명/ 대학명/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
| 유초중고 학교 | 교사        | 성명/ 학교명/ 교사  |
|         | 학생        | 성명/ 학교명/ 학년  |
| 연구기관    | 연구원       | 성명/ 기관명/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
| 기타기관    | 공무원, 사원 등 | 성명/ 기관명/ 직위  |
| 소속 없음   | 성인        | 성명/ 대학명/ 종별 학위<br>성명/ 전 소속/ 직위<br>성명/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
|         | 미성년자      | 성명/ 학교명/ 졸업(또는 수료, 중퇴 등)                                     |

8)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작성 용지 설정

- ① 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 ② 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2) 글자 모양

- ① 글꼴 : 나눔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 ② 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 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초록 10.5
-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3) 문단모양

- ①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 ②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 ③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 ④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 ②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 줄 땀)
- ③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 ④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 ⑤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1. 2. 3.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① ② ③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 」를, 단행본인 경우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 ②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 ①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②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https://www.mokwon.ac.kr/lic>, 2022.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

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한다.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를 명기하고, 저서의 경우는 쪽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김병정, 「영화 <혼자>의 롱테이크와 촬영기술 연구」, 『지식과 교양』 8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1, 25~47쪽.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50-85.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단, 제목은 진하게)

-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 영문초록은 국문초록 다음에 첨부하며 제목과 성명, 소속을 병기한다.

(8) 기타 편집사항은 논문 템플릿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 논문 제목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15만원
  - 연구비 수혜논문 : 30만원
-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감수비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2조(저작권) (2021.11.01. 개정)

- 1)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 권한은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 위임한다.
-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 제14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심사 및 판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lic.jams.or.kr/co/main/jmMain.kci>) 내에서 심사할 논문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입력 또는 첨부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판정         |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수정 후 게재    |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
| 게재가능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 수정 후 게재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
| 게재가능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게재불가       |            |
| 수정 후 게재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게재불가       |            |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게재불가       | 편집위원회 재심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전면수정 후 재투고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전면수정 후 재투고',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제3조(심사 및 판정)

- 7)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판정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 온라인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출

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8. 3. 1.

개정 2021. 3. 1.

개정 2022. 3. 1.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 263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해 따른다.

####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서약서. 별첨 1, 2)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 규정준수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표절 :

-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내용 또는 분량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 (4)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경우

2) 위조 : 실험, 관찰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3)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삭제하는 행위

- (1)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 (2)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 (3)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 (4)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4) 중복 게재 :

- (1)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 자료,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

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2)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3)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원고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작성 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 5)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미성년 연구자, 논문 투고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논문투고의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6) 논문에서 저자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나눈다.

-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 (2) 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및 심사자와 교신하는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연구책임자이다.

-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저자 표시 순서에서 맨 뒤에 배치한다.
- ③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저자(제1저자)

저자의 표시 순서에서 제일 앞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의 주요 기여자이다.

(4) 공동저자

- ①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 ②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 ③ 공동저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배치한다. 저자 표시순서는 교신저자 주도하에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젠더혁신정책)**

투고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아니 되며,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

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전면수정 후 재투고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및 편집위원장,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위촉하는 인사 5인 내외로 구성되며,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장 위반행위의 조사

###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의 입증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제11조(위반행위 조사의 기간)

- 1) 위반행위의 조사 기간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제보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는 만 5년으로 한다. 그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5년 이전의 위반행위라도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가 5년 이내일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5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재심의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 제21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지식과 교양>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기타 학술지 관련 업무
- (4) 본 연구소의 편집 관련 업무

###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 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 검토와 판정
- (3) 논문 수정사항 확인을 통한 게재 여부 확정
- (4) 기타 학술도서 기획 및 심사 편집에 관한 건

#### 제6조(규정준수 의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심사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술지 발간 및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연구센터장 : 송석량
  - ◇ 편집위원장 : 최혜진
  - ◇ 편집위원 :  
구진희(목원대), 김경래(한국교원대), 김순정(성신여대), 김요한(영남대),  
김혜정(경인교대), 문성호(중앙대), 배병운(한라대), 서유석(경상대),  
원은석(목원대), 정옥희(목원대), 조기웅(전북대), 조용림(목원대),  
조준희(동국대), 최병진(제주대), 홍태한(전북대)
-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23년 03월 30일 / 30 March 2023

통권 제11호 / No.11

발행인 송석량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원

발행일 2023년 03월 30일

(우편번호 35349)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1층 교양교육혁신연구원

Tel 042-829-8198

E-mail kl@mokwon.ac.kr

<https://lic.jams.or.kr>

편집·인쇄처 오름디자인기획

전화 : 042-825-6157~8